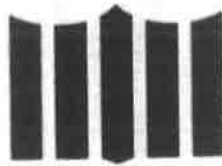


# 2021고합982호 등 사건 종합의견서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982호  
죄 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피 고 인 권오수 등



**검찰**

PROSECUTION SERVICE

2022.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 귀중

2023717

.....

目 次

- I. 피고인들 및 범죄사실의 요지 ..... 1
- II. 개요 .....9
  - I. 피고인들의 주장 .....9
  - II. 이 사건 시세조종의 개요 ..... 10
    - ① 이 사건 시세조종의 특징 .....10
    - ② 이 사건 시세조종의 진행 경과 .....11
    - ③ 혐의군 및 시세조종 관련계좌 재특정 .....13
    - ④ 시세조종 관여율 및 시세조종성 주문 분석 .....13
    - ⑤ 소 결 .....17
  - III. 시세조종의 동기 ..... 17
    - ① 권오수, 이 의 범행 동기 .....17
    - ② 권오수, 이 , 김 의 범행 동기 .....19
    - ③ 소 결 .....25
- III. 구체적 시세조종 범행 경과 .....26
  - I. 권오수, 이 의 범행 .....26
    - ① 권오수의 이 에 대한 시세조종 의뢰 .....26
    - ② 권오수와 이 의 시세조종 실행 .....33
  - II. 이 김 의 범행 .....38
    - ① 이 , 김 의 김 에 대한 수급의뢰 .....38
    - ② 김 의 2010. 8.~10.경 민 계좌 등을 이용한 매집 .....40
  - III. 권오수, 김 , 이 의 시세조종 범행 .....41

- ① 권오수의 김 [ ]에 대한 시세조종 의뢰 .....41
- ② 권오수, 김 [ ], 이 [ ] 의 시세조종 실행 .....45
- IV. 피고인들의 시세조종 범행 .....50
- IV.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64**
  - I. 권오수, 이 [ ], 김 [ ], 김 [ ] 의 공모관계 .....64
    - ① 권오수, 이 [ ], 김 [ ] 의 공모관계 .....64
    - ② 이 [ ], 김 [ ], 김 [ ] 의 공모관계 .....69
    - ③ 이 [ ] 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76
  - II. 권오수, 김 [ ], 이 [ ] 의 공모관계 .....81
    - ① 공모경위 .....81
    - ② [ ]인베스트의 김건희, 김 [ ] 명의 증권계좌 사용 .....82
    - ③ 권오수의 지속적인 범행 가담 .....85
    - ④ 소 결 .....96
  - III. 김 [ ], 김 [ ], 이 [ ], 손 [ ], 한 [ ] 의 공모관계 .....98
    - ① 김 [ ] 손 [ ] 의 공모관계 .....98
    - ② 김 [ ], 이 [ ] 의 공모관계 .....104
    - ③ 김 [ ], 김 [ ], 한 [ ] 의 공모관계 .....112
    - ④ 소 결 .....120
- V. 김 [ ] 의 금품수수 범행의 증거관계 .....121**
  - I. 피고인의 주장 .....121
  - II. 대가지급의 조건이 결정되어 있었던 사실 .....121
  - III. 이 [ ] 로부터 수수한 금품 .....122
  - IV. [ ] 손실보전 금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124



V. 소 결 ..... 125

VI. 양형 의견 .....127

I. 사안의 특징 및 피고인들의 죄질 ..... 127

II. 대법원 양형기준 ..... 131

III. 최근 유사판결 선고형량 ..... 132

VII. 결 론 .....133





피고인 김 [ ]은 2008. 11.경부터 2011. 10.경까지 토리스증권(변경된 상호 '디에스증권', 이하 '디에스증권' 이라 한다), 2011. 10.경부터 2012. 10.경까지 KTB투자증권에서 각각 근무하면서 고객 유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 이정필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 수급을 의뢰 받아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대량매집하고, 피고인 권오수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을 의뢰받고 피고인 이 [ ], 민 [ ], 피고인 김 [ ], 피고인 한 [ ], 피고인 이 [ ], 피고인 손 [ ], 피고인 김 [ ] 등과 함께 2010. 5.경부터 2012. 12.경까지 차명계좌 및 증권사 고객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본건 시세조종 행위>를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

피고인 이 [ ]는 2004. 7.경부터 현재까지 투자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주)인베스트(이하 [ ]인베스트' 라 한다, 소위 '부띠끄' 투자자문사)의 대표로서,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 권오수, 피고인 김 [ ], 민 [ ] (피고인 이 [ ]의 처남으로 위 [ ]인베스트에서 감사로 근무) 등과 함께 <본건 시세조종 행위>를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

피고인 김 [ ]은 2009. 10.경부터 2010. 6.경까지 디에스증권, 2010. 6.경부터 2010. 9.경까지 유진투자증권, 2010. 10.경부터 2011. 11.경까지 현대차증권, 2011. 11.경부터 2012. 1.경까지 NH농협증권, 2012. 2.경부터 2012. 12.경까지 KTB투자증권에서 각각 근무하면서 고객 유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자신 및 고객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 김 [ ], 피고인 한 [ ] 등과 함께 <본건 시세조종 행위>를 실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한 [ ]은 2010. 1.경부터 2010. 12.경까지 미래에셋증권, 2011. 1.경부터 2011. 9.경까지 NH농협증권, 2012. 2.경부터 2012. 7.경까지 KTB증권에서 각각 근무하면서 고객 유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자신 및 고객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 김 [ ], 피고인 김 [ ] 등과 함께 <본건 시세조종 행위>를 실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이 은 2008. 3.경부터 2013. 10.경까지 전자기기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우리기술(이하 '우리기술' 이라 한다)에서 투자 및 자금유치 담당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 및 위 우리기술 직원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 김민 등과 함께 <본건 시세조종행위>를 실행한 사람이다.

피고인 손 는 2007. 2.경부터 최근까지 부동산개발 및 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 (이하 ' ' 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자신 및 처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고가매수 등 이상매매 주문을 제출하면서 대량매집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본건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한 사람이다.

피고인 김 은 2009.경부터 2013.경까지 솔로몬투자증권(변경된 상호 '아이엠투자증권', 이하 '솔로몬투자증권' 이라 한다) 법인영업부에서 기관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영업 및 주문 대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시세조종행위에 필요한 증권사 애널리스트 보고서와 같은 IR자료를 만들어내고, 기관투자자들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매수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본건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한 사람이다.

## 2. 범행에 대한 공모 및 역할

권오수는 2009. 11.경 주가조작 주포 또는 선수로 활동하던 이 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100만주를 주식수급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면서 주가부양 내지 주가관리를 의뢰하였고, 이에 이 은 2009. 11. 하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전 등에게 수급을 의뢰하여 위 전 등으로 하여금 김 , 김 등의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거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매집 하도록 하고, 2010. 1.경 권오수로부터 소개받은 양 등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거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매집하였다.

한편, 이 은 2010. 5.경 내지 2010. 6.경 당시 디에스증권 창남센터에서 근무

무하던 김 Ⅱ계 도이치모터스의 주식 수급을 의뢰하였고, 김 은 2010. 8. 중순경부터 2010. 9.중순경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김 등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 주문을 내거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매집하였다.

또한, 권오수는 2010. 9.경 이 Ⅰ의 주선으로 김 을 만나 김 이 관리하는 고객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가부양 내지 주가관리를 해 줄 것을 부탁하고, 이에 김 은 이 , 민 김 , 한 , 이 , 손 등과 함께, 권오수가 제공하는 도이치모터스 미공개성 호재정보를 알려주면서, 자신과 관계된 사람들이 대규모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하여 매집행위를 하고 있다는 언동을 통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가 10,000원 내지 20,000원까지 무조건 간다는 식으로 말하는 방법으로 증권사 고객 등 주변인들에게 매수를 권유하여 그들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매집 하는 상황을 형성한 다음, 자신들이 직접 관리하는 계좌를 통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부양하거나 주가하락 시 그 하락을 저지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 3. 구체적인 범죄사실

#### 가. 가장·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행위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짝 후 매매하는 행위(통정매매),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가장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울러 상장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에 관한 일련의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민 ○ ○ ○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0. 1. 12. 10:41:26 김○희 명의의 신한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 ○ ○ ○ ○ ○ ○ ○ ○ ○ ○)를 이용하여 도이치모터스 주식 1,000주를 주당 2,385원에 매수하는 주문을 하고, 같은 날 10:44:32 이 ○ ○ ○ 명의의 유안타증권 계좌(계좌번호 : ○ ○ ○ ○ ○ ○ ○ ○ ○ ○)를 이용하여 도이치모터스 주식 1,000주를 주당 2,385원에 매도하는 주문을 하여, 그 무렵 주당 2,385원에 511주가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12.부터 2012. 9. 12.경까지 사이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 및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시세조종 관련 계좌들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해 통정매매 444회, 가장매매 78회 합계 522회에 걸쳐 총 1,389,840주에 대한 가장·통정매매를 하였다.

#### 나.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행위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울러 상장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에 관한 일련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민 ○ ○ ○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09. 12. 23. 09:47:07 전 ○ ○ ○ 명의의 NH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 ○ ○ ○ ○ ○ ○ ○ ○ ○ ○)를 이용하여, 매수 1호가 2,140원에 20주, 매도 1호가 2,150원에 2,926주인 상황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10,000주를 직전가(2,150원) 대비 5원 높은 주당 2,155원에 매수하는 고가매수 주문을 하여 그 순간 4,926주가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 23.경부터 2012. 12. 5.경까지 사이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 및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시세조

종 관련 계좌들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해 고가매수주문 2,955회 3,888,567주, 물량소진주문 2,963회 1,1,906,157주, 허수매수주문 933회 1,875,866주, 시·종가관여주문 431회 1,636,172주의 이상매매주문을 제출함으로써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였다.

#### 다. 인위적 매수세 형성을 위해 내부정보 유출 및 거짓의 시세 이용 등을 통한 부정합 수단·계획·기교 행위

누구든지 ▲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이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합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민 등과 함께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부양하거나 주가하락 저지를 위하여 도이치모터스주식에 대한 인위적인 대량매집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자신들이 직접 관리하는 계좌에서 실행한 매수주문 외에도 아래와 같은 '비정상적인 매수 권유'행위를 통해 증권사 고객, 지인 등으로 하여금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매집 하도록 유도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들은 민 등과 함께 지인 또는 관리 중인 증권사 고객들에게, 자신과 관련된 주변인들이 대규모로 매집을 진행하고 있어 향후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10,000원 내지 20,000원까지 무조건 간다는 식으로 말하는 등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고, ▲ 외제차 A/S 사업 진출, ▲ 미국 '코파트'사와 중고차와 중고부품에 대한 온라인 매매시스템 합작 사업, ▲ 블랙스톤, 오픈하이머 등 해외사모펀드의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투자참여와 같은 도이치모터스 회사 내부에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호재성 정보를 은밀하게 알려주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들과 민 등은 2009. 12. 23.경부터 2012. 1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시세조종 관련 계좌들을 이용하여 총 16,619,628주 (합계 65,488,207,210원)를 자신들이 직접 관리하는 계좌를 이용하여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매집하거나,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매수 권유행위를 통하여 증권사 고객, 지인 등으로 하여금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매집하게 하였다.

#### 라. 결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민 등과 공모하여, ▲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를 하고, ▲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짚 후 매매하는 행위(통정매매),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가장매매),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행위를 하고, ▲ 상장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에 관한 일련의 매매 행위를 하고, ▲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고, ▲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합계 10,666,724,484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 II. 피고인 김 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경 디에스증권에서 근무하던 중 이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 50만주를 증권사 고객 계좌로 매수해주면 도이치모터스 IR 및 투자자섭외비용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성공보수 명목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20만주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2010. 8. 27.경부터 2010. 11. 9.경까지 사이에 합계 5,8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1억 원 이상의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수수를 약속하고, 위 약속에 따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일부인 5,800만원을 수수하였다.



II

개요

I. 피고인들의 주장

- 피고인 이 은 2009. 11. 하순경 권오수로부터 의뢰를 받아 그 때부터 2010. 9.경까지 시세조종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 김 은 ① 이 로부터 수급의뢰를 받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 하기 시작한 사실, ② 그러던 중 권오수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관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사실, ③ 그 후 이 , 민 , 김 , 이 . 손 등과 함께 그 제안을 실행한 사실 등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면서, 주관적으로도 주가조작의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하였다고 자백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이 는 법정에서 김 이 이른바 '시세조종'을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일부 '장내 대량매매'를 하거나 주가 방어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한 사실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권오수, 김 등과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여 실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 이 은 검찰 조사 당시에는 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기술 임직원들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권 유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입장을 바꾸어 김 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우리기술 임직원들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 추천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 김 은 이 에게 김 을 소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 김 은 김 으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추천받아 자신도 주식을 매수하고 고객들에게 추천하였을 뿐이며, 김 이 주가를 관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가담하지도 않았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 한 은 김 으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추천받은 사실이 있을 뿐 시세조종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 손 는 김 의 추천으로 주식을 매수하였을 뿐이고 시세조종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 권오수는 시세조종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 이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일부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물적 증거와 공범들의 진술 등 인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순차공모하여 이 사건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범행이 이루어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 이하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이 있었던 사실 및 이 사건 시세조종의 진행 경과,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시세조종행위를 주도한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이하 각 '피고인' 명칭 생략).

## II. 이 사건 시세조종 개요

### 1 이 사건 시세조종의 특징

- 이 사건 혐의 소명에 앞서, 이 사건은 '단기간 내에 매매차익을 노리고 이상매매 주문을 다량 제출함으로써 주가를 부양하는 방식'의 일반적인 시세조종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작전'이라고 부르는 일반적인 시세조종은 ① 종목선정 및 주식매집 → ② 주가부양 → ③ 차익실현(Exit)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지만,
  - 이 사건은 상장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상장사를 인수한 이후 투자자의 수익 보장 및 신규자금 유치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주가부양 내지 주가관리를 한 사건으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의 자금을 동원하여

은밀하게 이루어진 범행입니다.

- 그리고 구체적으로, ① 주가부양 내지 주가관리의 의도를 가지고 장기간에 걸쳐 주식을 대량매집하고, ② 시세상승기에는 고가매수 또는 물량소진 주문을 제출하여 주가를 더욱 부양시키고, ③ 시세하강기에는 시·종가관여 주문을 통해 주가하락을 저지함으로써 주가를 관리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되었습니다.

## 2 이 사건 시세조종의 진행 경과

- (시세조종의 시기와 종기) 이 이진술, 김 과 민 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호가장 등에 의하면, 이 사건은 권오수가 이 에게 담보제공을 약속하며 시세조종을 의뢰한 2009. 11. 하순경<sup>3)</sup>부터 시작되어,
  - 이 로부터 바통을 이어 받은 김 이 별건 우리기술 사건으로 구속된 2012. 12. 7.경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 (본건 범행의 특징) 본건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단기간 내에 매매차익을 노리고 이상매매 주문을 다량 제출함으로써 주가를 부양하는 방식'의 시세조종과 달리,
  - 시세조종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이상매매주문을 제출함과 동시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매집함으로써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법칙이 아닌, 인위적인 방법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결정 되도록 하여 장기간 주가부양 및 주가하락방지 등의 시세조종을 하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이 주도 범행 경위) 이 이 주도적으로 시세조종을 했던 2009. 12. 23.~2010. 7. 30. 기간의 경우에는 권오수로부터 받은 자금 및 제공받은 계좌 뿐만 아니라 본인이 관리하던 송 , 한 , 최 , 박 , 황 박 최 , 황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 매집함으로써 도이치모터스 주가부양 및 주가하락 방지를 하였습니다.

3) 구체적으로는, 피고인 이 이 시세조종에 동원한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문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된 2009. 12. 23.을 시점으로 특정하였음



- 위 기간 중 이 이 운용한 계좌에서 제출된 호가는 5,887,015주에 이르고, 매수체결된 수량은 3,719,269주에 이르러, 일일 매매거래량의 평균 매수호가 관여율은 10.67%에 이르고, 매수체결관여율은 13.00%에 이릅니다.

기간	구분	매수호가수량	매수체결수량	시세상승금액
09.12.23~10.7.30	이 군(A)	5,887,015주	3,719,269주	12,065원
	전체위탁자(B)	55,190,010주	28,611,604주	152,070원
	관여율(A/B)	10.67%	13.00%	7.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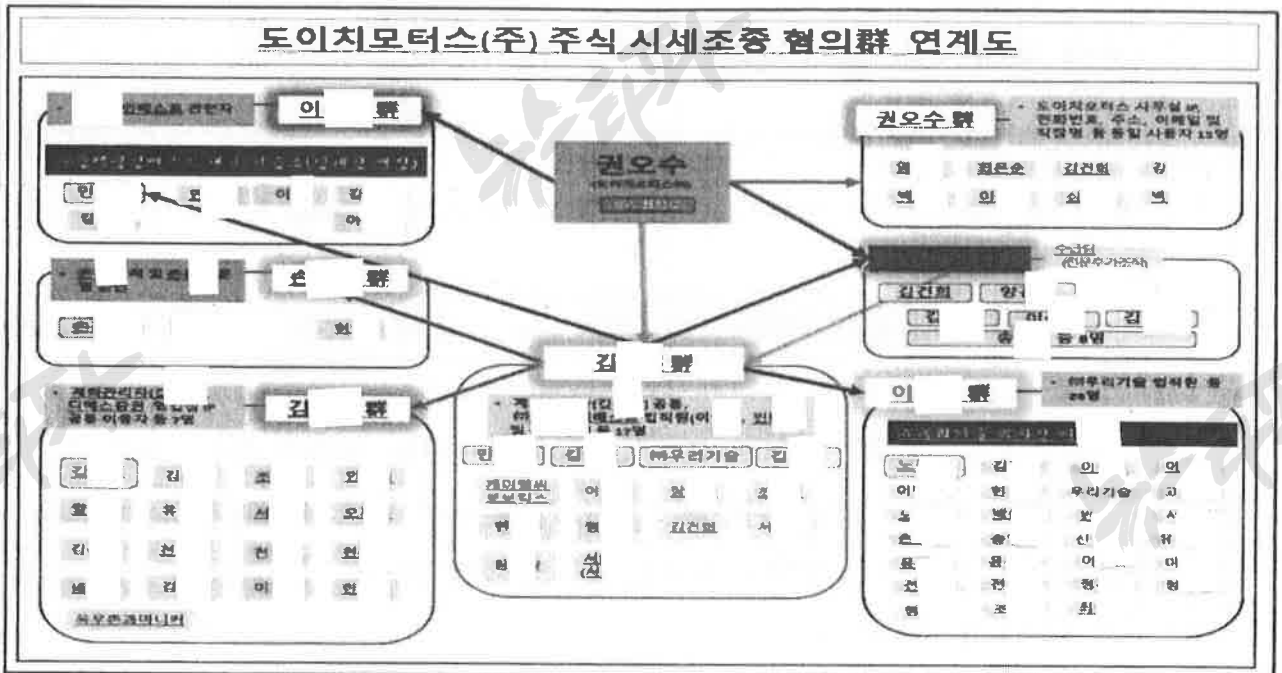
○ (김 주도 범행 경위) 김 은 이 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 수급 의뢰를 받아 주식수급에 나서고, 이후 이 의 소개로 권오수를 만나 권오수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부양 및 주가하락 저지(주가관리)를 의뢰받은 뒤 소위 '부띠끄 투자자문사'를 운영하는 이 (민 ), 증권사 후배인 김 한 , (주)우리기술 부사장인 이 , 대규모 전주인 손 와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집하여 매집세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주가를 부양하거나 주가하락을 저지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피고인들은 ① 주변 지인이나 고객들에게 도이치모터스 내부 호재 정보를 유출하고, 별다른 근거없이 주가가 1만원 내지 2만원까지 상승한다는 식의 비정상적인 매수 유도하여 그들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게끔 하여 매수세를 형성<sup>4)</sup>한 뒤, ② 자신들이 직접 이용하는 계좌를 이용하여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집하면서 동시에 고가매수, 물량소진 등 이상매매 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가부양 및 주가하락 저지를 시도하였던 것입니다.

4) 이러한 비정상적 매수 유도를 통한 매수세 형성이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찰의 견서(25) 인위적인 매수세 형성을 통한 사기적 부정거래 성립에 관한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혐의군 및 시세조종 관련계좌 재특징



○ 거래소 회신결과, 문자메시지 분석결과, 관련자 조사 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은 계좌운용 주체에 따라 <권오수군>, <이영군>, <김영군>, <이영군>, <이영군>, <김영군>, <손영군>의 7개 혐의군으로 재분류 할 수 있으며, 시세조종에 동원된 계좌는 총 91명, 157개 계좌로 확인되었습니다.

### 4 시세조종 관여율 및 시세조종성 주문 분석

○ (관여율의 정의) 판례에서는 '호가관여율'과 '매수관여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노32 자본시장법위반**

① 피고인들은, **호가관여율**(당일 접수 총 매수주문 수량 중에서 피고인 등의 이상 매매 주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매수관여율**(당일 체결된 총 거래수량 중에서 피고인 등이 매수한 주식의 비중을 의미한다) 등 시장지배력을 나타내는 지표에 따르면 이 사건 78개 종목에 관한 피고인 등의 시장지배력이 저조한 수준이거나 일부 종목의 경우 해당 자료가 없어, 피고인 등이 시세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시장지배력을 보유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 호가관여율은 '당일 접수 총 매수주문 수량 중 피고인 등의 이상매매 주문이 차지하는 비중'이고, 매수관여율은 '당일 체결된 총 거래수량 중에서 피고인 등이 매수한 주식의 비중'입니다.

○ **(관여율의 의의)** 판례에서는 관여율의 정도에 따른 시세조종 여부 판단에 대하여, 비율 및 규칙성 등을 그 판단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668, 669 자본시장법위반**

① 먼저, '피고인들이 고가 매수주문 또는 증가관여 매수주문을 1회라도 했던 날(즉, 한화손해보험의 경우 190일, 흥국화재의 경우 161일, 넥센의 경우 131일, 전북은행의 경우 94일, 벽산의 경우 37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위 각 비율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일 평균으로 보아도 상당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장 종료 직전의 시간대로 갈수록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종목	피고인들의 거래량의 비중			피고인들의 매수주문수량의 비중		
	14:50~15:00	14:40~15:00	일 평균	14:50~15:00	14:40~15:00	일 평균
한화손해보험	83.44%	79.85%	26.40%	59.71%	60.60%	14.95%
흥국화재	85.22%	85.50%	40.12%	70.25%	67.20%	25.55%
넥센	88.34%	83.32%	33.43%	65.45%	58.66%	16.35%
전북은행	79.43%	77.04%	33.01%	55.85%	56.33%	17.69%
벽산	96.64%	96.02%	47.54%	87.85%	81.35%	17.31%

② 폭을 더 좁혀 '금융감독원에서 '호가관여율' 산출 기준일로 삼은 날(피고인들이 고가 매수주문 또는 증가관여 매수주문을 했던 날 중에서 그러한 주문이 연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날을 의미한다)'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해당 기간 중 시장 전체 매수주문수량 중 피고인들의 매수주문수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 종목의 1일 평균으로는 최소 8.16%, 최대 11.70% 정도이지만, 피고인들의 고가 매수주문 또는 증가 관여주문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14:40~15:00을 기준으로 하면 최소 43.64%, 최대 57.80%에 이르고, 증가관여 매수주문이 있던 14:50~15:00을 기준으로 하면 최소 32.23%, 최대 59.71%에 이르고 있다.

③ 검사는 위와 같이 금융감독원이 특정한 것에서 범위를 더 좁혀 시세조종 주문에 해당하는 고가 매수주문과 증가관여 매수주문을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주문으로 특

정하였는데, 검사가 피고인들의 시세조종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은 벽산의 경우 14일, 넥센의 경우 55일, 전북은행의 경우 42일, 한화손해보험의 경우 70일, 흥국화재의 경우 53일이고, 변호인이 조사하여 제출한 각 종목별 일별 시장 전체 거래량과 피고인들의 매수량(2013. 7. 23.자 의견서)을 바탕으로 해당 기간 중 시간 전체 거래량 중 피고인들의 매수량이 차지하는 비중, 1일 가격 변동률 평균, 시장관여율 평균을 산출하여 보면, 다음 표와 같은바, 해당 기간 중 피고인들이 시장에 미친 영향은 결코 적지 않다고 할 것이다.

	시장 전체 거래량	피고인들의 매수량	피고인들의 매수량/시장 전체 매수량	1일 가격 변동률 평균	1일 시장관여율 평균
벽산	140,453주	24,170주	10.08%	6.18%	39.69%
넥센	394,922주	187,782주	47.55%	3.75%	36.46%
전북은행	4,055,007주	1,344,140주	33.15%	2.55%	31.49%
한화손해보험	6,859,926주	2,008,880주	29.28%	2.92%	25.27%
흥국화재	9,654,778주	1,871,110주	19.42%	4.16%	22.87%

○ (본건 호가관여율, 체결관여율, 시세상승관여율<sup>5)</sup> 분석) 한편, 위와 같이 본건 시세조종에 동원된 계좌는 총 91명, 157개 계좌로 재특정하고, 위 계좌들의 관여율을 분석한 결과, 관여율이 금융감독원의 시세조종 판단기준인 5%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본 사건에서 전체 시세조종 기간(2009. 12. 23. ~ 2012. 12. 7.)동안 호가관여율, 체결관여율, 시세상승관여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여율	수치(%)
호가관여율	10.92
체결관여율	16.44
시세상승관여율(호가)	26.02
시세상승관여율(체결)	26.22

5) 한국거래소에서 사용하는 '관여율'은 해당 계좌들의 시장지배력을 의미하고, ① 호가관여율은 대상 계좌들이 제출한 호가가 '전체'시장의 호가 '대비' 차지하는 비중, ② 체결관여율은 실제 체결된 주문이 전체 시장에서 체결된 주문 대비 차지하는 비중, ③ 시세상승관여율은 대상 계좌들이 상승시킨 시세상금액이 전체 시장에서 발생한 시세상금액 대비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 한편, 본건 혐의계좌군의 경우, 피고인들이 직접 운용한 계좌(a)와 매수유도 계좌(β)로 나뉩니다.

- 관여율이라 함은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에서 나온 매수 주문이 시장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는가에 대한 지표이고, 매수유도 계좌(β)는 비록 피고인들이 직접 주문을 실행하지 않았으나, 시세조종의 의도를 가진 피고인들이 비정상적인 추천 방법으로 매수유도 계좌(β)주로 하여금 주식을 매입하게 함으로써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대량매집 상태를 형성하는데 상당하게 기여한 계좌입니다.

- 따라서, 위 매수유도 계좌(β)에서 나온 매수주문은 피고인들이 직접 운용한 계좌(a)의 매수주문과 함께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부양하거나 주가하락을 방지하는데 기여를 하였던 바, 관여율 산정에서는 피고인들이 직접 운용한 계좌(a)와 매수유도 계좌(β)에서 나온 주문 전체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한편, 위 관여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두 가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 첫 번째는, 이 사건은 호가관여율보다 체결관여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실제로 주식을 대량매집하여 주가부양하는 방법으로 시세조종을 실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 두 번째는, 호가 또는 체결 시세상승관여율<sup>6)</sup>이 약 26%로 산출되고 있는데, 이는 시장에서 체결가를 상승시킨 주문 4개 중 1개 이상의 주문이 혐의군 계좌에서 나왔다는 의미로, 결국 피고인들이 낸 주문이 시세상승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입니다.

○ **(이상매매주문 관여율 분석)** 본 사건에서 전체 시세조종 기간(2009. 12. 23. ~ 2012. 12. 7.)동안 이상매매주문 관여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6) 시세상승관여율은 직전체결가보다 높은 호가로 주문을 내고 그 이후 직전체결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체결된 주문의 비중에 관한 자료임

관여율	수치(%)
이상매매주문관여율(호가)	3.6
이상매매주문관여율(체결)	7.2

- 이상매매주문관여율은 주가조작 의도가 내포된 주문을 기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관여율은 피고인들이 직접 운용한 계좌(a)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위 이상매매주문관여율을 보면 <호가>기준일 때 3.6%이고, <체결>기준일 때 7.2%가 되는데, 이는 본건 시세조종의 경우 이상호가를 남발하여 시장참여자들의 매수를 유인함으로써 주가를 부양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상매매주문을 통해 <대량으로> 주식을 매집함으로써 주가를 부양하는 방식의 시세조종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 ⑤ 소결

- 위와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종합해 볼 때, 2009. 12. 23.경부터 2012. 12. 7.경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하여 이상매매주문을 제출함과 동시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매집함으로써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법칙이 아닌, 인위적인 방법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결정되도록 한 사실이 있었음이 확인된다고 할 것입니다.

### III. 시세조종의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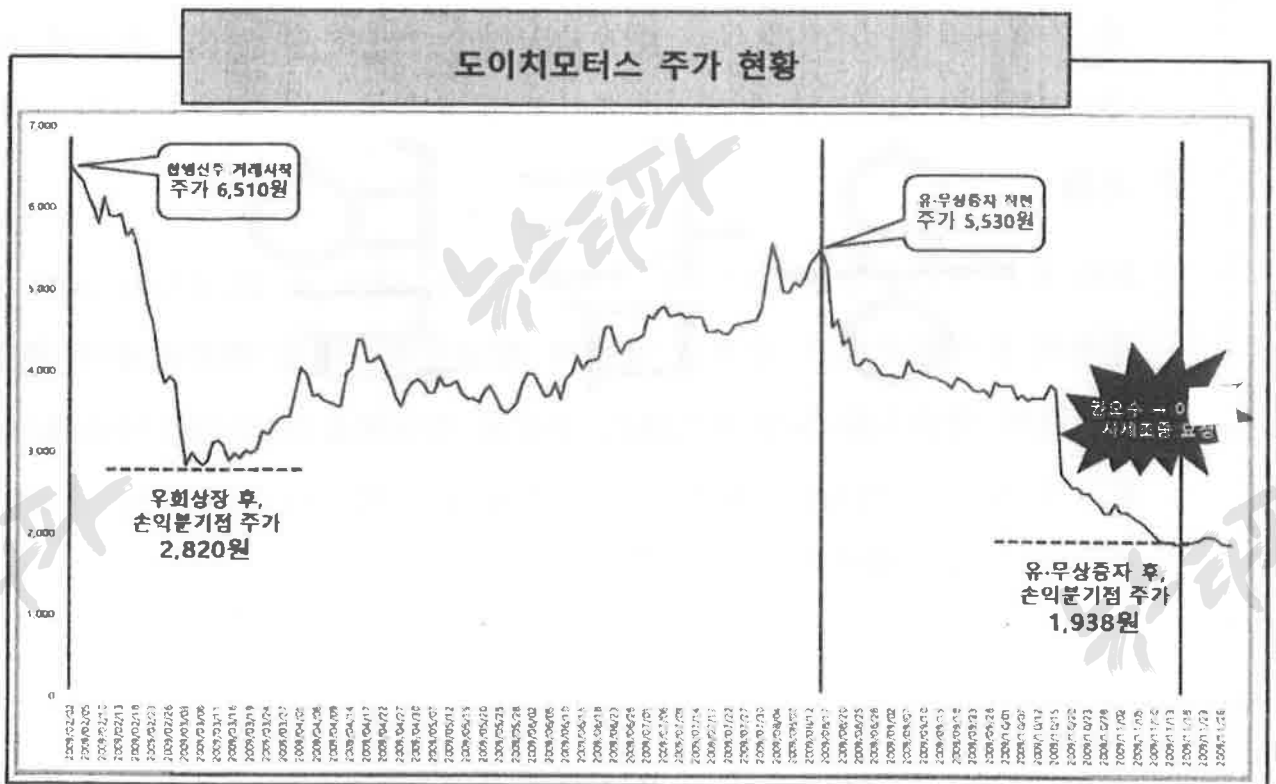
#### ① 권오수, 이 주도 범행 동기(2009. 12. ~ 2010. 7.)

- (유상증자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보장) 도이치모터스는 다르엔코 대주주들로부터 약 290만 주를 145억 원에 취득하여 다르엔코 대주주 지위를 확보하였는데, 위 자금의 출처는 40억 원의 자기자금과 105억 원의 차입금입니다.

- 우회상장 전 도이치모터스는 2007. 12. 28.경 유상증자(10만주 추가 발행, 1주

당 50,000원)를 실시하여 50억 원의 자기자금을 마련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권오수가 투자자들에게 일정 이익을 이상의 수익보장을 약속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상장 후 주가 폭락)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2009. 2. 2. 우회상장 후 첫 거래일에 6,510원을 기록한 주가는 대략 한 달 만인 2009. 3. 6. 손익분기점 주가인 2,820원까지 하락하였고, 2009. 8. 17. 유·무상증자로 5,530원까지 오른 주가는 약 3개월만인 2009. 11. 17. 1,915원까지 하락하였는바, 투자자들에게 수익보장을 약속하였던 권오수로서는 인위적인 방법으로라도 주가를 부양한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그 상황에서 권오수가 시세조종꾼으로 소개받은 이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부양을 의뢰하게 된 것은 필연적인 과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 유명 주식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며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던 이이 권오수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차연스러운 수순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7) [자세한 내용은 '2022. 3. 21.자 경찰의견서(9) 피고인 권오수의 시세조종 동기' 참조].

○ 이와 관련하여 권오수가 2009. 12. 김      등 초기 투자자에게 주식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며 이      을 소개하기도 하였는데, 당시는 김      등 초기 투자자들의 손익분기점 이하로 주가가 하락한 시점으로, 권오수가 초기 투자자에게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않았다면 이      을 소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 즉, 권오수는 위 김      등과 단순한 주주나, 투자자의 관계가 아니라 도이치모터를 운영하고 주가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권오수는 이      등 시세조종 세력을 동원하여서라도 도이치모터스 주가부양을 시도할 유인이 충분히 있었고, 이      은 권오수의 자금력과 담보로 제공받을 주식을 이용하여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을 실행하여 이익을 취득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 ② 권오수, 김      주도 범행기간 동기(2010. 8. ~ 2012. 12.)

### 1. 기존 투자자들의 EXIT 및 수익보장

○ 권오수는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보장 약속 이행을 위해 2009.말경 이      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였으나 실제로는 주가 부양이 잘 되지 않자,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보장 및 EXIT를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이      로부터 소개받은 증권사 임원인 김      에게 재차 도이치모터스 주가부양을 의뢰하였습니다.

○ 실제로, 2010. 10. 19.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2,880원이었던 상황에서 김      이 권오수에게 3,500원에 주변 주식을 매수하여 주겠다고 제안하고, 이에 권오수가 김      , 김건희의 물량을 김      에게 매도하였던 사실이 확인됩니다.

○ 이와 같은 사실은 2009. 4. 1.부터 2011. 12. 30.까지를 심리대상기간으로 하는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심리분석 결과에서도, 2010. 10. 8.부터 2011. 1. 13.까지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집중 매도한 사실로도 확인되며, 그 과정에서 김      는 10억 원 상당, 김건희와 최은순은 2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기록 92, 120쪽, 한국거래소 이상거래심리분석 결과 보고

[ 김건희 총 3인의 매매차익 현황 ]

(단위 : 원)

계좌명	실현차익	미실현차익*	총차익
김건희	1,311,485,783	78,542,307	1,390,028,090
윤	1,098,060,256	124,589	1,098,184,845
최은순	824,873,743	76,475,452	901,349,195
합계	3,234,419,782	155,142,348	3,389,562,130

\* 보유잔량에 심리대상기간 말일 종가('11.12.29 6,100원)를 적용하여 산정

기록 92, 120쪽, 한국거래소 이상거래심리분석 결과 보고

- 또한, 심리대상기간 중 218,085주를 979,947,975원(주당 4,493원)에 매수 했으며, 644,897주를 3,356,668,435원(주당 5,205원)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1,038,038,365원의 매매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추정됨

[ 김 건희의 매매차익 현황 ]

(단위 : 주, 원)

매수				매도			
구분	주식수	단가	금액	구분	주식수	단가	금액
기 보유수량**	174,833	3,745	654,749,585	장내매도	644,897	5,205	3,356,668,435
유상통자	1,126	2,885	3,248,510	출고**	12,000	2,438	29,256,000
무상통자	7,853	-	-				
입고**	255,000	2,784	709,940,000				
장내매수	218,085	4,493	979,947,975				
합계	656,897	3,574	2,347,896,070	합계	656,897	5,154	3,385,924,435
매매차익**			1,038,038,365	실현차익 미실현 평가익			1,038,038,365 0

주1) 기 보유수량의 취득가액은 심리대상기간 초일의 전일 종가('09.03.31 3,745원)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

주2) 입고금액은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입고단가를 기준으로 산정(250,000주×2,791원, 5,000주×2,438원)

주3) 출고금액은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출고단가를 기준으로 산정(12,000주×2,438원)

주4) 제반 수수료 미반영

- 또한 대주주인 정 의 200,000주도 권오수의 지인인 이 이 매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당시 매수 자금 중 3억 원은 권오수로부터 받은 자금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권오수가 정 에게도 EXIT 기회를 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정 또한 25억 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 심리분석결과에 의하면, 위 이 또한 25억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기록 97쪽, 한국거래소 이상거래심리분석 결과 보고

(3) 정 계좌 분석

□ 분석대상계좌

회명	지점	계좌번호	계좌명	통목번호
미래에셋대우	성서WM		정	
삼성증권	입산WM		정	

○ (주)두창섬유로부터 '09.09.07 300,000주를 1,060,800,000원에 불특정도로 매수한 정 19은 '11.02.22 이에게 직전가 대비 950원 낮은 가격에 200,000주를 불특정도로 매도(1,082,000,000원)하였음

- 이 은 동사 대표이사 권오수와 입출금 거래가 확인된 자임

[ 정 의 불특정 매도 현황 ]

(단위 : 주, 원)

일자	매도		매수		체결 수량	체결 가격	직전가 대비
	계좌번호	성명	계좌번호	성명			
2011-02-22	삼성증권 입산WM	정	신한투자 신한PWM입구정센터	이	200,000	5,410	-950

○ 정 은 심리대상기간 중 300,000주를 1,060,800,000원에 매수하고 257,890주를 1,335,330,230원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됨

- 심리대상기간 말일 기준 502,454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2,524,981,065원의 매매차익(실현차익 699,268,257원)을 기록하였음



**기록 97쪽, 한국거래소 이상거래심리분석 결과 보고**

- 이 은 심리대상기간 초일부터 NH투자증권 계좌에 73,1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이후 '09.10.29 및 '09.11.09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로 각각 8,412주(유상증자 납입금액 24,268,620원, 주당 2,885원)와 52,456주를 입고 받음
- 또한, 심리대상기간 중 심 20(이 과 이메일 및 주소지 동일) 계좌와 1,425,388주를 5,691,929,125원(주당 3,993원)에 매수했으며, 930,056주를 4,694,807,075원(주당 5,048원)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됨
- 심리대상기간 말일 현재 629,3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2,543,579,830원(실현차익 1,122,181,148원)의 매매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추정됨

**[ 이 및 심 매매차익 현황 ]**

(단위 : 주, 원)

매수				매도			
구분	주식수	단가	금액	구분	주식수	단가	금액
기 보유수량 <sup>주1)</sup>	73,100	3,745	273,759,500	장내매도	930,056	5,048	4,694,807,075
유상증자	8,412	2,885	24,268,620	보유장량 <sup>주2)</sup>	629,300	6,100	3,838,730,000
무상증자	52,456	-	-				
장내매수	1,425,388	3,993	5,691,929,125				
<b>합계</b>	<b>1,559,356</b>	<b>3,941</b>	<b>5,989,967,245</b>	<b>합계</b>	<b>1,559,356</b>	<b>5,472</b>	<b>8,533,537,075</b>
<b>매매차익<sup>주3)</sup></b>			<b>2,543,579,830</b>	<b>실현차익</b>			<b>1,122,181,148</b>
				<b>미실현 평가익</b>			<b>1,421,398,682</b>

주1) 취득가액 확인 불가로 심리대상기간 초일의 전일 종가('09.03.31 3,745원)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  
 주2) 잔량 629,300주에 대한 평가금액은 심리대상기간 말일 종가 6,100원('11.12.29 종가)을 적용  
 주3) 제반 수수료 미반영

- 이와 관련하여 김 은 당시 권오수 측의 물량이 계속 나오는 바람에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바 있고, 한국거래소의 심리분석 결과나 김 전희, 김 , 이 등 권오수의 지인들의 주식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김 의 진술이 상당히 일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결국 2010. 10. 당시 권오수는 김 세계 시세조종을 의뢰한 상황에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과 EXIT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1차적인 자신의 목적을 이루었

던 것으로 보입니다.

○ 한편, 김 은 권오수의 자금력과 최대주주 지위를 이용하여 도이치모터스 주가부양을 성공적으로 마쳐 시세차익을 얻는 동시에, 그 대가로 도이치모터스로부터 투자를 받아 자신의 금융사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와 같은 김 의 동기는 수사기관에서 범정에 이르기까지 김 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 위와 같이 권오수, 김 은 시세조종을 통한 주가부양이라는 목표는 일치하였지만 서로 추구하였던 내심의 동기와 목적은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 이 차이점은 2011. 12.경 BW를 발행하여 250억 원의 자금을 유치한 이후, 권오수가 김 의 요청에 소극적으로 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 2. 도이치모터스 사업 과정에서의 주가부양 필요성

○ 권오수, 김 은 당시 도이치모터스가 진행 중이던 사업다각화, 해외 사모펀드 투자유치 등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부양이 선결되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권오수, 김 등은 그와 같은 사업 내용을 거꾸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부양의 재료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도이치모터스는 중고차 A/S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2010. 10.경 자동차 수리(A/S) 업체인 도이치베엠버모터스와의 합병을 결의하였고, 중고차 및 부품 온라인 판매사업 등에 진출하기 위해 2010. 12.경 중고차 및 부품 판매중개 관련 미국 내 1위 업체(코파트)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블랙스톤, 오픈하이머 등 해외 사모펀드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였는바, 이때 투자유치 성공 또는 보다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높은 주가 혹은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주가 추이가 필수적이었던 것입니다.

○ 실제로 권오수, 김 등의 수급세력 동원 등에 의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는 2011. 3. 31.경 7,980원, 2011. 4. 18. 7,680원까지 상승하였으나, 그 이후 '코파

트'와의 협업 및 해외 사모펀드 유치가 계속 지연되면서 실망해도 물량이 증가하여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2011. 10.경 지속적인 주가하락으로 인해 해외 사모펀드 유치가 더 이상 어렵게 되자, 권오수, 김 등은 국내 금융기관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사업 자금을 유치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2012. 12. 19.경 산업은행에 250억 원 상당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 그런데,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산업은행의 입장에서 250억 원의 거액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의 추이를 살피지 않을 수 없었고, 특히 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한다는 확신이 들어야 투자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권오수, 김 은 지속적인 시세조종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 한편, 위와 같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위해 인위적으로 부양하였던 주가는 2011. 12. 19.경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이후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권오수는 2012. 4. 30.부터 2012. 12. 31.까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 재매입한 15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 전부를 매도하였으며, 그 중 상당 부분을 주변 지인들에게 매도한 상황이었는데, 당시 권오수, 김 , 이 등이 수급세력을 동원하면서 위 신주인수권 매매를 대가로 하였던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 그런데, 당시 주가 추이와 신주인수권의 리픽싱 된 행사가격을 대비해보면 행사가격이 당시 주가를 조금 넘거나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여기에 신주인수권 매수 가액을 더하면 오히려 신주인수권 매수자들이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것보다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상당하였기 때문에 권오수, 김 등의 입장에서는 신주인수권 매수인들의 이익 보장 및 반대매매 방지를 위해 주가하락을 적극적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었고, 이러한 상황은 압수된 김 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착발	이름	날짜	내용
수신	이 오 부사장님	2012-05-21 PM 02:06:56	오늘도 4500원이면 반대매매 입니다
수신	김	2012-05-21 PM 02:49:46	금요일 현부장이 증가관리 했으니 오늘은 영이 해요아님 여기저기 반대매매 다 터져나오겠어요
수신	이 세 사장님	2012-05-21 PM 03:51:31	내일은 시초부터 주가 프라스될까요 오늘보다 최소 증가가 7%이상되어 반대 매매안나
수신	이 오 부사장님	2012-06-04 PM 03:30:03	증가관리도 없고 시장관심도없고 DGB형 뭐한다고 주가 영향있을까요? 어련식으로 늘어지면 들어오기로 한 기관 다 떠날것같은데요 저희 오늘도 반대 매매이슈 때문에 많이 샀습니다 무작정 근거없이 된다 고만 하지대시고 정확한 얘기를 주셔서 이렇기 한번도 예상대로 되는게 없나요? 바도 회신 부탁드립니다 재가 감남으로 갈까요?
수신	이 서	2012-08-16 PM 03:02:57	3950원에 내놓는데 매도가 안 되었네 물 줄 받았는데 내일 반대매매라 나가서
발신	김	2012-10-22 PM 03:02:35	준국연 반대 맞고
수신	이 멘 멘 3차 16본부장	2012-11-16 PM 12:15:58	한번 반대 맞고 또 헌컨데 TTT 그놈의 연결은 언제 오나고요 영남 거드랑이에서 날게 듣는거 좀 씩씩하다. 좀
수신	김	2012-11-27 PM 02:15:17	이대로 끝나면 내일어침 하한가반대매매 심언주이상 나오겠네요 그럼 연쇄적으로 물량 쏟아질텐데
수신	김	2012-04-30 PM 07:48:08	상무님수요명장시작하기전까지만 고객확인서1부고보증권확인서1부꼭가지고오셔야반대매매취소됩니다꼭가지고 오세요~~

○ 이 김, 이, 손 등 나머지 피고인들 또한 본건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권오수, 김 이 주도한 위와 같은 주가부양 과정에 적극 가담하여 직접 매수세를 동원하고, 통정거래 등에 협조하였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 3 소 결

○ 이상과 같이 피고인들의 시세조종 동기가 본건 범행기간 전반에 걸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각 시점마다 본건 주요 피고인들(이, 김 등)이 깊이 개입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하에서 각 단계별로 피고인들의 관여 경위 및 주요 시세조종 주문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다음 장에서 각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공모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III 구체적 시세조종 범행 경과

#### I. 권오수, 이 [ ] 의 범행

##### 1] 권오수의 0. [ ] 에 대한 시세조종 의뢰

○ 이 [ ] 은 검찰에서<sup>8)</sup>, 권오수가 '대구에 있는 슈퍼개미인 가로수 사장(정 [ ])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지니 압박이 들어온다. 그리고 AK펀드가 회계열람 신청까지 하면서 압박하고 있어서 힘들다', '최대한 맞춰 줄테니. 정 안되면 2010. 2.경에 보호예수가 풀리면 주식 100만주를 담보로 줄게'라고 말하였다면서,

- 권오수로부터 시세조종을 의뢰 받을 당시 상황에 대해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 또한, 이 [ ] 은 위와 같은 권오수의 의뢰를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전 [ ] . 전 [ ] 등에게 권오수로부터 받은 담보제공 약정을 근거로 재차 손실보장 약정을 하면서 수급을 의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 뿐만 아니라, 2010. 1.경 권오수로부터 소개받은 양 [ ] 김건희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거나 대량매집을 한 사실 역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이 [ ] 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도 검찰에서의 진술과 대부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 다만, 권오수로부터 받은 자금에 대해서는 '주가를 올리는데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고 '주식을 사는데 필요하다'고 말한 정도라고 진술을 반복하였으나, 이는 대가 수수로 인하여 중한 처벌을 받은 것을 염려한 것에 불과합니다.

8) 구체적인 내용은 2021. 9. 13.자 수사보고【피의자 이 [ ] 면담보고 및 진료 확인서 등 첨부】 및 2021. 9. 23.자 이 [ ]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등 참조

1. 권오수와 이 [ ] 의 주식매매 예약계약

○ 이 [ ] 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매도인을 권오수, 매수인을 이 [ ] 로 하는 2010. 6. 23.자 주식매매 예약계약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1개월 이내 5억 원의 보증금만 지급하면 80만 주를 5,000원에 매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 이 [ ] 또한 당시 주가를 7,000원까지 끌어 올릴 자신이 있어서 위 매매 예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 위 예약계약서는 이 [ ] 에게 주가 부양을 위한 강력한 동기부여를 주는 처분 문서로써 권오수가 이 [ ] 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주식매매 예약계약

권오수(‘매도인’)과 이 [ ] (‘매수인’)은 2010. 6. 23.자로 다음과 같이 ‘매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도어지모터스 주식회사(‘대상회사’) 발행주식 중 일부에 대한 주식매매 예약계약(‘본 계약’)을 체결한다. 이하 ‘매도인’과 ‘매수인’을 합하여 ‘당사자들’, 각각 ‘당사자’라 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에서 정한 조건과 내용에 따라, ‘매도인’은 소유하고 있는 ‘대상회사’ 발행 보통주식 중 일부를 ‘매수인’에게 양도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이를 양수한다.

제2조 [매매 대상 및 대금]

‘본 계약’에 따른 매매 대상 주식은 ‘매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상회사’ 발행 보통주식 환심안(800,000)주(‘대상주식’)로 하고, 매매 대금은 주당 금 오천(5,000)원을 기준으로 총 금 사십억(4,000,000,000)원(‘매매대금’)으로 한다. ‘매수인’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 계약’의 체결과 상관없이 ‘매매대금’ 중 금 오억(500,000,000)원을 ‘매도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계약보증금(‘계약보증금’) 명목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권오수는 위 예약계약서에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다면서 자신은 계약서에 막도장을 쓰지 않는다며 위 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 하였으나,

- 권오수가 직접 검찰에 제출한 신주인수권 매매계약서에도 위 매매예약 계

약서에 날인된 인장과 동일한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예약계약서는 위조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이삼과 같이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예약인: 권 오 수 (580302-1)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약인: 이 (690128-1)  
경기도 용인시

(2) "갑"의 전술 또는 보장이 허위이거나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 "갑"은 이로 인하여 "을"이 입게 되는 모든 손해(소송을 위한 일체의 변호사 비용 포함)를 배상하고 "을"이 연대책임하여야 한다.

제 5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에 따른 당사자간의 분쟁이 소송으로 다루어지는 경우에는 본 계약 체결일 현재 "을"의 주소지(아래 서명장에 기재된 바에 따른)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외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한다.

계약 당사자간에 이삼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2012년 11월 18일

"갑" : 양도인 : 권 오 수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을" : 양수인 : 김 권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885-3 아르토비스타 B동 1704호

2. 이 이 제출한 전화통화 녹취록

○ 한편, 이 은 권오수와의 전화통화 녹취록<sup>9)</sup>도 제출하였는데, 위 녹취록에 의하면 당시 권오수가 이 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한 이후 그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은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됩니다<sup>10)</sup>.

9) 구체적인 내용은 2021. 9. 27.자 수사보고【피의자 , '녹취내용 속기록' 등 임의제출】 참조



ㄱ 다른 거는 제가 알잖 안 드리고요, 아나씩 알 테니까요. 내일 7월 19일만  
 요파로 들어오는 것만 꼭실이 ... 아고요.  
 ㄴ 100%.  
 ㄱ 그리고 제가 오늘도 지금 여의도 갔다 왔거든요. 그 애들 만나고 왔는데,  
 저희가 내일 그~ 보세요, 그냥. 내일부터, 이,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아실  
 거예요. 그냥 보시고 얘기하시자고요. 괜이 제가 뭐 설블리 애 가지고 얼마  
 이렇게 얘기 안 할 테니까.  
일단 1자로 내일 2,900원까지 찍어놓으라고 얘기했거든요.  
 ㄴ 응.

○ 또한, 위 녹취록에 의하면, 권오수가 이 에게 코파트와의 업무협약 등 내  
 부정보를 제공하여 시세조종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사실 역시 인정되는바,

ㄱ 이거 지금 요파로 거는 7월 19일날 온다고 했잖아요.  
 ㄴ 응응.  
 ㄱ 그 IR 그 지금 기간 두 명을 내일 내보낼 거거든요. 외국계 기관 두 명이  
 나가고, 리포트를 만들 거예요.  
 ㄴ 응응.

- 권오수가 이 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지 않았다면, 권오수가 이 에게  
 위와 같은 내부정보를 알려주거나, 시세조종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을 아  
 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ㄱ 예예. 그리고 그~ 제가 좀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않고, 그 2시 이후부터는  
 계속 떨 거거든요. 근데 왜 제가 자꾸만 그~ 민감하게 그러냐 이었요, 어  
 저때로 2,600, 2,700 안 10원까지 고정 되는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올랑  
 이 약 2안두씩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쭙보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 어나  
 면 그거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ㄴ 그것은 내가 기록처럼게. 내 주위에는 ... 사람이 하나도 없다.  
 예예.  
 ㄱ 너 알잖아. 양 가 ... 임 ...  
 예예.  
 ㄱ 김... 내가 컨트롤아잖아.  
 예예.  
 ㄱ 그 김...이는 내가 컨트롤이고, 김... 내가 이나 그쪽에 있거든.  
 예예.  
 ㄱ 그거 있어. ... 이야기이잖아. 원가가 4,000원이라고  
 예예.  
 ㄱ 양...이라고 오순기는 2,900원이라고 3,000원에 싹잖아.  
 예.  
 ...  
 예.  
 ...  
 예 씨도 마찮가지고.  
 ㄴ 정 이는 내나 ... 나중에 내가 만나러 갈 건데, 내가 무슨 뭐 처리할게.  
그리고 그 사람은 말 뱌으면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 없  
고.  
 ㄱ 예. 그렇죠.

10) 녹취록 상. <ㄱ=이 >, <ㄴ= 권오수>임

### 3. 임 작성 사실확인서

○ 나아가, 권오수의 소개로 이에게 계좌를 위탁한 양가 작성한 2011. 4. 1.자 사실확인진술서에 의하더라도, 권오수가 임계좌를 이용해서 시세 조종을 통해 얻은 수익의 30%를 이에게 주기로 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2010년 1월 22일에 권오수 대표가 저를 만나, 삼성 프로그래밍 5층 커피숍에 가했습니다. 이이란 사람이 있는데, 주식을 맡기면, 잘 관리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대표에게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20억을 맡기면, 한달에 7억을 받는 시이 있을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고, 수수료도 이대표가 50:50으로 하는 것을 70:30으로 주주 입장에서 적었으니, 만나 보자고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상장주주인 김대표도 나와 있었습니다. 이대표가 약정서를 내밀기에, 제가 "형(권대표여름), 약정서를 사야 해?" 하니 권오수 대표는 "아니야, 약정서를 쓰고 싶지 않으면 쓰지마.. 내 모든것을 책임질게"라고 했습니다. 권대표가 며칠후 제 사무실로 와서, 계좌제어용으로 있고, 운용은 이대표가 하는거라면서, HTS, 보안카드를 주어도 되지만, 증권카드, 도장을 본인이 꼭 갖고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 그리고, 양는 법정에서 당시 권오수에게 화가 나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수익의 30%를 주기로 한 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정하였으며,

- 이이 당시 약정서를 작성해 간 사실, 권오수가 중간에 수수료율을 조정한 사실, 당시 증권사에서 경고 전화가 왔던 사실 등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 사실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 4. 이 작성 자필진술서

○ 이 사건 수사의 시발점이 된 이이 작성한 자필 진술서11)에는, 권오수가 2009. 11.경 이에게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을 의뢰하여 이를 실행하였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 이은 검찰조사에서 권오수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달라고 하였고, 손실을 볼 것에 대비하여 권오수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11) 구체적인 내용은 증거목록 순번 170번 수사보고【이작성 진술서의 신빙성에 대한 재검토】 참조

하였다', '권오수 역시 거래량이 적어 조금만 매수하여도 주가가 쉽게 오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단순히 매수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주가조작을 부탁한 것'이라며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5. 권오수로부터 주가조작 자금 수령

- 영장에 의한 계좌추적 결과에 의하면, ① 권오수는 2009. 12. 21. 4억 원을 대채출금 하였고, ② 두창섬유(도이치아우토)는 2009. 12. 31. 1억 5,000만 원을 대채출금 하였으며, ③ 두창섬유(도이치아우토)가 다시 2010. 1. 29. 2억 원을 '이 (권 '에게 송금하였는데,

통합계좌 거래내역 중 일부														
연월일	종목명	종목번호	계좌일지	거래시각	거래유형	거래내용	종목	종목명	입금액	출금액	거래금액	잔액	상대계좌주	상대계좌번호
2009-12-21	권오수		10:16:15		일부대출	출금			400,000,000		400,000,000	140,443,728		
2009-12-31	주식회사도이치아우토		14:08:42		현금회출금	대출자금			150,000,000		150,000,000	1,713,543,694		
2010-01-29	주식회사도이치아우토		14:27:47		현금회출금	인턴액	기업이	권	200,000,000		200,000,000	332,560,698	이성	

- 이 은 이 이 사용하던 가명이고, 이 이 '당시 여자친구였던 권 명의 계좌를 차명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2010. 1. 29.자 2억 원(③번)은 권오수가 이 에게 송금한 것이 명백하며,

2021. 2. 23.자 이 진술조서 중 일부

문 그 후 권오수와 진술인은 자주 만남을 가졌었나요

답 위와 같이 알게 된 인연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정 이 권오수 등과 만남을 가졌었고,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 얘기나 주변 일들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권오수는 그 당시 저희들에게 "회사는 점점 좋아지는데 주가는 그에 비해서 낮다. 그러니 사두면 괜찮을 것이다"라는 말을 가끔 했었으나,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지는 않았는데 당시 저는 권오수의 말을 듣고 차명으로 가지고 있던 지인 권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해서 2~3억 원 정도를 도이치모터스에 투자하였습니다.

(중간 생략)

문 권 명의 계좌는 어떻게 구해서 사용한 것인가요

답 권 ≡ 제가 이혼(2005.경부터 ~ 2011경까지)했을 때 잠시 만났던 여자친구였습니다.

- 권오수가 참고인 조사 당시 '이 에게 모 회사 전환사채 투자 명목으로, 개인 명의로 4억 원, 두창섬유 명의로 3억 5,000만원을 투자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2009. 12. 21.자 4억 원 대체출금(①번) 및 2009. 12. 31.자 1억 5,000만원을 대체출금(②번) 역시 권오수가 이 에게 송금한 금원임이 확실해 보입니다.

○ 이에 대해 권오수는 위 금원이 모 회사 전환사채 투자 명목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권오수와 이 모두 위 모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명확하게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 2009. 12. 31. 공정증서 작성 당시 총 7억 5,000만원을 투자하였음에도 대체출금 한 내역은 제외하고 두창섬유를 통해 계좌이체 한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만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등 모 회사 전환사채에 투자하였다는 권오수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 오히려 권오수가 이 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담보제공과 관련한 공시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권오수가 주식 담보 제공 대신 금전으로 그 대가 내지 자금을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합니다.

○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이 은, 위와 같이 권오수, 이 , 오 등으로부터 받은 약 12억 원 중 대부분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 평소 권오수에게 주가조작 대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자주한 점, 전환사채 투자 이후 CB 등을 전혀 요구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권오수 역시 이를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습니다.

2021. 9. 8.자 이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일부

문 피의자는 권오수 등에게 전환사채에 투자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지만, 권

오수 등으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 부탁을 받은 이후 2009. 12.경 기존 주  
 주인 권오수, 이 , 오 등으로부터 함께 12억 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 받아  
 도이치모터스 주식 집중하기로 이야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 어떤가요

답 제가 전환사채라고 이야기 했던 것은 맞는데, 권오수도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피의자가 거짓말을 하였는데 암묵적 동의라는 말은 또 무슨 의미인가요

답 제가 그 전부터 권오수에게 주식을 사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여러 번 했었는  
 데 돈을 주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전환사채 투자금을 한다는 것은 주식 매수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피의자의 진술은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어떤가요

답 무엇보다 그 때 당시 전환사채에 투자한다고 하였는데, 권오수가 저에게 바로 CB  
 를 달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권오수도 제가 그 돈을 도이치모터스 주식  
 을 사는데 사용한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② 권오수와 이 의 시세조종 실행

### 1. 이 군 운용계좌 및 개요

○ 이 群은 6개 群 중 매수 거래대금 규모가 가장 큰 군으로서, 2009. 12. 23.  
 ~ 2012. 12. 7. 기간 중 총 거래대금 411,149,442,850원 중 3.2% 규모에 해당하  
 는 13,107,144,060원의 매수 거래를 수행하였습니다.

- 대부분의 매수거래는 2009. 12. 23. ~ 2010. 09. 20. 기간(1단계 구간)에서 수행  
 하였는데, 동 기간 중 이 群은 총 거래대금 105,420,002,025원 중 12.1% 규  
 모에 달하는 12,763,554,920원의 매수 거래를 수행하였습니다.

○ 이 群의 이상매매 주문 비중 또한 높은 수치로 확인되는데, 총 매수 호가  
 건수 4,588건 중 2,631건(57.3%), 총 매수 체결건수 2,950건 중 2,064건(70%)가  
 이상매매 주문(가장통정 제외)에 해당됩니다.

### 2. 양 매도 물량 통정거래 사례 : 2010. 5. 20. ~ 5. 24.

○ 이 은 검찰조사에서 양 물량 매도시 주가 하락을 우려하여, 통정거래  
 를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2021. 9. 23.자 이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문 양 물량 매도 당시 매수자 송 등 8명 관련해서, 당시 누구한테 부탁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한 명을 소개 받아서 양 물량을 받아달라고 한 적은 있다고 하였는데 맞는가요

답 네, 맞습니다.

문 그리고, 당시 소개를 받아서 밥을 먹고 술을 먹었는데, 그 사람이 허풍이 좀 센 것 같아서 마담에게 가게 차로 집에 데려다 주고 어디에 사는지 확인을 해 보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지금 기억으로는 남한산성 쪽에 살았던 것 같다고 하였는데 맞는가요

문 네, 사실입니다.

문 나아가 양 물량이 상당하여 거래 타이밍을 서로 정했을 것 같다는 검사의 질문에, 직접 거래타이밍을 정한 것은 아니고 저는 애플증권에 맡겨 놓았으니 증권사와 이야기해서 거래를 하도록 했다고 하였는데 맞는가요

문 당시에는 그렇게 진술을 했는데,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 제가 직접 타이밍을 정한 것 같습니다.

문 어떤 방식으로 타이밍을 정했는가요

문 제가 만났던 사람에게 특정 날짜에 물건을 내 놓을 테니 사라고 하였습니다.

문 시간까지 지정을 했었는가요

문 시간을 정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 양 물량을 시장에서 매도하지 않고 위 사람에게 매수해 달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문 시장에서 그냥 매도를 하면 주식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거래량이 적어서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 위 진술에서 언급된 이 이 사용한 송 외 8명의 계좌에서 최초 발견되는 거래일자가 2010. 5. 19. 임을 고려해 보았을 때, 양 가 5월 이후 매도한 물량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 외 8명의 최초 거래일자

성명	박	백	송	최	최	천	황	황
최초거래일	2010-05-20	2010-05-19	2010-05-19	2010-05-27	2010-05-19	2010-05-20	2010-05-20	2010-07-06

양 2010. 4. 29. ~ 5. 24. 거래 통계

일자	구분	대신증권 남대문지점	메리츠 프라임센터	메리츠 프라임센터	메리츠 프라임센터
2010-04-29	매도거래		㉞ -258,513		
2010-04-29	입출고거래		-147,682		147,682
2010-05-04	매도거래				㉚ -147,682
2010-05-20	매도거래		㉟ -259,457	-25,898	
2010-05-24	매도거래			㉜ -106,216	

- 실제 한국거래소 기준 가장통정 이상매매 적출 내역 상, 2010. 5. 20. 및 2010. 5. 24. 양 매도 물량 총 365,673주 중 89,712주(25%)는 송 및 한 와의 거래임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이 이 양 물량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통정거래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양 2010. 4. 29. ~ 5. 24. 매도 물량에 대한 통정거래 통계

성명	구분	2010-04-29	2010-05-20	2010-05-24	총합계
김	통정 체결 건수	9			9
	통정 체결량	20,000			20,000
김	통정 체결 건수	18			18
	통정 체결량	16,532			16,532
송	통정 체결 건수		36		36
	통정 체결량		72,292		72,292
이	통정 체결 건수	6			6
	통정 체결량	17,799			17,799
이	통정 체결 건수	1			1
	통정 체결량	100			100
현	통정 체결 건수		13	3	16
	통정 체결량		15,773	1,152	16,925
총합	통정 체결 건수	34	49	3	86
	통정 체결량	54,431	88,065	1,152	143,648

양 2010. 5. 20. ~ 5. 24. 기간중 한국거래소 가장통정 적출내역

연월일	시간	종목	매수/매도	수량	가격	종목	매수/매도	수량	가격
2010-05-20	09:55:27	삼성	매도	181	181	삼성	매수	8000044	
2010-05-20	09:57:11	삼성	매도	1,900	1,900	삼성	매수	8000740	
2010-05-20	09:58:26	삼성	매도	1,900	1,900	삼성	매수	8000726	
2010-05-20	09:58:58	삼성	매도	1,000	1,000	삼성	매수	8000758	
2010-05-20	09:59:37	삼성	매도	10,000	10,000	삼성	매수	8000833	
2010-05-20	09:59:44	삼성	매도	24,562	24,562	삼성	매수	8000845	
2010-05-20	09:59:47	삼성	매도	2,000	2,000	삼성	매수	8000850	
2010-05-20	09:59:47	삼성	매도	181	181	삼성	매수	8000898	
2010-05-20	09:59:48	삼성	매도	1,200	1,200	삼성	매수	8000964	
2010-05-20	09:59:49	삼성	매도	1,200	1,200	삼성	매수	8000961	
2010-05-20	09:59:50	삼성	매도	862	862	삼성	매수	8000987	
2010-05-20	09:59:54	삼성	매도	1,200	1,200	삼성	매수	8000985	
2010-05-20	09:59:57	삼성	매도	416	416	삼성	매수	8000990	
2010-05-20	09:59:57	삼성	매도	822	822	삼성	매수	8000997	
2010-05-20	09:59:57	삼성	매도	1,550	1,550	삼성	매수	8000998	
2010-05-20	09:59:58	삼성	매도	1,900	1,900	삼성	매수	8000999	
2010-05-20	09:59:59	삼성	매도	8	8	삼성	매수	8000999	
2010-05-20	09:59:59	삼성	매도	2,000	2,000	삼성	매수	8000999	
2010-05-20	09:59:59	삼성	매도	415	415	삼성	매수	8000999	
2010-05-20	09:59:59	삼성	매도	2,637	2,637	삼성	매수	8000999	
2010-05-20	09:59:59	삼성	매도	150	150	삼성	매수	8000999	
2010-05-20	09:59:59	삼성	매도	1,508	1,508	삼성	매수	8000999	
2010-05-20	09:59:59	삼성	매도	1,075	1,075	삼성	매수	8000999	
2010-05-20	09:59:59	삼성	매도	417	417	삼성	매수	8000999	
2010-05-20	09:59:59	삼성	매도	1,848	1,848	삼성	매수	8000999	
2010-05-20	09:59:59	삼성	매도	1,152	1,152	삼성	매수	8000999	
2010-05-20	09:59:59	삼성	매도	787	787	삼성	매수	8000999	
2010-05-20	09:59:59	삼성	매도	1,056	1,056	삼성	매수	8000999	
2010-05-20	09:59:59	삼성	매도	1,777	1,777	삼성	매수	8000999	
2010-05-20	09:59:59	삼성	매도	1,049	1,049	삼성	매수	8000999	
2010-05-20	09:59:59	삼성	매도	1,073	1,073	삼성	매수	8000999	
2010-05-20	09:59:59	삼성	매도	928	928	삼성	매수	8000999	
2010-05-20	09:59:59	삼성	매도	1,147	1,147	삼성	매수	8000999	
2010-05-20	09:59:59	삼성	매도	1,853	1,853	삼성	매수	8000999	
2010-05-20	09:59:59	삼성	매도	979	979	삼성	매수	8000999	
2010-05-20	09:59:59	삼성	매도	2,031	2,031	삼성	매수	8000999	
2010-05-20	09:59:59	삼성	매도	1,811	1,811	삼성	매수	8000999	
2010-05-20	09:59:59	삼성	매도	1,094	1,094	삼성	매수	8000999	
2010-05-20	09:59:59	삼성	매도	1,887	1,887	삼성	매수	8000999	
2010-05-20	09:59:59	삼성	매도	150	150	삼성	매수	8000999	
2010-05-20	09:59:59	삼성	매도	1,660	1,660	삼성	매수	8000999	
2010-05-20	09:59:59	삼성	매도	1,000	1,000	삼성	매수	8000999	
2010-05-20	09:59:59	삼성	매도	900	900	삼성	매수	8000999	
2010-05-20	09:59:59	삼성	매도	68	68	삼성	매수	8000999	
2010-05-20	09:59:59	삼성	매도	2,000	2,000	삼성	매수	8000999	
2010-05-20	09:59:59	삼성	매도	832	832	삼성	매수	8000999	
2010-05-20	09:59:59	삼성	매도	2,058	2,058	삼성	매수	8000999	
2010-05-20	09:59:59	삼성	매도	1,158	1,158	삼성	매수	8000999	
2010-05-20	09:59:59	삼성	매도	150	150	삼성	매수	8000999	
2010-05-24	12:29:00	삼성	매도	202	202	삼성	매수	8000007	
2010-05-24	12:30:38	삼성	매도	700	700	삼성	매수	8000004	

### 3. 송 외 8명의 반복적 이상매매 사례

○ 양 의 매도 물량을 소화했던 송 외 8명은 2010. 5. ~ 7. 기간 중 매우 반복적인 이상매매 주문을 제출하는 양태를 보였습니다. 송 외 8명은 총 1,485회의 이상매매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群의 이상매매 통계

구분	성명	2009년	2010년									총합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송 외 8명	형						34	724	115				873
	양		40	96	229	7	20						392
송 외 8명	박						132	101	86			6	325
송 외 8명	송						145	57	14				216
	김	13	24	18	61	66	4	4					190
	김건희		187										187
	김	2	27	26	28	38	13	12	4		3		153
	이	19	29	5	38	16	5	3	16				131
	진	3	24	10	11	14		1	3				66
송 외 8명	한						16	27					43
	전		25	1									26
송 외 8명	최						5	12					17
송 외 8명	박						4	2	4				10
송 외 8명	최							1					1
	총합계	37	357	156	367	141	578	944	242	3	6		2,621

- 총 1,485회의 이상매매 주문 제출 건수 중 고가매수 주문 534회(36%), 물량 소진 주문 478회(32.2%) 제출하는 등 단기간 매우 반복적인 고가 및 물량 소진 주문을 제출하는 양태를 보였습니다.

1구간 기간 중 송 외 8명의 이상매매 통계

이름	고가매수	물량소진	시기관여	종가관여	허수매수	총합계
박	145	133		19	28	325
박	3	5			2	10
송	62	65		17	72	216
최	1	10		2	4	17
최	1					1
한	11	30		1	1	43
형	311	235	8	65	254	873
총합계	534	478	8	104	361	1,485
비중	36.0%	32.2%	0.5%	7.0%	24.3%	100.0%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송 의 8명 중 황 과 황 는 2010. 6. 14. 당일에 만 총 157회의 이상매매 주문을 제출하였으며, 이는 고가매수 102회, 불량소진 49회, 종가관여 3회, 허수매수 3회로 확인됩니다.

2010. 6. 14. 황 의 157회 이상매매 거래

일련번호	계좌번호	종류	매수금액	매도금액	잔액	일련번호	계좌번호	종류	매수금액	매도금액	잔액
20100614	91216378	고가매수	2,495	2,495	-	20100614	133852078	불량소진	2,445	2,445	-
20100614	91231170	불량소진	2,495	2,495	-	20100614	133901500	불량소진	2,445	2,445	-
20100614	91245427	고가매수	2,495	2,495	-	20100614	133998447	불량소진	2,450	2,445	5
20100614	91319822	고가매수	2,495	2,490	5	20100614	134004263	불량소진	2,445	2,445	-
20100614	91549179	고가매수	2,490	2,490	-	20100614	134010006	고가매수	2,450	2,445	5
20100614	91709957	고가매수	2,485	2,480	5	20100614	134106655	불량소진	2,445	2,445	-
20100614	92825946	고가매수	2,430	2,430	-	20100614	134114253	불량소진	2,445	2,445	-
20100614	92904277	고가매수	2,430	2,430	10	20100614	134125350	고가매수	2,450	2,445	5
20100614	93048733	고가매수	2,430	2,425	5	20100614	134302951	불량소진	2,455	2,455	-
20100614	93203121	고가매수	2,435	2,430	5	20100614	134957855	불량소진	2,450	2,450	-
20100614	93354253	고가매수	2,440	2,435	5	20100614	135030464	불량소진	2,455	2,450	5
20100614	93815310	고가매수	2,440	2,440	-	20100614	135038196	불량소진	2,450	2,450	-
20100614	94458285	불량소진	2,440	2,440	-	20100614	136048103	불량소진	2,450	2,450	-
20100614	94521943	고가매수	2,445	2,440	5	20100614	136100349	고가매수	2,455	2,450	5
20100614	101437156	고가매수	2,430	2,430	-	20100614	135154464	불량소진	2,460	2,450	10
20100614	102545037	고가매수	2,440	2,435	5	20100614	135333060	불량소진	2,445	2,440	5
20100614	102907196	고가매수	2,440	2,440	-	20100614	135735163	고가매수	2,445	2,440	5
20100614	103007277	불량소진	2,440	2,440	-	20100614	135750747	고가매수	2,445	2,440	5
20100614	103327389	고가매수	2,440	2,440	-	20100614	135815047	불량소진	2,440	2,440	-
20100614	103401848	고가매수	2,445	2,440	5	20100614	140148183	고가매수	2,440	2,435	5
20100614	103612150	고가매수	2,445	2,445	-	20100614	140201384	불량소진	2,440	2,440	-
20100614	103708133	불량소진	2,445	2,445	-	20100614	140215450	불량소진	2,440	2,440	-
20100614	104343794	고가매수	2,460	2,445	5	20100614	140312420	고가매수	2,440	2,435	5
20100614	110957205	고가매수	2,430	2,430	-	20100614	140418878	고가매수	2,440	2,435	5
20100614	111116235	불량소진	2,430	2,430	-	20100614	140431450	불량소진	2,440	2,440	-
20100614	111150980	고가매수	2,445	2,430	15	20100614	140450148	불량소진	2,450	2,440	10
20100614	112050953	고가매수	2,430	2,430	-	20100614	140532050	고가매수	2,450	2,445	5
20100614	112115163	불량소진	2,430	2,430	-	20100614	140619564	불량소진	2,445	2,445	-
20100614	112122210	불량소진	2,430	2,430	-	20100614	140626419	고가매수	2,450	2,445	5
20100614	112138954	고가매수	2,440	2,430	10	20100614	140632813	불량소진	2,450	2,450	-
20100614	112345544	고가매수	2,440	2,435	5	20100614	140641118	고가매수	2,460	2,450	10
20100614	113707566	불량소진	2,430	2,430	-	20100614	141228872	불량소진	2,450	2,445	5
20100614	113719778	고가매수	2,440	2,440	-	20100614	141832916	고가매수	2,445	2,440	5
20100614	113828784	불량소진	2,435	2,435	-	20100614	142002806	불량소진	2,445	2,440	5
20100614	113938251	고가매수	2,440	2,435	5	20100614	142243984	고가매수	2,445	2,440	5
20100614	113903558	불량소진	2,435	2,435	-	20100614	142302468	불량소진	2,440	2,440	-
20100614	113914242	고가매수	2,440	2,435	5	20100614	142311170	불량소진	2,445	2,445	-
20100614	113952165	불량소진	2,435	2,435	-	20100614	142348667	불량소진	2,445	2,440	5
20100614	113958039	불량소진	2,435	2,435	-	20100614	142357137	불량소진	2,440	2,440	-
20100614	114015614	고가매수	2,440	2,435	5	20100614	142409324	불량소진	2,445	2,440	5
20100614	123044825	고가매수	2,435	2,430	5	20100614	142613797	불량소진	2,435	2,435	-
20100614	123120967	고가매수	2,435	2,430	5	20100614	142633768	불량소진	2,440	2,435	5
20100614	123138347	고가매수	2,435	2,430	5	20100614	142650520	불량소진	2,440	2,440	-
20100614	123311847	고가매수	2,435	2,430	5	20100614	142808276	불량소진	2,440	2,435	5
20100614	123413345	고가매수	2,435	2,430	5	20100614	142820635	불량소진	2,440	2,435	5
20100614	123436179	고가매수	2,435	2,430	5	20100614	142833750	불량소진	2,440	2,435	5
20100614	123806002	불량소진	2,435	2,435	-	20100614	143106278	불량소진	2,440	2,435	5
20100614	123959254	고가매수	2,440	2,435	5	20100614	143158864	불량소진	2,440	2,435	5
20100614	123726626	불량소진	2,440	2,440	-	20100614	143212004	불량소진	2,440	2,435	5
20100614	123752737	불량소진	2,440	2,440	-	20100614	143221852	불량소진	2,440	2,435	5
20100614	123904742	불량소진	2,440	2,440	-	20100614	143239982	불량소진	2,440	2,435	5
20100614	124017337	불량소진	2,440	2,440	-	20100614	143246502	불량소진	2,440	2,435	5
20100614	124324515	고가매수	2,440	2,430	10	20100614	143251869	불량소진	2,440	2,435	5
20100614	124352323	고가매수	2,440	2,440	-	20100614	143308178	불량소진	2,445	2,445	-
20100614	124414550	고가매수	2,440	2,440	-	20100614	143417164	불량소진	2,445	2,440	5
20100614	124558988	고가매수	2,440	2,440	-	20100614	143453534	불량소진	2,445	2,440	5
20100614	124726295	고가매수	2,440	2,440	-	20100614	143548110	불량소진	2,450	2,435	15
20100614	124806592	불량소진	2,440	2,440	-	20100614	143737976	불량소진	2,440	2,430	10
20100614	125016801	고가매수	2,445	2,440	5	20100614	143928941	불량소진	2,440	2,435	5
20100614	125229913	불량소진	2,445	2,445	-	20100614	143945773	불량소진	2,445	2,440	5
20100614	125628160	불량소진	2,445	2,445	-	20100614	143954753	불량소진	2,445	2,440	5
20100614	125735237	불량소진	2,445	2,445	-	20100614	144019092	불량소진	2,440	2,435	5
20100614	132213896	고가매수	2,445	2,440	5	20100614	144029911	불량소진	2,440	2,440	-
20100614	132224232	고가매수	2,445	2,440	5	20100614	144048015	불량소진	2,440	2,440	-
20100614	132254933	고가매수	2,445	2,440	5	20100614	144053730	불량소진	2,440	2,440	-
20100614	132256197	고가매수	2,450	2,440	10	20100614	144104340	불량소진	2,440	2,440	-
20100614	132724441	고가매수	2,445	2,430	15	20100614	144119116	불량소진	2,445	2,440	5
20100614	132805219	고가매수	2,445	2,440	5	20100614	144408274	불량소진	2,445	2,435	10
20100614	132814510	불량소진	2,445	2,445	-	20100614	144532743	불량소진	2,445	2,440	5
20100614	132817671	고가매수	2,450	2,440	10	20100614	144554563	불량소진	2,445	2,445	-
20100614	133059722	불량소진	2,440	2,440	-	20100614	144721486	불량소진	2,445	2,440	5
20100614	133109459	고가매수	2,450	2,450	-	20100614	144748221	불량소진	2,445	2,445	-
20100614	133130062	고가매수	2,450	2,440	10	20100614	144756531	불량소진	2,445	2,445	-
20100614	133224395	불량소진	2,450	2,450	-	20100614	144810603	불량소진	2,450	2,445	5
20100614	133741349	고가매수	2,445	2,445	-	20100614	145745531	불가관여	2,450	2,450	-
20100614	133754764	고가매수	2,450	2,445	5	20100614	145920264	불가관여	2,440	2,440	-

## II. 이 의 김 에 대한 수급 의뢰

### 1 이 , 김 김 김 에 대한 시세조종 의뢰

○ 위와 같은 이 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침 주가상승 기회를 탄 기존 주주들, 특히 AK펀드 등의 대량 매도 물량으로 말미암아 기대수준 만큼의 주가상승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 이에 이 은 자신의 역량만으로는 주가부양에 한계를 느끼게 되자, 2010. 5.경 내지 2010. 6.경 당시 토러스증권(현 디에스증권)에서 근무하던 김 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 50만주를 매수해주면 1억 원과 도이치모터스 주식 20만주를 제공해주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김 은 '이 이 원금을 보장해주고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고 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100만주를 잡아달라고 하였다'면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sup>12)</sup>,

- 김 은 이 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는데, 그 사건에서 김 은 이 로부터 (주)도이치모터스 주식수급의뢰를 받아 2010. 5.경 30만 주 가량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 2010. 9. 13.자 이 의 김 에 대한 각서 내용으로 볼 때, 김 은 2010. 9. 13.까지 45만 주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달 30.자 각서에 의하면, 2010. 9. 30.경까지 총 54만 주를 매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됩니다.

각서인은 각서인이 김 씨와 약속한 대로 2010년 9월 29일 이전에 누구의 명의라도 김 씨를 통해서 매수하게된 코스닥 등록 도이치모터스(067990) **보통주 54만주에** 대해서 2010년 9월 30일 이후에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매각을 하는 것에 동의하며, 매각차손이 발생할 경우 이 손실금

12) 구체적인 내용은 2021. 10. 17.자 피의자 김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등 참조

○ 김 또한 법정에서 '이 이 김 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여 김 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김 증인신문조서]

답 예전에 이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좀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해서 저는 어차피 개인계좌를 관리 안 하니깐,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지점 쪽에 있었던 분인데 이 형이 생각이 나서 연락을 한 겁니다.

문 이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줄 대가 있느냐고 말해서 김 씨가 생각나서 김 을 소개해 줬다는 이런 취지인 것이지요.

답 예.

문 이 을 알게 되고 조금 지나서 2010. 중순경 이 씨가 증인에게 주식 살 대가 있냐고 물어왔다고 하는데, 그때 이 씨가 대가를 주겠다는 이런 말도 했었나요.

답 예, "주식 사면 자기가 좀 대가를 주겠다." 그렇게 말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여기에서 대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답 주식 사면 산 만큼 어느 정도 돈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 2010. 10. 18. 민 과 김 이 주고받은 문자메세지에서도 '김 과 이 이 김 을 끌어들인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메시지	활성	발신	성성 일시 : 2010-10-18 16:56:48 읽은 일시 : 2010-10-18 16:56:48	내용 : 오늘 접대어트는 없네요. 내일이 마감일인데	8210	
메시지	활성	발신	성성 일시 : 2010-10-18 19:09:18 읽은 일시 : 2010-10-18 19:09:18	내용 : 이사님, 내일 담보 들어 올꺼구 권사장하구도 잘 됐다 구 말씀 드렸더니 이상하다고 권사장오늘 골프 대회 또 새벽부터 가서 지금 올라 왔다고 하시더라는데 김 이사가 정말 만나신건가. 이사님이 믿는 후배지만 잘 쟁겨 보세요.	8210	
메시지	활성	발신	성성 일시 : 2010-10-18 19:11:55 읽은 일시 : 2010-10-18 19:11:55	내용 : 물론 며 이사님에게 피해는 안주시겠지만 그래도 판단 하시는데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8210	
메시지	활성	수신	성성 일시 : 2010-10-18 19:13:36 읽은 일시 : 2010-10-18 19:13:36	내용 : 오전에 김 도 회사에서 주문명예문자가 통과했다고 들었습니다.		번호 : +8210
메시지	활성	수신	성성 일시 : 2010-10-18 19:16:01 읽은 일시 : 2010-10-18 19:16:01	내용 : 권사장이 골프했는지는 모르겠고 다만 장편에게 김 이장이 오늘 권오수가 조번씩계하는 놓이니 믿주지만 중 포괄했음. 자기도 권한테 주식사란소리들었다며.		번호 : +8210
메시지	활성	발신	성성 일시 : 2010-10-18 19:23:55 읽은 일시 : 2010-10-18 19:23:55	내용 : 네 하여간 저 이사님만 여러 저러 맞춰보자구요. 권 그냥 김 이사도 며 피할 같이 해서 이사님 그려드려 마 하는 이유가 있는게 아닌가 해서 그 동안 해 온것도 있고. 전화를 해줄까요? 그런 사소한게 좀 험뎸하고 지금 해 주신 이야기도 그렇고. 힘 세삼 모르겠어요. 권사장 돈 만은거 같 은데 사모님이 주유소도 하시구 근데 또 불러 줬다고 하는 사체가 있고 정말 알다가도 모를일. 그니까 저한테 이사님 믿 고 안전하게 움직이게 최선. 그러니까 이사님 판단 잘 하 세여	8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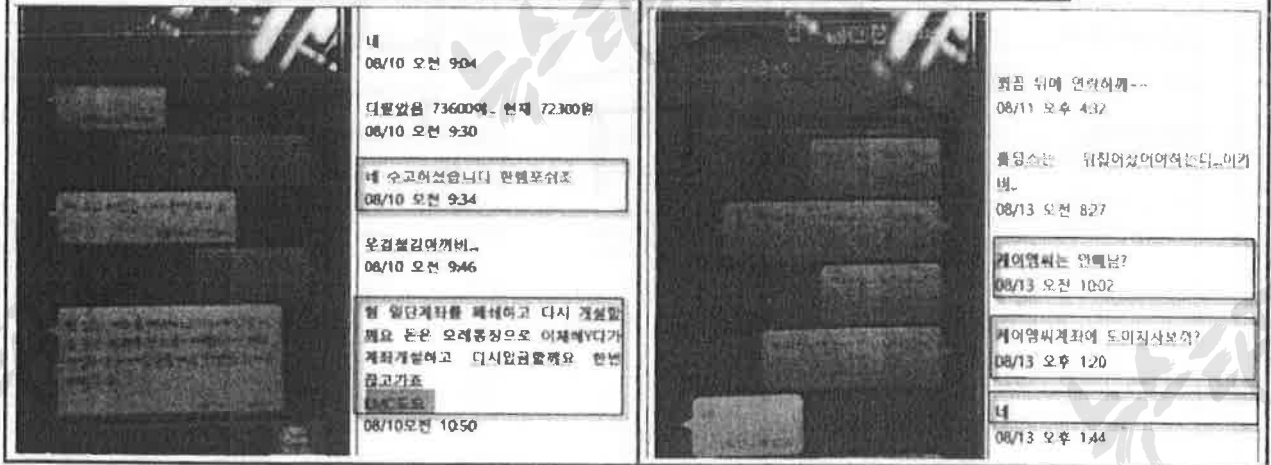
○ 결국 이 이 김 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 수급 의뢰를 하였고, 이에 공범

관계가 성립함으로써 김 [ ] 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은 충분히 인정된  
다고 할 것입니다.

**② 김 [ ] 2010. 8.~10.경 민 [ ] 계좌 등을 이용한 매집**

- 위와 같이 김 [ ] 은 이 [ ] 로부터 2010. 5.경 내지 7.경 수급의뢰를 받아, 2010. 8.경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하였는데, 초창기에는 대부분 (주) 우리기술, (주)케이엠로보틱스, [ ] 인베스트의 민 [ ]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실제로 김 [ ] 이 계좌관리자로 지정된 계좌 및 (주)우리기술, (주)케이엠로보틱스 및 민 [ ] 계좌에서 2010. 8.경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고, 김 [ ] 과 이 [ ] 사이의 문자메시지 역시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8. 1. 김 [ ] 과 이 [ ] 간 문자메시지 내용(발체)**



○ 2010. 9. 30.자 각서에 의하면, 2010. 9. 29. 이전에 김 [ ] 를 통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총 54만 주가 매수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각서인은 각서인이 김 [ ] 씨와 약속한 대로 2010년 9월 29일 이전에 누  
구의 명의라도 김 [ ] 씨를 통해서 매수하게된 코스닥 등록 도이치모터스  
(067990) 보통주 54만주에 대해서 2010년 9월 30일 이후에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매각을 하는 것에 동의하며, 매각차손이 발생할 경우 이 손실금

- 2010. 8.경부터 2010. 9. 27.까지 김 群으로 확인된 계좌들의 매수내역이 38만주 상당(일부 계좌 미특정으로 수량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위 각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점,
- 위와 같은 주식 매집에 이용된 계좌 중 민 계좌 뿐 아니라 민 의 계좌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 은 민 과 함께 2010. 8.경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0. 8.~2010. 9. 27. 김 群 관련 매수내역]**

매수종목명	매수종목명	매수종목명	매수종목명	매수종목명	매수종목명	매수종목명	매수종목명	매수종목명	매수종목명	매수종목명
손 6	손 6	김 6	김 6	SK증권	송파P&S센터	226,682	579,545,935	191,315	470,917,155	35,367
				유진증권	분 당	78,900	197,007,590			78,900
김 6	김 6	김 6	김 6	한화투자	관리아지점	58,800	149,784,535			58,800
손 6	손 6	김 6	김 6	SK증권	송파P&S센터	52,410	136,446,900	52,410	125,088,085	
김(주)우리기술	김(주)우리기술	김 6	김 6	디에스	강남센터	44,690	123,182,650			44,690
노 6	노 6	김 6	김 6	신한투자	신한P&S서울FC	38,011	99,810,070			38,011
노(주)케이엠씨	노(주)케이엠씨	김 6	김 6	디에스	강남센터	31,870	84,434,060	29,870	79,457,545	2,000
노(주)씨보보틱스	노(주)씨보보틱스	김 6	김 6	대신증권	영재동지점	30,000	80,215,600			30,000
김 6	김 6	김 6	김 6	한화투자	고객지원팀	26,110	64,188,830	24,190	62,962,960	1,920
김 6	김 6	김 6	김 6	하나금융투자	하나어체 Cyber2	24,028	63,809,410	23,551	61,440,320	477
김 6	김 6	김 6	김 6	KB증권	압구정	19,500	50,790,000	7,500	19,147,500	12,000
김 6	김 6	김 6	김 6	현대차증권	분당지점	18,100	43,677,000			18,100
김 6	김 6	김 6	김 6	삼성증권	분당 W&M	17,891	42,997,190			17,891
김 6	김 6	김 6	김 6	메리츠	공영센터	16,000	43,616,725			16,000
김 6	김 6	김 6	김 6	디에스	강남센터	10,627	27,973,165	10,627	28,553,715	
김 6	김 6	김 6	김 6	신한투자	서울FC	9,700	25,941,070			9,700
김 6	김 6	김 6	김 6	한국증권	청담	9,650	24,110,470			9,650
김 6	김 6	김 6	김 6	SK증권	영동지점	6,161	16,632,100			6,161
김 6	김 6	김 6	김 6	삼성증권	분당 W&M	951	2,676,825	951	2,427,165	
김 6	김 6	김 6	김 6	합계		720,081		340,414		379,667

**III. 권오수, 김 群, 이 群 의 시세조종 범행**

**① 권오수의 김 群 에 대한 시세조종 의뢰**

○ 김 群 은 위와 같이 이 群 의 수급의뢰에 따라 손 6, 민 6 이 群 등을 동원하여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群 의 약속과 달리 원금보장 및 손실보전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 공범 이 를 통해 소개받은 권오수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관리를 의뢰 받아 본격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행위를 주도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그리고 위와 같은 김 의 진술은, '권오수가 계좌를 넣어주면서까지 한 번 해 보자고 하였다'는 취지의 2019. 11. 7.자 김 과 이 의 통화녹음(출처 김 휴대전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	나한테 안그랬겠냐고, 난들, 나도 너하고 얘기하다가 너가 완전히 깨져버렸으니까 기자들이, 그럼 내가 나라도 잡을게 하고 갔을 때, 내가 그냥 갔다고, 나도 권회장 만나고 시작한거잖아, 그래 그럼 한번 봅시다, 그래가지고, 나 이래이래 이렇게 계좌 까주고 이렇게 잡을 테니까, 그러니까는 그때 권회장이 나한테 계좌까지 넣어줬어 되레, 야 그럼 당신이 계좌 있으면은 해 보자고 해가지고, 내 주식 물량 좀 밑에서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는, 그거 뭐 불록딜로 건희 계좌꺼 있는 것도 나한테 털어 넣어주고, 다 그래서 한거 아니야, 그런데, 그걸 내가 김건희 계좌를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
이	신한꺼 받았어요?
김	그때 한화, 한화 같애, 한화인가, 신한인가, 내 다 있어 자료
이	그래 나도 다 있어, 내가 개꺼를 형, 나 몇 월 며칠날 어디서 전화로 그거 다 있어요, 그거 즐라게 먹었어요, 이천이백원에 사가지고,
김	야 너는 밖에 있지만, 나는 그때 증권사 직원이었잖니, 건희가 와서 계좌도 개설하고 가고, 본인이 와서, 건희가 와서 했겠냐고, 주변에서 회장하고, 전부 다 와서 계좌 개설하고, 본인이 계좌를 다 넣어줬는데, 나한테는 정말 거짓말 못하지, 만약에 증권사 직원 아니니까 너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나는 그때 당시 너 알다시피 증권사 직원이었고,

○ 2010. 10. 18. 민 은 김 에게 '이사님, 내일 담보 들어올꺼구 권사장하구도 잘됐다고 말씀드렸더니 이상하다고 권사장 오늘 골프 대회로, 새벽부터 가서 지금 올라왔다고 하시더라는데, 김 이사가 정말 만나신건가...' 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자,

- 김 이 '다만 장한평에 김 회장이 오늘 권오수가 조변석개하는 놈이니 맘주지마란 충고를 들었음.. 자기도 권한테 주식사란 소리 들었다며...'라고 대답하고, 민 이 피고인 김 에게 '...김이사와 이 이 이사님 끄러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 해서...'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메시지	발성	발신	성성 일시 : 2010-10-18 19:09:18 읽은 일시 : 2010-10-18 19:09:18	내용 : 이사님 내일 담보 들어 올려구 권사장하 구도 잘 됐다구 말씀 드렸더니 이상하다고 권 사장오를 골라 대화로 세백 부터 가서 지금 올라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김 여사가 정말 안 나산건가. 이사님이 열는 후배지만 핑 핑거 보세요.	+8216	
메시지	발성	발신	성성 일시 : 2010-10-18 19:11:55 읽은 일시 : 2010-10-18 19:11:55	내용 : 물론 더 이사님에게 피해는 안주시겠지만 그래도 탄탄하시는데 오류가 있을 수 있으 니	+8216	
메시지	발성	수신	성성 일시 : 2010-10-18 19:13:36 읽은 일시 : 2010-10-18 19:13:36	내용 : 오전에 김 [ ]도 회사에서 주문했어오 니가 통화했다고 들었습니다.		번호 : +82
메시지	발성	수신	성성 일시 : 2010-10-18 19:16:01 읽은 일시 : 2010-10-18 19:16:01	내용 : 권사장이 골랐는지는 모르겠고 다만 장한영에 [ ] 회장이 오늘 권오수가 조연석 개하는 놈이니 영주지마란 경고들었음. 자기 도 권한테 주식사란소리들었다며.		번호 : +821
메시지	발성	발신	성성 일시 : 2010-10-18 19:23:55 읽은 일시 : 2010-10-18 19:23:55	내용 : 네. 하여간. 지금 이사님만 [ ] 리 맞춰보자구요. 전 그냥 김 이사도 [ ] 배당 같이 해서 이사님 고려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 는거 아닌가 해서 그 동안 해 온것도 있고 권 희를 해줄까요? 그런 사소한게 좀 합당하고 지금 해 주신 이야기도 그렇고 좀 세심 모르겠 어요. 권사장 돈 알은거 같은데 사모님이 주류 소도 하시구 근데 또 불러 왔다고 하는 사체가 있고 정말 알다가도 모를법. 그니까 저한테 이사 님 알고 안전하게 움직이게 최선을 그러니까 이사님 판단 잘 하세요	+8216	
메시지	발성	수신	성성 일시 : 2010-10-18 19:20:17 읽은 일시 : 2010-10-18 19:20:17	내용 : 아무튼 안올님이 여기도 내상적인 어드 핑거 잘못할 사항이. #6		번호 : +82

○ 계속해서 2010. 10. 19. 김 이 민 에게 '내일 권희장 만나구요, 자전 10만 개 받을 꺼구요 그거 담보 계좌로 조금 가격 만질라구요', '주변꺼 내가 일차로 3500에 자전받을래니. 주식 수배해 달라고 시치미떼고 던져볼랍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신	성성 일시 : 2010-10-19 15:24:26 읽은 일시 : 2010-10-19 15:24:26	내용 : 내일 권희장 만나구요.			번호 : +821
수신	성성 일시 : 2010-10-19 15:25:35 읽은 일시 : 2010-10-19 15:25:35	내용 : 자전 10만개받을꺼구요. 이후에 일단 5000들온거와 그거담보 계좌로 조금 가격만질 라구요			번호 : +8210
발신	성성 일시 : 2010-10-19 15:25:53 읽은 일시 : 2010-10-19 15:25:53	내용 : 아. 만나서 어케 하실려구요? 좋게 만 나실려구요?	+8210		
수신	성성 일시 : 2010-10-19 15:27:04 읽은 일시 : 2010-10-19 15:27:04	내용 : 내일 약속어음공유하고 민 시도복 스 800 만개 담보입들려구요			번호 : +8216
발신	성성 일시 : 2010-10-19 15:27:23 읽은 일시 : 2010-10-19 15:27:23	내용 : 아. 내일 자전 올리시면 하는 검토 보고 저희 계좌는요. 오늘 보니까 꽤 바빴는데	+8210		
발신	성성 일시 : 2010-10-19 15:27:41 읽은 일시 : 2010-10-19 15:27:41	내용 : 네	+8210		
수신	성성 일시 : 2010-10-19 15:28:04 읽은 일시 : 2010-10-19 15:28:04	내용 : 주변꺼 내가 일차로 3500 에 자전받을래 니. 주식수배해달라고 시치미떼고 던져볼랍니 다.			번호 : +82
수신	성성 일시 : 2010-10-19 15:28:23 읽은 일시 : 2010-10-19 15:28:23	내용 : 영은 회의 골나고 봐요.			번호 : +8210
수신	성성 일시 : 2010-10-19 15:28:57 읽은 일시 : 2010-10-19 15:28:57	내용 : 지금부사장와서 회의. x			번호 : +8210
발신	성성 일시 : 2010-10-19 15:29:42 읽은 일시 : 2010-10-19 15:29:42	내용 : 우기요?	+8210		
수신	성성 일시 : 2010-10-19 15:31:37 읽은 일시 : 2010-10-19 15:31:37	내용 : 유희사부사장. 직원이 또 하나 그만둔다 해서 쓰발			번호 : +821
발신	성성 일시 : 2010-10-19 15:32:22 읽은 일시 : 2010-10-19 15:32:22	내용 : 하하하. 요즘 언제 난이 심한가봐요 제 가 알아보는 후에도 물어 보니 예로부터 삼백 올테니 오리고 하고 동양증권도 그렇고 하 여간 회의 하시고 전화주세요. 그만 귀찮게 할 까요	+8210		
발신	성성 일시 : 2010-10-20 08:36:42 읽은 일시 : 2010-10-20 08:36:42	내용 : 이사님 업데이트 좀 해주세요 전화 주신 다고 해서 늦게 까지 등 배지게 기다리고 있었 는데	+8216		
수신	성성 일시 : 2010-10-20 08:43:26 읽은 일시 : 2010-10-20 08:43:26	내용 : 지금 도모겨는용			번호 : +8216

- 위 문자메세지들에 대하여 민        은 법정에서, “당시        인베스트의 자금 13~15억 원 정도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를 위해 투입되었는데, 담보가 들어 오기로 했으나 들어오지 않아서 매수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고, 어떤 ‘합의’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 위 ‘권오수가 조변석개하는 놈이니 맘주지마란 충고를 들었음’이라는 문자메세지 및 민        의 증언을 살펴보면, 2010. 10.경 김        과 민        은 담보를 제공하는 주식 수급을 의뢰받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담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 그 담보가 권오수가 제공하는 담보인지, 권오수가 이        등에게 주가조작을 의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 또한 피고인 김        이 보낸 2010. 10. 19.경 ‘주변끼 내가 3,500에 자전받을테니 주식수배해 달라고 시치미 때고 던져 불립니다’, 다음날인 20.경 ‘지금 도모가는 중’이라는 일련의 문자메세지를 보면,
  - 당시 피고인 김        과 민        은 피고인 권오수를 만나 자전거래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권오수가 정말로 피고인        에게 주가조작을 의뢰하였는지, 담보를 주기로 하였던 것인지를 확인하는 한편, 피고인 이        을 대신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이후 2010. 10. 25.경 ‘일단 권사장하고는 수요밤9시에 만나기로 했구요. (중략) 크게 날려 불립니다’ 문자메세지에 의하면, 같은 달 27.경 김        이 권오수를 만난 것으로 추정되고, 바로 그 다음날부터 2010. 11. 5.까지 권오수와 김        민        이 통정매매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메시지	발성	발신	생성 일시 : 2010-10-20 08:36:42 읽은 일시 : 2010-10-20 08:36:42	내용 : 어시님 업데이트 좀 해주세요. 전화 주신 다고 해서 늦게까지는 딱지끼 기다리고 있었 는데	+8211	
메시지	발성	수신	생성 일시 : 2010-10-20 08:43:26 읽은 일시 : 2010-10-20 08:43:26	내용 : 지금 도와가세요		번호 : +8211
메시지	발성	발신	생성 일시 : 2010-10-21 09:22:57 읽은 일시 : 2010-10-21 09:22:57	내용 : 어시님 오늘은 업데이트 안했어요?	+8211	
메시지	발성	발신	생성 일시 : 2010-10-21 09:23:24 읽은 일시 : 2010-10-21 09:23:24	내용 : 오후에 차 현장 여러 갈래요	+8211	
메시지	발성	발신	생성 일시 : 2010-10-21 14:29:16 읽은 일시 : 2010-10-21 14:29:16	내용 : 어시님 언제 내려 오세요	+8211	
메시지	발성	수신	생성 일시 : 2010-10-21 14:31:00 읽은 일시 : 2010-10-21 14:31:00	내용 : 장문나고 네시쯤요		번호 : +8211
메시지	발성	발신	생성 일시 : 2010-10-21 14:31:37 읽은 일시 : 2010-10-21 14:31:37	내용 : 네시에 저희 삼실에서 밥은 건로 먹고 최정남 하고 끝 삼익해서 그림 그리면 좋은 거 같은데	+8211	
메시지	발성	수신	생성 일시 : 2010-10-21 14:31:41 읽은 일시 : 2010-10-21 14:31:41	내용 : 지금 무휴여있는 재후해 도와주실경 님으로도 물어오는중		번호 : +8211
메시지	발성	수신	생성 일시 : 2010-10-21 14:32:54 읽은 일시 : 2010-10-21 14:32:54	내용 : 네		번호 : +8211
메시지	발성	발신	생성 일시 : 2010-10-22 20:00:15 읽은 일시 : 2010-10-22 20:00:15	내용 : 어시님 얼얼날 기실거죠	+8211C	
메시지	발성	발신	생성 일시 : 2010-10-25 15:19:26 읽은 일시 : 2010-10-25 15:19:26	내용 : 언제 오세요 적도 그후구 최정남도 아예 확실 건지 기다리사구 한테	+8211	
메시지	발성	수신	생성 일시 : 2010-10-25 15:24:29 읽은 일시 : 2010-10-25 15:24:29	내용 : 일단 권사장은 수요일9시에 만나기도 했구요 기관들과는 수요일까지 수급맞추기 도했구요. 우리 권 사장과 권사장과 담주에 저녁할 예정이구요. 드레스해서 상문고 업으로 50만개 살려구요. 지금kbs후배들과 이야기중이 구요. 크게 알려드립니다.		번호 : +8211
메시지	발성	발신	생성 일시 : 2010-10-25 15:28:01 읽은 일시 : 2010-10-25 15:28:01	내용 : 헤어지겠다는 요? 아예, 권구 그림 오늘 머릿은 안머신당 말씀? 상실 해 언제 거세요. 차 현장 여러 갈래	+8211	

○ 나아가 '권오수로부터 김 이 이 과의 약정을 승계하기로 했다는 이야기  
를 들었다'는 이 의 검찰 진술<sup>13)</sup>, 김 이 권오수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 등에 의하더  
라도 권오수가 김 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관리를 의뢰하였음이 분명한  
사실로 확인됩니다.

**2 권오수, 김 , 이 의 시세조종 실행**

○ 위와 같이 2010. 10. 19.부터 25.까지의 민 과 김 은 권오수를 만난 자전  
거래를 제안하겠다는 문자메세지를 주고받다가, 2010. 10. 28. 본격적으로 미리  
가격과 수량을 정해 주식을 거래하는 문자를 주고받고, 실제 통장매매를 하는  
등 시세조종을 실행한 이상매매 내역이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13) 구체적인 내용은 2021. 10. 15.자 피의자 이 II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참조



번호	제출	상	종	발신	수신	내용	발신지	수신지
245	메시지	발성	수신	성성	일시: 2010-11-01 11:22:25 읽은 일시: 2010-11-01 11:22:25	내용: 12시에 3300에 8만개 매도하라해주세요		번호: +8211
246	메시지	발성	발신	성성	일시: 2010-11-01 11:23:49 읽은 일시: 2010-11-01 11:23:49	내용: 준비 시킬게요	+8211	
247	메시지	발성	수신	성성	일시: 2010-11-01 11:44:32 읽은 일시: 2010-11-01 11:44:32	내용: 매도하라해셈		번호: +8211

- 2010. 11. 1. 11:44 39초 김건희 명의 계좌에서 정확히 3,300원에 80,000주를 매도하였고, 이 (유진), 안 (디에스), 김 (유진), 민 (디에스) 계좌에서 매수주문이 나와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일시	시간	계좌명	매수/매도	종목	수량	단가	총액	잔액	잔주	잔단
2010-11-01	11:44:39	대신증권	매도	대신증권	80,000	3,300	264,000	264,000	0	0
2010-11-01	11:44:39	대신증권	매수	대신증권	80,000	3,300	264,000	264,000	0	0
2010-11-01	11:44:39	대신증권	매도	대신증권	80,000	3,300	264,000	264,000	0	0
2010-11-01	11:44:39	대신증권	매수	대신증권	80,000	3,300	264,000	264,000	0	0

○ 위 김건희는 당시 김 이나 이 가 직접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가 아니었고, 이 나 민 역시 법정에서 '권오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김건희와 연락할 수 없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 민 과 김 이 2010. 10. 28. '7만 주는 어케 하실건지. 대기 중 이시라'고 하거나, 2010. 11. 1. '준비시킬게요', '매도하라 하셈'이라는 문자메세지를 주고 받은 직후,

- 김건희 명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2010. 10. 28.경 10만 주, 2010. 11. 1.경 8만 주가 매도되었고, 김건희는 권오수의 지인으로 당시 김 , 이 가 직접 연락할 수 없었던 사람인바, 권오수가 위 통정매매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3. 2010. 11. 3. 통정매매

○ 권오수는 2010. 10. 29.부터 최은순 명의 계좌로 6억 원 상당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2010. 11. 3. 위 최은순의 계좌 및 당시 도이치모터스의 CFO인 엮 의 계좌를 이용하여 13:14:14부터 13:14:25까지 87,326주를 매도



주식 했었음"이라는 문자를 보냈는바, 민 이 위 김진희 명의 미래에셋 계좌를 사용하여 김 측의 도이치모터스 물량을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번호	발신	수신	내용	발신자	받신자
메시지	발신	받신	성명 일시: 2010-11-04 12:30:37 읽은 일시: 2010-11-04 12:30:37	내용: 심만주 받았음 두사할 형태 오만주씩 했었음	B210
메시지	발신	수신	성명 일시: 2010-11-04 12:32:34 읽은 일시: 2010-11-04 12:32:34	내용: 고생했어요. 지금 호가가 너무올라. 키움.토러스.신한.금.에서 모피산하는데.ㅎㅎ	번호: +8210

5. 2010. 11. 5. 통정매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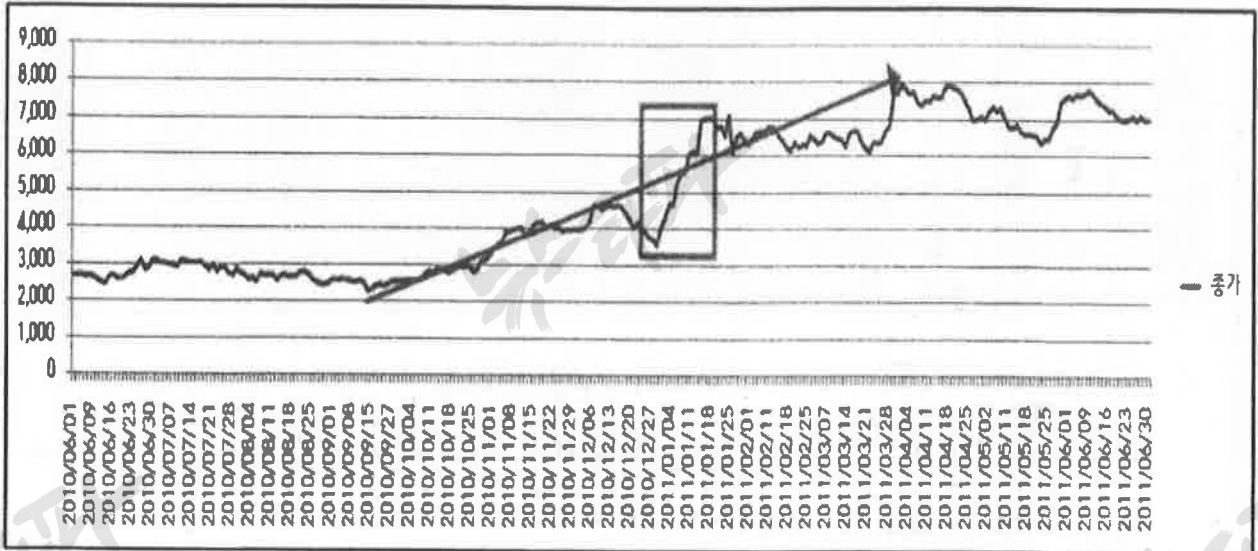
○ 2010. 11. 5. 김 이 민 에게 '3,800에 3만개 매도부탁', '왜 안까는져 호가 자꾸 들오는다'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민 이 '아 지금 사만주 까요, 오만개 오케. 권사장님이 연락이 안되서. 지금 됐어요. 바로 던질 겁니다'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낸 직후, 김 의 언니 김 명의 계좌에서 3,800원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6만 주를 매도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번호	발신	수신	내용	발신자	받신자	
301	메시지	발신	수신	성명 일시: 2010-11-05 13:48:49 읽은 일시: 2010-11-05 13:48:49	내용: 3800 에 3만개 매도부탁	번호: +8210,
302	메시지	발신	수신	성명 일시: 2010-11-05 13:58:23 읽은 일시: 2010-11-05 13:58:23	내용: 예언까는져 호기사꾸들오는다.	번호: +8210
303	메시지	발신	발신	성명 일시: 2010-11-05 13:58:23 읽은 일시: 2010-11-05 13:58:23	내용: 아 지금 사만주 까요	+8210
304	메시지	발신	수신	성명 일시: 2010-11-05 13:58:49 읽은 일시: 2010-11-05 13:58:49	내용: 5만개까지.!!	번호: +8210
305	메시지	발신	발신	성명 일시: 2010-11-05 13:59:23 읽은 일시: 2010-11-05 13:59:23	내용: 오만개 오케. 권사장님이 연락이 안되서. 지금 됐어요. 바로 던질 겁니다	+8210

종목명	종목코드	종류	종목명	종목코드	종류	종목명	종목코드	종류	종목명	종목코드	종류	종목명	종목코드	종류
20101105	1833	다국선	20101105	1833	다국선	20101105	1833	다국선	20101105	1833	다국선	20101105	1833	다국선
20101105	1833	다국선	20101105	1833	다국선	20101105	1833	다국선	20101105	1833	다국선	20101105	1833	다국선
20101105	2000	미국채	20101105	2000	미국채	20101105	2000	미국채	20101105	2000	미국채	20101105	2000	미국채
20101105	2100	다국선	20101105	2100	다국선	20101105	2100	다국선	20101105	2100	다국선	20101105	2100	다국선
20101105	2100	다국선	20101105	2100	다국선	20101105	2100	다국선	20101105	2100	다국선	20101105	2100	다국선
20101105	2100	다국선	20101105	2100	다국선	20101105	2100	다국선	20101105	2100	다국선	20101105	2100	다국선
20101105	2004	국채	20101105	2004	국채	20101105	2004	국채	20101105	2004	국채	20101105	2004	국채
20101105	4100	국채	20101105	4100	국채	20101105	4100	국채	20101105	4100	국채	20101105	4100	국채
20101105	4100	국채	20101105	4100	국채	20101105	4100	국채	20101105	4100	국채	20101105	4100	국채
20101105	1100	국채	20101105	1100	국채	20101105	1100	국채	20101105	1100	국채	20101105	1100	국채

○ 그리고, 당시 체결장을 보면, 위와 같이 김 명의 미래에셋대우증권 계좌에서 매도한 6만주는 대부분 김 이 관리하던 이 , 케이엠씨로보틱스, 우리 기술 명의 계좌에서 매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 결국, 김 이 자신이 관리하던 계좌로 매수 주문을 깔아 놓은 뒤 권오수에게 연락하여 매도 주문을 내도록 한 전형적인 자전거래에 해당합니다.





○ 2011. 1.경 거래량을 살펴보면, 2011. 1. 10.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증가 하였다가 다시 감소하였고, 그 후에는 특별한 증가 없이 2011. 1. 25. 당일에만 거래량이 급증<sup>14)</sup>하였습니다.

일자	총가	거래량	상장주식수
2011/01/03	4,655	323,500	19,492,292
2011/01/04	4,660	224,957	19,492,292
2011/01/05	5,270	462,697	19,492,292
2011/01/06	5,520	342,847	19,492,292
2011/01/07	5,520	172,354	19,492,292
2011/01/10	6,040	443,997	19,492,292
2011/01/11	6,100	963,792	19,492,292
2011/01/12	6,070	532,260	19,492,292
2011/01/13	6,960	549,210	19,492,292
2011/01/14	7,010	637,146	19,492,292
2011/01/17	7,010	354,311	19,492,292
2011/01/18	7,000	202,378	19,492,292
2011/01/19	6,750	246,542	19,492,292
2011/01/20	6,800	181,849	19,492,292
2011/01/21	6,550	145,134	19,492,292
2011/01/24	7,080	387,599	19,492,292
2011/01/25	6,070	1,876,238	19,492,292
2011/01/26	6,500	276,297	19,492,292
2011/01/27	6,600	253,222	19,492,292
2011/01/28	6,450	140,465	19,492,292
2011/01/31	6,290	106,440	19,492,292

○ 그런데, 2011. 1. 10.경 및 같은 달 12.경 거래가 증가하였던 것은 김건희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김 [ ] 조 [ ] 에게 블록딜로 매도한 것이 반영되

14) 블랙스톤 인수설 및 부인 공시 등으로 인한 거래량 급증입니다.

였기 때문이고, 거래량이 2배 가까이 증가한 2011. 1. 11.경 체결장을 분석한 결과, 당시 상위매수계좌에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용한 계좌들이 상당수 올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일자	보드ID	주문수량	매수회	매수지명	매수계좌번호	매수종	매수유	매수주분종	매수주분자식	매도계	매수계
20110111	정규장	15000	하나금융	국민은행Cyber		16000	6400	HTS	061074107153	김건희	김
20110111	정규장	5828	삼성증권	영업부		7922	6280	영업정단말	045010002053		
20110111	정규장	5000	한화투자	영업부		12266	6900	영업정단말	172021183022	박	현대인베스
20110111	정규장	5000	유진증권	분 당		5000	6350	영업정단말	191100229046	박	조
20110111	정규장	4780	신한투자	신한은행		5000	0	HTS	210101064172	정	김건희
20110111	정규장	4700	디에스	강남센터		10000	6100	영업정단말	155023251116		
20110111	정규장	4345	키움증권	국민은행5		6600	6000	HTS	211224074140	아	
20110111	정규장	3830	미래에셋	신한Direct		5056	5420	HTS	121159070015	신	오
20110111	정규장	3470	유진증권	분 당		5000	6310	영업정단말	191100229046	신	세
20110111	정규장	3212	유진증권	분 당		5000	6340	영업정단말	191100229046	박	세
20110111	정규장	3000	하나금융	국민은행Cybe		10000	6600	HTS	218036004102	현	박
20110111	정규장	3000	키움증권	국민은행24		3000	6800	HTS	183098074129	박	박
20110111	정규장	3000	키움증권	신한은행2		3000	6900	HTS	125135068151	이	한
20110111	정규장	3000	SK증권	대전지점		25000	6940	HTS	220246183083	박	박
20110111	정규장	3000	SK증권	대전지점		25000	6940	HTS	220246183083	박	박
20110111	정규장	3000	SK증권	대전지점		25000	6940	HTS	220246183083	박	박
20110111	정규장	3000	신한투자	국민은행		3000	6300	HTS	218147193163	박	박
20110111	정규장	2881	유진증권	분 당		5000	6310	영업정단말	191100229046	조	조
20110111	정규장	2800	한화투자	금융프라자서프		2800	6890	영업정단말	172030008017	김	채

○ 또한, 주가가 6,070원에서 6,960원으로 상승한 2011. 1. 13.경 체결장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 김 이 매수를 유도한 서 (서 ) 명의 계좌에서 집중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하였습니다.

일자	보드ID	주문수량	매수회	매수지명	매수계좌번호	매수종	매수유	매수주분종	매수주분자식	매도계	매수계
20110113	정규장	57385	유진증권	분 당		60000	6500	영업정단말	191100229046	김건희	서
20110113	정규장	7500	대신증권	은행채움1		14751	6400	HTS	124050025139	김	정
20110113	정규장	7000	한화투자	고려지원팀		7000	6700	HTS	110015046178	이	정
20110113	정규장	5167	한화투자	고려지원팀		6442	6550	HTS	110015046178	이	서
20110113	정규장	4869	유진증권	분 당		10000	6300	영업정단말	191100229046	이	서
20110113	정규장	4188	유진증권	분 당		5000	6300	영업정단말	191100229046	정	서
20110113	정규장	4004	대신증권	은행채움1		14751	6400	HTS	124050025139	정	서
20110113	정규장	3949	한국증권	도곡		10000	6800	영업정단말	190190094109	장	서
20110113	정규장	3882	삼성증권	남동산		4900	6700	영업정단말	045028198064	이	서
20110113	정규장	3242	삼성증권	남동산		9000	6500	영업정단말	045028198064	이	서
20110113	정규장	3000	키움증권	국민은행24		3000	6400	HTS	183098074129	정	서
20110113	정규장	3000	하나금융	울산		6960	6850	영업정단말	159003046085	이	서
20110113	정규장	3000	유진증권	분 당		3000	6400	영업정단말	191100229046	이	서
20110113	정규장	2629	키움증권	국민은행24		5000	6380	HTS	183098074129	이	서
20110113	정규장	2071	삼성증권	삼성타운금융2		2100	6840	부선단말	110069181192	김	서
20110113	정규장	2000	유진증권	분 당		10000	6300	영업정단말	191100229046	박	서
20110113	정규장	2000	삼성증권	남동산		5000	6700	영업정단말	045028198064	박	서
20110113	정규장	2000	현대차증권	복합산지점		2000	6710	HTS	118234082209	김	서
20110113	정규장	2000	키움증권	동업4		2000	6500	HTS	180227174096		서
20110113	정규장	2000	신한투자	신한은행		3000	6760	HTS	119207246157		서
20110113	장종료후	2000	KB증권	대전PB센터		2000	0	HTS	172030088154	김	서
20110113	정규장	1929	하나금융	국민은행Cyber		2000	6500	HTS	219255001009	김	서
20110113	정규장	1789	KB증권	대전PB센터		2000	6850	HTS	172030088154	김	서
20110113	정규장	1757	키움증권	동업4		2000	6830	HTS	180227174096	정	서
20110113	정규장	1756	미래에셋	성서WM		3473	6550	HTS	210109153129	정	서
20110113	정규장	1744	유진증권	분 당		2000	6070	영업정단말	191100229046	정	서
20110113	정규장	1732	한화투자	고려지원팀		4000	6500	HTS	110015046178		서
20110113	정규장	1700	신한투자	명준		1700	6410	HTS	211177034034	김	서
20110113	정규장	1671	유안타증권	Financetub강1		1701	6540	HTS	058102027003	이	서
20110113	정규장	1663	하나금융	마포WM센터		4000	6560	HTS	218049097218	안	서
20110113	정규장	1661	KB증권	대전PB센터		2000	6800	HTS	172030088154	박	서
20110113	정규장	1629	유진증권	분 당		7000	6200	영업정단말	191100229046	정	서
20110113	정규장	1624	키움증권	동업4		1997	6660	HTS	121163027044	정	서

- 서 (서 ) 명의의 유진증권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서 (서 )은 2011. 1.경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으로 집중 매수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서 (서 ) 명의 유진증권 계좌( ) 도이치모터스 거래 내역 정리

날짜	매도		매수		입고 수량	잔고 수량
	수량	금액	수량	금액		
2011-01-06			3,282	15,294,120		8,282
2011-01-10			1,718	9,411,660		10,000
2011-01-11			14,228	78,488,760		24,228
2011-01-13			25,772	162,913,600		50,000
2011-01-17			90,000	578,006,680		140,000
2011-01-18			24,244	170,414,660		164,244
2011-01-19			16,226	107,774,010		180,470
2011-01-20	470	3,327,600	1,898	13,096,200		181,898
2011-01-21			22,102	152,461,110		204,000
2011-01-26	39,000	272,310,000				165,000
2011-01-27	2,000	12,140,000	137,000	849,433,660		300,000
2011-01-31	20,000	135,580,000				280,000

○ 특히, 앞서 살펴본 주가 분석과 비교하여 보면, 서 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집중 매수한 2011. 1. 6.경, 같은 달 10.경, 같은 달 11.경, 같은 달 13.경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고,

- 블랙스톤 인수 소동 이후인 2011. 1. 27.경에도 무려 8억 5,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하여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으로 집중 매수하였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 뿐만 아니라, 서 (서 ) 명의의 유진증권 계좌에서 아래와 같이 각 시기에 고가매수 및 물량소진 주문이 다수 확인되고 있는바,

연월일	종목명	종류	수량	단위	매수금액	매입비율	거래시간	이상매매유형
011-01-07	유진증권	분당		서	1,639	0	14:16:07	고가매수
011-01-07	유진증권	분당		서	1,660	0	14:24:42	고가매수
011-01-07	유진증권	분당		서	1,671	0	14:25:58	고가매수
011-01-07	유진증권	분당		서	1,728	0	14:35:06	물량소진
011-01-11	유진증권	분당		서	1,242	0	10:23:30	물량소진
011-01-11	유진증권	분당		서	1,248	0	10:24:33	고가매수
011-01-13	유진증권	분당		서	305	0	09:15:35	허수매수
011-01-13	유진증권	분당		서	306	0	09:15:42	허수매수
011-01-13	유진증권	분당		서	308	0	09:15:47	허수매수
011-01-13	유진증권	분당		서	428	0	09:34:55	물량소진
011-01-13	유진증권	분당		서	485	0	09:40:01	허수매수
011-01-13	유진증권	분당		서	517	0	09:42:28	고가매수
011-01-13	유진증권	분당		서	547	0	09:44:18	고가매수
011-01-13	유진증권	분당		서	1,009	0	09:55:09	고가매수
011-01-14	유진증권	분당		서	7,171	0	14:13:19	고가매수
011-01-14	유진증권	분당		서	7,662	0	14:35:51	고가매수
011-01-14	유진증권	분당		서	7,679	0	14:36:37	고가매수
011-01-14	유진증권	분당		서	7,697	0	14:37:36	고가매수
011-01-14	유진증권	분당		서	7,716	0	14:38:14	물량소진
011-01-17	유진증권	분당		서	1,900	0	09:57:31	고가매수
011-01-17	유진증권	분당		서	2,008	0	10:05:38	고가매수
011-01-18	유진증권	분당		서	2,412	0	14:27:32	물량소진
011-01-19	유진증권	분당		서	368	0	09:20:09	물량소진
011-01-19	유진증권	분당		서	956	0	10:48:39	물량소진
011-01-19	유진증권	분당		서	2,318	0	14:28:35	고가매수
011-01-25	유진증권	분당		서	4,195	0	09:27:23	고가매수
011-01-25	유진증권	분당		서	6,685	0	10:08:29	물량소진
011-01-25	유진증권	분당		서	10,626	0	11:55:19	고가매수
011-01-25	유진증권	분당		서	12,944	0	14:25:20	물량소진
011-01-27	유진증권	분당		서	2,222	0	12:12:03	허수매수

○ 2011. 1.경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급등한 또 하나의 원인은 (손 )의 대량·집중매수입니다.

○ 손 가 운용한 (주) 명의의 SK증권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해 보면, 손 역시 2011. 1.경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으로 집중 매수하였고, 손 의 경우에는 서 (서 )이 대량매수를 하지 않아 주가가 하락 하는 날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 [redacted] 명의 SK증권 계좌( [redacted] 도이치모터스 거래내역 정리						
날짜	매도		매수		입고	잔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수량
2011-01-17					574,365	574,365
2011-01-19			30,424	215,607,170		604,789
2011-01-21			5,461	37,288,840		610,250
2011-01-25	4,000	26,865,820				606,250
2011-01-26			5,399	37,355,540		611,649
2011-01-27			88,396	562,441,430		700,045

○ 뿐만 아니라,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역과 같이 손 [redacted] 는 이 시기에 다수의 이상매매주문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전처 허 [redacted]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서도 이상매매주문을 제출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하기도 하였습니다.

○ 나아가 김 [redacted] 은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 이 [redacted] 민 [redacted]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김 [redacted] 은 자신의 명의 계좌를 이용하였습니다.

일련	날짜	종목명	종류	수량	금액	입금	출금	잔액
4689	2011-01-03	허수매수	디에스	강남셀러		이	김	로
4690	2011-01-03	허수매수	디에스	강남셀러		이	김	로
4691	2011-01-03	허수매수	디에스	강남셀러		이	김	로
4692	2011-01-03	허수매수	디에스	강남셀러		이	김	로
4693	2011-01-03	허수매수	디에스	강남셀러		이	김	로
4696	2011-01-04	허수매수	디에스	강남셀러		이	김	로
4697	2011-01-04	허수매수	디에스	강남셀러		이	김	로
4698	2011-01-04	허수매수	디에스	강남셀러		이	김	로
4699	2011-01-04	허수매수	디에스	강남셀러		민	김	로
4700	2011-01-04	허수매수	디에스	강남셀러		이	김	로
4701	2011-01-04	허수매수	디에스	강남셀러		이	김	로
4702	2011-01-04	허수매수	디에스	강남셀러		이	김	로
4703	2011-01-04	허수매수	디에스	강남셀러		이	김	로
4704	2011-01-04	허수매수	디에스	강남셀러		민	김	로
4705	2011-01-04	허수매수	디에스	강남셀러		이	김	로
4706	2011-01-04	허수매수	디에스	강남셀러		민	김	로
4707	2011-01-04	허수매수	디에스	강남셀러		민	김	로
4708	2011-01-04	분할소진	디에스	강남셀러		민	김	로
4709	2011-01-04	동가판여	디에스	강남셀러		이	김	로
4710	2011-01-05	허수매수	디에스	강남셀러		이	김	로
4712	2011-01-05	허수매수	디에스	강남셀러		이	김	로
4713	2011-01-05	허수매수	디에스	강남셀러		민	김	로
4714	2011-01-05	허수매수	디에스	강남셀러		민	김	로
4715	2011-01-05	허수매수	디에스	강남셀러		이	김	로
4716	2011-01-05	고기매수	디에스	강남셀러		이	김	로
4767	2011-01-20	동가판여	디에스	강남셀러		이	김	로
4769	2011-01-21	분할소진	디에스	강남셀러		이	김	로



○ 또한, 다른 전화 녹음파일에 의하면, 김 [redacted] 은 2011. 9. 6.경 및 9. 14.경 민 [redacted]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종가관리를 하다가 거래소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전형적인 주가하강기의 매매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 [redacted] 의 2011. 9. 16.자 전화 녹음파일 중 일부 발췌]

김 [redacted] 아, 잠깐. 다름이 아니고 민 [redacted] 계좌, 위 또 종가 관여했다고 그랬다고 하는데,  
 DS직원 [redacted] 네, 네.  
 김 [redacted] 그날 결제대금이 없어가지고 시간외종가까지 팔았거든.  
 DS직원 [redacted] 예.  
 김 [redacted] 그거, 그거 매수를 어떻게...  
 DS직원 [redacted] 시간외종가 매매했던 것 말고요.  
 김 [redacted] 예.  
 DS직원 [redacted] 여기서 해당되는 거는 그 특정 주문의 수량이거든요. 종가를 변동시켰던 수량이,  
 김 [redacted] 예.  
 DS직원 [redacted] 600주인데 그것 때문에 적출이 된 거예요.  
 김 [redacted] 예, 예.  
 DS직원 [redacted] 9월 6일하고 9월 14일.

○ 특히, 당시 김 [redacted] 은 솔로몬투자증권이나 유리치투자증권 등을 다니면서 위와 같이 쏟아져 나오는 물량 수급을 부탁하였는데, 권오수는 위와 같은 수급 상황을 이 [redacted] 와 민 [redacted] 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메시지	발성	발신	생성 일시 : 2011-09-05 14:04:19 읽은 일시 : 2011-09-05 14:04:19	내용 : 지금 여의도 7 하이간 권 사장님 만나고 오셨는데 민 [redacted] 업데이트가 있어야	8210	
메시지	발성	발신	생성 일시 : 2011-09-05 14:06:00 읽은 일시 : 2011-09-05 14:06:00	내용 : 전화라도 좀 주시지.	8210	
메시지	발성	수신	생성 일시 : 2011-09-05 14:06:24 읽은 일시 : 2011-09-05 14:06:24	내용 : 도모는 보도자료도 못내고... 그래도 잘될꺼.		번호 : +8210

○ 뿐만 아니라, 김 [redacted] 은 위와 같이 수급세력을 동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쏟아져 나오는 물량을 통제하기 위해 권오수가 컨트롤하고 있는 주식 물량 확인을 요청하였고,

- 권오수는 이 [redacted] , 정 [redacted] 등 주변 지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이 [redacted] , 민 [redacted] 을 통해 김 [redacted] 에게 알려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메시지	발성	수신	성성 일시 : 2011-09-07 14:25:24 읽은 일시 : 2011-09-07 14:25:24	내용 : 김주변 이 동등도모수당 장구 알려주셈		번호 : +821
메시지	발성	발신	성성 일시 : 2011-09-07 14:27:48 읽은 일시 : 2011-09-07 14:27:48	내용 : 우리 쪽은 토러스 포함 약 50 만개 정도 내역은 회장님 삼성에 13만주 나머지 포함 등 1~2만주가 몇 분	B210	
메시지	발성	발신	성성 일시 : 2011-09-07 14:28:59 읽은 일시 : 2011-09-07 14:28:59	내용 : 이 동 주요 주주는 확인해서 말씀 드릴게요.	B210	
메시지	발성	발신	성성 일시 : 2011-09-07 14:29:56 읽은 일시 : 2011-09-07 14:29:56	내용 : 그리고 김 대표나 부장들 해서 다 짚쳐 봐여 1~2만주	B210	
메시지	발성	발신	성성 일시 : 2011-09-07 14:30:32 읽은 일시 : 2011-09-07 14:30:32	내용 : 권사장 주변 주식 좀 파악 해달라 는데요 지금.	+821	
메시지	발성	발신	성성 일시 : 2011-09-07 14:36:17 읽은 일시 : 2011-09-07 14:36:17	내용 : 이 75 정도 쯤 100 정도 그거 말고는 권한데 주식 들어 보거나 하는 사람은 없다고 함 두개는 만나올듯할꺼라고 하고.	B2107	

- 권오수가 김 [ ]에게 주가관리를 의뢰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자신이 컨트롤하고 있는 주변 물량을 알려 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 김 [ ]은 위 주가 하락기에 권오수는 '뭐 잘 안돼나', '그것 뿐이 못하나', '꼭 내가 도와야 되나, 시원하게 좀 못하나', '이래가지고 언제 만원 가냐'라는 말을 하면서 김 [ ]의 주가부양 또는 주가하락 방지를 독려했으며,

- 또한, 이 [ ]는 김 [ ]뿐만 아니라 자신도 권오수에게 '도이치모터스는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어렵다. 주식을 한번 사면 팔지 않을 사람을 소개해줄 수 있냐'고 하는 등으로 여러 번 주식 매수를 부탁하였고 권오수는 얼마 정도 사주겠다거나 주변에 알아보겠다라는 반응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 이와 같은 권오수의 언동은 권오수가 김 [ ]의 시세조종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것이라고 봄이 상식에 부합합니다.

○ 권오수와 김 [ ]은 해외자본 유치에 어려워지자 국내자본을 유치하기로 하고, 2011. 12. 20.경 산업은행을 상대로 25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는데,

-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하기 위해서는 주가를 최대한 상승시킬 필요가 있었고, 실제로 2011. 10. 11.경 4,295원이었던 주가가 2011. 12. 22.

15) 구체적인 내용은 2021. 10. 22.자 이 [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7회) 참조

경 6,350원까지 2개월 사이에 급격히 상승하였습니다.

- 그리고, 호가장을 통해 위와 같이 주가가 급격히 상승한 이유를 분석한 결과,
  - 시세조종에서 시세상승기에 자주 이용되는 이상매매 주문인 고가매수 및 물량소진 주문이 집중적으로 제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 특히, 2011. 10. 12.경부터 2011. 12. 2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시세조종에 동원된 계좌들에서 무려 13억 3,000만원 상당의 고가매수주문이 나온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4. 4구간 ('11.10.12. - '11.12.22.) 35명(45개 계좌) 매매현황

구분	계좌번호	종목명	종목코드	종류	호가주문			합계			시세조종			계좌합계					
					매수	매도	잔량	매수	매도	잔량	매수	매도	잔량	매수	매도	잔량			
1	000001	삼성전자	005930	주식	10	1,000	1,000	10	1,000	1,000	10	1,000	1,000	10	1,000	1,000	10	1,000	1,000
35	000035	삼성전자	005930	주식	10	1,000	1,000	10	1,000	1,000	10	1,000	1,000	10	1,000	1,000	10	1,000	1,000
합계					10	1,000	1,000	10	1,000	1,000	10	1,000	1,000	10	1,000	1,000	10	1,000	1,000

- 이에 대해 권오수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 [redacted] 은 위와 같은 상황을 이 [redacted] 민 [redacted] 을 통해 지속적으로 권오수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 특히, 아래 문자메시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에 김 [redacted] 이 민 [redacted] 을 통해 권오수에게 자전거래를 요청한 점에 비추어 보면, 권오수는 계속하여 이 사건 시세조종에 관여하고 있었던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메시지	합성	수신	성성 일시 : 2011-11-23 14:25:49 읽은 일시 : 2011-11-23 14:25:49	내용 : 도모 10만개정도 받는데있을까? 권사장님 주변에?	번호 : +82U
메시지	합성	발신	성성 일시 : 2011-11-23 14:26:40 읽은 일시 : 2011-11-23 14:26:40	내용 : 전 밖에 있고, 회장님께 여쭙셔야	B21C

○ 2011. 12.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이후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계속하여 하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당시 권오수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약 31.34%에 해당하는 2,697,862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반대매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 2011. 12. 20.경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분리형 신주인수권(BW)의 행사 가격 결정을 위해서도 주가 관리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 이처럼 주가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주가 하락 방어를 위해 종가관리의 방법이 자주 이용되는데, 김 익 익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호가장 등에 의하면, 권 오수가 김 익 익의 요청에 따라 주변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해 준 사실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차별	이름	날짜	내용
발신	김 익	2012-05-10 PM 03:34:06	내일 호가에서 디스카운트해서 등록할꺼니 안전하워도 되나 얼마일지는 몰라도 최소 4500이상인 실테니 손절할 수시있으면 20만개 안 구해봐
수신	김 익	2012-05-18 PM 03:03:15	반부장하고 내가 마지막으로 종가관리합니다
수신	김 익	2012-05-21 AM 08:36:26	오늘 호가에 책도 또 빠지면 더 낮아 살텐데
수신	김 익	2012-05-21 AM 08:39:49	공물호가 확인하고 이거로 했는데 오늘 갑자기 떨어졌다는 건가요?
수신	김 익	2012-05-21 PM 02:49:46	금요일 반부장이 종가관리 했으니 오늘은 팔아 해오어님 여기저기 반대매매 다 되거나오겠어요
수신	김 익	2012-05-21 PM 03:03:55	이제 호가관 리면 난 매입하겠네
수신	김 익	2012-05-21 PM 03:51:31	내일은 시초부터 주가 프리스탈꺼요 오늘보다 최소 호가가 7%이상되어 반대 매매면나
발신	김 익	2012-05-29 PM 04:48:21	오늘 결제해서 내일부턴 등록부신서도 들어온데 호가가 5천원면 넘기면 185투자자문에 등록부신고 x에청대로 진행
수신	김 익	2012-05-29 PM 04:50:39	종가오전등록 언제 누가 넘겨요?
수신	김 익	2012-05-30 PM 03:33:55	그날의 계약은 365일 합니까 제대로 먼저 한번도 없으면서 어떻게 종가관리도 안되는
발신	김 익	2012-05-30 PM 03:37:06	

○ 그럼에도 주가가 계속하여 흘러내리자 김 익 익과 공범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대량매집을 부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 심지어는 자전거래를 동원하여 주가를 방어하려고까지 하였습니다.



방	이름	날짜	내용
수신	이 기 사장님	2012-05-20 PM 08:40:28	자진돌았나요 전화 부탁 올긴 하시면
수신	이 기 사장님	2012-05-30 PM 03:33:57	계 열어 뭘니까 여러다 자진 돌린다고 사친원 근처나 말도 해려는거 아닙니까 이제
발신	이 기 사장님	2012-05-30 PM 03:37:06	주가 삽어해서 자진돌릴 생각없고 자진가는 용가 5천원이상에서 4600원이고, 30만주. 중국투신에선 사장분의있다니 조금 기다려봐 여지. 대구은행은 금요일 1일부의 공시 영접가서. 바로 공시할께고.
수신	이 기 사장님	2012-05-30 PM 03:39:01	자진돌파 정확히 주셔요 이제라도 어떤 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습니다 아무도
수신	이 기 사장님	2012-05-30 PM 03:49:24	중국 언제 살지 모르는 거고 대구 영접한다고 당 공시 언니고 공시 날들 주가는 모르는 거고 어쩌면 또 계속 오를거고. 그렇게 생각 안하려고 해도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왜냐하면 아주 작은 부분도 지켜내지 못하니 권요 최소한의 손거도 어떤 사소한 부분도 외부요인의 대단한 변화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주식이 되 었으니깐요 어쩌면 지득관 불확실성 때문에 주체조차 이관사소한 부분도 섣뜻 나서지 못하는 거겠지만요 정말 확실 하다면 자진 날짜 대구 공시 날짜 주셔요 반대때에 약을 담보 또는돈 구하는데 할용하게 부탁드립니다 확정한내용으로요
수신	이 기 사장님	2012-05-30 PM 04:13:12	정 저도 없애 보여야 나름비밀 거 아닙니까 담보 러도구하려면 자진 일정 과 계약
수신	이 기 사장님	2012-06-04 PM 03:11:07	오늘?그럼내일공시? 1차 자진과 증자는 허투르될까요?
수신	이 기 사장님	2012-06-07 PM 01:12:22	나는지금돈들손여주어있는게아니잖아자진들어가면돈갈다줄께요
발신	이 기 사장님	2012-06-08 PM 03:12:09	권드로는 자진 안들어갔네
발신	손 회장님	2012-06-21 PM 01:37:02	방신 도어차 자진은 785와 대부투자자문에 이어기렸구요. 지금 교보. 알정체크에서 연락올리세요.
발신	손 회장님	2012-07-03 AM 11:38:56	일 4천원에 거래서 자진 5천개들어간입니다. 도요 일부 피살하면 4천원에 5천개 재가 이어가드틀때 빠리면 될것같아요. 아깝기는한 데.
발신	김	2012-07-25 AM 08:33:13	혹자친한 기업분할 의지유치 사파어어영곳 열지어노력 남용. 사파어어테크놀로지 보다 매출늘어남. 주가는 1/10
발신	김	2012-09-10 AM 10:29:33	지-금 지난주부의 자진한그있신요어

○ 구체적으로, 김 이 2012. 7. 25. 08:30경 권오수에게 '여기서 주가가 더 밀리 면 말씀드릴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워집니다. 내일 리포트발간되오니 김 고객님이나 혹시 주변에 플라실분있으시면 조금씩 방어라도 해주세요'라고 하였고,

번호	유형	이름	보낸 사람	받는 사람	날짜	내용
7858	MMS	발신 권오수및동아대표님	OK	OK	2012-07-24 PM 01:01:58	사장님 여개 말씀드려서 이회장님한테 이어기않겠습니다. 다만 주기가 이할거 풀려 버려면 회사성장성에도 불구하고 모든게 바로잡기가 힘어 베포들어도 어려워질것 같아 궁여지책으로 말씀드려드립니다.
7955	MMS	발신 권오수및동아대표님	OK	OK	2012-07-25 AM 08:30:24	사장님, 여기서 주가가 더 밀리며 말씀드린대로 여러가지 측면에서 어려워집니다. 내일 리포트발간되오니 김 고객님이나 혹시 주변에 플라실분있으시면 조금씩 방어라도 해주셔요.

- 같은 날 09:12경 2011. 3. 30. 이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하지 않던 김건희 명의 한화투자증권 계좌에서 돌연 1,500주의 매수 주문이 제출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7. 31.경까지 총 9,635주를 매수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 권오수 역시 김건희에게 직접 연락하여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종목명	일자	교보코드	호가접수	매도액	회원	지점	계좌번호	호가수량	호가가격	위탁자사	주문매수	주문자식별명	세선ID	현대가	누적매	누적거래	계좌명
(주)도이치모터스	20120725	정규장	091227322	매수	한화투자	대치센트럴지점		500	3700	위탁매매	영업점단위	172030004007	협속	3840	0	0	김건희
(주)도이치모터스	20120725	정규장	091236564	매수	한화투자	대치센트럴지점		500	3720	위탁매매	영업점단위	172030004007	협속	3840	0	0	김건희
(주)도이치모터스	20120725	정규장	091247623	매수	한화투자	대치센트럴지점		500	3740	위탁매매	영업점단위	172030004007	협속	3840	500	1870000	김건희
(주)도이치모터스	20120725	정규장	091310147	매수	한화투자	대치센트럴지점		500	3760	위탁매매	영업점단위	172030004007	협속	3840	500	1880000	김건희
(주)도이치모터스	20120725	정규장	091329741	매수	한화투자	대치센트럴지점		500	3750	위탁매매	영업점단위	172030004007	협속	3840	500	1875000	김건희
(주)도이치모터스	20120725	정규장	092420377	매수	한화투자	대치센트럴지점		500	3730	위탁매매	영업점단위	172030004007	협속	3755	0	0	김건희

○ 뿐만 아니라, 2012. 8. 8.경 김 [redacted] 이 인스프리트 직원이었던 권 [redacted] 에게 '원사  
 장 주변에서 내일 살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아들이름으로도 조금 산  
 다니'라고 하였는데,

상태	번호	발신	수신	발신	수신	세팅번호	번호	발신	수신	발신	수신	보낸 시각	날짜	서체	내용
정상	7313	수신	문자	권	김	010		1:1메시지	김	010		2012-08-08 PM 04:10:42	2012-08-08 PM 04:10:42		권대표님은 언제부터 사시는거예요?
정상	7314	발신	문자	김	010			1:1메시지	김	010		2012-08-08 PM 04:12:11	2012-08-08 PM 04:12:11		여아 내일
정상	7315	발신	문자	김	010			1:1메시지	김	010		2012-08-08 PM 04:12:27	2012-08-08 PM 04:12:27		권오수가 사는지 아니고 권사장 주변
정상	7316	발신	문자	김	010			1:1메시지	김	010		2012-08-08 PM 04:12:42	2012-08-08 PM 04:12:42		아들이름으로도 조금 산다니!
정상	7317	수신	문자	김	010			1:1메시지	김	010		2012-08-08 PM 04:13:17	2012-08-08 PM 04:13:17		네 알겠습니다. 상무님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좀 움직이게네요
정상	7318	수신	문자	김	010			1:1메시지	김	010		2012-08-08 PM 04:14:29	2012-08-08 PM 04:14:29		대지락으로 내일 일한주에 잡는다는건 권대표님 주변이죠?
정상	7319	발신	문자	김	010			1:1메시지	김	010		2012-08-08 PM 04:14:45	2012-08-08 PM 04:14:45		음

- 호가장에 의하면, 2012. 8. 9.경 위 김건희 명의 한화투자증권 계좌에서 도이  
 치모터스 주식 10,000주를 매수하고,

종목명	일자	종목코드	매수/매도	수량	가격	금액	수수료	계좌번호	발신	수신	발신	수신	보낸 시각	날짜	서체	내용
도이치모터스	20120809	000120	매수	10,000	4,100	41,000,000	100	172030004007	한화투자	김건희	010	010	2012-08-09 PM 14:21:00	2012-08-09 PM 14:21:00		도이치모터스 10,000주 매수
도이치모터스	20120809	000120	매수	10,000	4,100	41,000,000	100	172030004007	한화투자	김건희	010	010	2012-08-09 PM 14:21:00	2012-08-09 PM 14:21:00		도이치모터스 10,000주 매수

- 2012. 8. 23.경에는 권오수의 아들 권 [redacted] 명의 미래에셋대우 증권 계좌에서  
 14:21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10,000주를 매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종목명	일자	종목코드	매수/매도	수량	가격	금액	수수료	계좌번호	발신	수신	발신	수신	보낸 시각	날짜	서체	내용
도이치모터스	20120823	000120	매수	10,000	4,415	44,150,000	100	172030004007	미래에셋	권오수	010	010	2012-08-23 PM 14:21:00	2012-08-23 PM 14:21:00		도이치모터스 10,000주 매수
도이치모터스	20120823	000120	매수	10,000	4,415	44,150,000	100	172030004007	미래에셋	권오수	010	010	2012-08-23 PM 14:21:00	2012-08-23 PM 14:21:00		도이치모터스 10,000주 매수

○ 이에 대해 권오수는 '대주주의 역할을 하기 위해 매수한 것'이라고 하면서, 김 이 '혹시 주변에 물타실 분 있으면 조금씩 방어라도 해주세요'라는 부탁도 그 이유 중에 하나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거래 외에도,

- ① 2012. 8. 22.경 도이치모터스 직원 안 명의 유안타증권 계좌로 9,717주를 매수하고, ② 2012. 8. 24.경 권오수의 최측근인 이 이 이 의 모 심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10,000주를 매수하였으며, ③ 같은 날 도이치모터스 직원 유 명의 미래에셋대우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9,600주를 매수하였는바,

- 이 와 민 의 문자메세지와 같이, 당시 권오수는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무리할 정도로 직접 움직임을 보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메시지	발성	수신	성성 일시 : 2012-08-05 20:38:04 읽은 일시 : 2012-08-05 20:38:04	내용 : 거래 없었다		번호 : +8211
메시지	발성	발신	성성 일시 : 2012-08-05 20:39:02 읽은 일시 : 2012-08-05 20:39:02	내용 : 근데 권이 급하긴 무척 급한거 같아요. 난 무리스럽게 움직임을 보이네요	+821	
메시지	발성	수신	성성 일시 : 2012-08-05 20:41:09 읽은 일시 : 2012-08-05 20:41:09	내용 : 권이 저 앞이다 내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들다. 통폐업결되면 저덕에 언젠가 호프현진 하자고		번호 : +8211



#### IV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 1. 권오수, 이 , 김 , 김 의 공모관계

###### ㉠ 권오수, 이 , 김 의 공모관계

###### 1. 권오수가 2009. 가을 이 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매수 의뢰

- 권오수는 2009. 11.경 이 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매수를 의뢰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그 자세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 은 2009. 가을 오크우드 호텔 맞은편에 있는 '메썸'이라는 사설 선물투자소에서 도이치모터스 대표인 권오수를 처음 만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 그 무렵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떨어져 주주들의 압박에 시달리던 권오수가 주식 전문가를 자처하던 이 에게 '주식을 좀 사달라', '(필요한 자금을) 최대한 맞춰주고, 2010. 2.경 도이치모터스 주식 100만 주를 담보로 주겠다'며 도이치모터스 주식매수를 통한 시세조종 의뢰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 2021. 9. 23.자 이 피의자신문조서 중

문 권오수를 처음 만난 것이 2009. 8.하순경 내지 9. 초순경이 맞는가요

답 그 때쯤.. 2009. 10.경... 아무튼 가을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은 아니었습니다.

문 그리고, 처음에는 권오수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좋으니 사라고 했는데, 당시 가지고 있는 계좌들이 있어서 조금 사 보았는데 주가가 올라갔고, 그래서 권오수가 피의자가 주식을 사서 주가가 오른 것을 보고 메썸에 있는 방 한 곳으로 불러(당시 같이 카드를 치던 이 기 함께 따라 들어갔던 것 같음), '이 회장이 주식 좀 사줘'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맞는가요

답 네, 그렇게 이야기 한 것이 맞습니다.

문 그래서 피의자는 '그냥 사기만 하면 주가가 바로 올라간다, 그러면 조금만 팔아도 주가가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나중에 팔기 힘들다'하면서 거절을 하였음에도, 권오수가 '대구에 있는 슈퍼개미인 가로수 사장(정 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

는데 주가가 떨어지니 압박이 들어온다. 그리고 AK펀드가 회계열람 신청까지 하면서 압박하고 있어서 힘들다', '최대한 맞춰 줄테니, 정 안되면 2010. 2.경에 보호예수가 풀리면 주식 100만주를 담보로 줄게'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인가요

답 네, 그 것 역시 사실입니다.

○ 이에 이 은 2009. 11.경 ~ 2009. 12.경 권오수의 의뢰에 따라 전 전 이 동 수급팀을 동원하여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21. 9. 23.자 이 피의자신문조서 중

문 그런데 위 자필진술서에 의하면, 피의자는 2009. 11. 말경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였다고 하였고, 전 이 동원한 계좌에서는 2009. 12. 24.경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 주문이 나오는데, 2009. 11. 말경부터 2009. 12. 말경까지는 누구에게 수급을 의뢰하였던 것인가요

답 전 전 ,이 에게 부탁을 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탁을 했었던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2. 권오수가 2010. 1. 이 에게 양 김건희, 김 를 소개

○ 이후 권오수는 2010. 1.경 이 에게 약속한 주식 100만 주를 주는 대신 도이치모터스 주주들인 양 김건희, 김 를 소개해주며 이 로 하여금 그들의 주식을 가지고 계속 도이치모터스 주가부양을 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2021. 9. 23.자 이 피의자신문조서 중

문 또한, 당시 권오수가 AK펀드는 알아서 하겠다고 하여 해결이 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AK펀드에서 물량이 터져나왔고, 그러다가 2010. 2.경까지 권오수가 담보를 제공해 주지 않고 있어서, 권오수에게 '이런식이면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하였더니, 권 오수가 양 김건희, 김 를 소개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인가요

답 네, 맞습니다. 근데 2010. 2.경이 아니고 2010. 1.경인 것 같습니다.

문 왜 그렇게 기억을 하는 것인가요

답 제가 본격적으로 주식을 사주고 한 것인 2009. 12.경과 2010. 1.경인 것 같습니다. 그 래서 만난 것은 2010. 1.경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 이후 이 은 2010. 1.경부터 권오수로부터 소개받은 양 , 김건희 등의 계 좌를 이용하여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21. 9. 23.자 이 피의자신문조서 중

문 또한, 당시 권오수가 AK펀드는 알아서 하겠다고 하여 해결이 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AK펀드에서 물량이 터져나왔고, 그러다가 2010. 2.경까지 권오수가 담보를 제공해 주지 않고 있어서, 권오수에게 '이런식이면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하였더니, 권 오수가 양 , 김건희, 김 를 소개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인가요

답 네, 맞습니다. 근데 2010. 2.경이 아니고 2010. 1.경인 것 같습니다.

(중략)

문 양 , 김 를 소개받은 상황에 대해 자세히 진술해 보겠는가요

답 제가 담보를 제공한다는 말을 믿고 주식을 샀는데도, 당시 상황이 제가 주식을 산 만큼 매도 물량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0. 1.경 권오수에게 담보를 제공해 달라고 독촉을 했더니, 권오수가 대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기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 했던 것 같고, 제가 주가를 많이 올리면 수익의 30~40%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중략)

문 김건희를 소개받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보겠는가요

답 권오수가 그 무렵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미니매장으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전화를 받 을 당시에는 김건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는데, 미니 매장에 가보니 김건희 가 있었습니다.

문 권오수가 김건희를 뭐라고 소개하던가요

답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주라고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 때 김건희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손해를 보고 있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문 계속 진술해 보겠는가요

답 김건희를 소개 받고, 권오수가 '회사가 우회상장해서 올라갔던 때보다 6,000원 이상 빠져있는데 그럴 이유가 없다. 지금은 코오롱 모터스가 1등인데 앞으로 코오롱보다 더 잘 할 것이고, 서비스센터도 이에 곧 오픈을 할 예정이다. 지금 도이치모터스 시총이 200억 원 정도 되는데 적어도 500억 원은 가야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권오수가 김건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랬더니 김건희가 그 자리에 '신한증권 계좌에 10억 정도가 있는데 주식을 사야겠네'라고 하면서 바로 신한증권에 전화를 하여 '앞으로 이           이라는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주문을 내면 받아줘라'라고 이야기 했던 것 같습니다.

○ 한편, 이와 같은 사실관계는, 이           이 제출한 양            작성 자필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과 김           의 진술로도 확인됩니다. 양           의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더라도, 2010. 1. 23. 권오수가 '이            (이           )에게 주식을 맡기면 잘 관리해줄 것이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며,

2011. 4. 1.자 양            사실 확인 진술서

도이치 모터스우회상장에 참여한 경위는 2008년 권오수 대표가 (주)도이치 모터스 회사 (BMW 딜러사) 사업을 시작한후, 단 한번도 흑자를 낸 적도 없고, 돈이 없어지는 것이 커피잔에 과자를 넣으면 녹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시장에 도이치 모터스가 흑자를 내지 못하니, 적상장은 어렵고, 우회상장을 하면, 앞으로 성장을 할 것이며 상장에 실패하면, 제가 투자한 원금에 이자를 20%를 주겠다며, 큰돈을 벌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 2010년 1월 23일에 권오수 대표가 저를 만나, 삼성 오크우드 호텔 5층 커피숍에 가 했습니다. 이           이란 사람이 있는데, 주식을 맡기면, 잘 관리해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에게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20억을 맡기면, 한달에 3억을 받는 시이 있을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고, 수수료도 이            대표가 50:50으로 하든 것을 70:30으로 주주 입장에서 적았으니, 만나 보자고 했습니다. 그곳에 가니, 도이치 모터스 주식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상장 주주인 김            대표도 나와 있었습니다. 이            대표가 약정서를 내밀기에, 제가 "형 (권대표님), 약정서를 사야 해?" 하니 권오수 대표는 "아니야, 약정서를 쓰고 싶지 않으면 쓰지마.. 네가 모든것을 책임질게"라고 했습니다. 권 대표가 며칠후 제사무선과 와서 계획

- 김 또한, 당시 권오수가 '증권계좌를 맡기면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하겠단'고 말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당시 권오수가 이 이계 도이치 모터스 주식 매수를 의뢰하고, 양 김건희, 김 를 소개해주며 그들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2021. 9. 15.자 김 진술조서 중

문 이 에 의하면, 2010. 2.경 권오수, 진술인, 이 , 양 등이 만난 자리에서 권 오수가 증권계좌를 이 에게 위탁하면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하겠단고 얘기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 했는데, 그런 사실이 있었나요

답 (위 자필 진술서 중 발췌한 부분을 보여주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권오 수가 소개했는데 신임이 가지 않았다는 그 사람이 이 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사 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더 생각해 보자고 했고 계좌를 위탁하지 않습니다. 이 이 계좌를 위탁하면 수수료를 얼마를 달라는 했습니다. 이 이라는 이름을 사용하 지 않고 영어 이름을 쓴 것 같습니다.

3. 김 범행 가담

○ 이 이 작성한 자필진술서에 의하면, 이 은 권오수로부터 코파트 정보를 얻 어서 계속하여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했고, 그 과정에서 솔로몬투자증권 법인 부의 김 과 권오수의 미팅을 주선해 주고, 그 이후 뉴스거리를 계속하여 생산 해 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후 계속하여 권오수 회장과 상의하여 주식을 관리하였습니다.(도이치주식) 어느덧 저에게 도 막대한 손실이 쌓이기 시작하였고 그래서 투자자들을 모아 도이치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 였습니다. 그 이유는 권오수 회장이 미국에 있는 코파트라는 회사와 일이 성사 단계니 너는 주식만 신경써라 코파트 계약이 성사되면 모든 일들이 잘될 것이며 저에게 권오수 회장이 컨 트를 할 수 있는 주주들의 수익을 저에게 30프로에서 40프로까지 나눠주겠다고 약속하며 계 속 도이치주식에 대하여 매수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솔로몬투자증권에 법인부 김 이사를 압구정동 굴비?에서 미팅을 주선하였 고 그 자리에서 많은 말들이 오고가며 권오수 회장님께서 많은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후 기



관의 매니저들이 (도이치모터스) 방문하였고 그 자리에 권오수 회장이 최 이사와 항상 동석하였고 저와 권오수 회장 상의하여 머니투데이 김 팀장을 소개하여 뉴스거리를 지속적으로 신문에 내었습니다.

- 또한, 위 자필진술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김 이 근무하던 솔로몬투자증권에서 도이치모터스 관련 리포트를 2010. 7. 21. 처음 발행하였는데, 이처럼 당시 김 은 이 의 범행을 알면서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하여 IR을 담당하였습니다.

### 심리분석결과 보고서 중 일부

#### [ 솔로몬투자증권의 동사 분석보고서 관련 기사 ]

<p><b>도이치모터스, BMW딜러 중 가장 성장성 높아 솔로몬</b></p> <p>독일주요기업   기사   2010.07.21   14:00</p> <p>솔로몬투자증권은 21일 도이치모터스가 국내 시장의 성장한 BMW 국내 딜러 중 가장 높은 성장성이 가장 높다고 밝혔다.</p> <p>이 연구원은 "도이치모터스는 BMW의 모든 사업을 지배하면서 미래 성장성이 국내 딜러업체들을 압도한다"며 이렇게 밝혔다.</p> <p>이 연구원은 수입 자동차 시장은 2015년에 시장규모를 10%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며 특히 도이치모터스가 하고 있는 승용차 사업의 성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p> <p>도이치모터스는 BMW지주사의 국내 최대 딜러업체인 M&amp;N을 포함 전체 BMW 딜러 중 도이치모터스에 여러 차례 2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8년 포스트 임체인 다트모터스와의 합병을 통해 우량상장 종목이 시판되는 그제 BMW MINI 한S&amp;M&amp;V Premium Selection A5로 나뉜다.</p> <p>이 연구원은 "가장 수입자 시장 확대는 곧 공적자 수입자 판매 확대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며 "BMW같은 자동차 판매업체도 꾸준히 업계를 선도할 전망이다."</p> <p>이 연구원은 "도이치모터스는 국내 유일의 진정한 자동차 대리업체라는 점과 BMW의 고급 사업에 참여하면서 미래 성장성이 국내 최대 딜러 업체들을 압도한다는 점에서 추가 상승이 예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p>	<p><b>도이치모터스, 한-EU FTA로 시장지배력 확대 솔로몬</b></p> <p>독일주요기업   기사   2010.07.22   14:00</p> <p>솔로몬투자증권은 22일 도이치모터스가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BMW의 시장 지배력이 커질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p> <p>이 연구원은 BMW의 연례권 신차 출시 늘어 도이치모터스 실적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p> <p>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962억 원(전년 대비 93.2% 증가)과 161억 200만 원(전년 대비 64.2%)을 기록하며 기록적인 실적 추이를 보였다며 3분기 영업이익 수익률이 큰 폭 상승할 것으로 BMW 신차출판과 M&amp;N의 실적적 판매 증가 추세 때문이라고 분석했다.</p> <p>이 연구원은 "BMW는 시장 점유율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3분기 매출에는 전년 대비 52%를 증가해 출시하면서 신차출판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며 "3분기 내내 신차 판매가 집중되면서 실적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실적들의 대기 수요는 여전히 2개월 이상 유지되고 있어 4분기 실적도 연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p>
---	--

### ② 이 , 김 김 의 공모관계

1. 이 이 2010. 5.경 내지 2010. 7.경 김 에게 주식매수 의뢰
- 이 은 2010. 5. ~ 7.경 당시 토러스증권 임원이던 김 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를 의뢰하고, 김 이 이를 승낙하였던 사실이 확인됩니다.

2021. 9. 8.자 이 [ ] 피의자신문조서 중

문 피의자는 김 [ ] 계게 도이치모터스 주식 대량 매수를 의뢰한 적이 있는가요

답 네, 맞습니다. 계좌를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문 계좌를 알아본 적이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요

답 김 [ ] 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줄 수 있는지 물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계좌를 가지고 있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문 그런 계좌를 가지고 있냐고 물어본다는 것은 김 [ ] 이 마음대로 종목을 선택해서 거래할 수 있는 계좌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답 네, 그런 뜻이었습니다.

2021. 9. 23. 이 [ ] 피의자신문조서 중

문 피의자는 지난 조사와 면담에서, 2010. 5.경 내지 2010. 6.경 김 [ ] 계게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살 수 있는 계좌를 구해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맞는가요

답 네, 그건 맞습니다.

문 피의자는 김 [ ] 이 먼저 30~40억 원 상당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 계좌를 동원할 수 있는데, 다만 그 대가로 2~3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맞는가요

답 김 [ ] 이 계좌를 구하려면 돈을 먼저 주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문 피의자에게 김 [ ] 을 소개해 준 김 [ ] 은, 피의자와 저녁식사를 하던 중 피의자가 김 [ ] 계게 '주식을 사줄 데가 있냐'고 물어보길래 그 자리에서 김 [ ] 계게 전화를 걸어 김 [ ] 계게 '주식 좀 사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그 옆에서 피의자가 거들 듯이 '대가 준다'고 해'라고 말하여 김 [ ] 계게 '대기도 준다'고 하는데'라고 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그건 아닙니다. 김 [ ] 이 바로 전화를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김 [ ] 이 자기와 친한 사람을 구했다고 해서 토러스 증권을 가서 김 [ ] 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김 [ ] 이 영동병원 이사장 계좌를 자기가 관리하는데, 이사장한테 40억 오케이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대가로 2~3억 원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 2. 김 의 주식매수 및 이 로부터 대가수수

○ 이후 김 은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 계좌인 김 , (주)케이엠씨로보틱스, (주)우리기술 등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하는 한편, 평소 알고 지내던 손 , 김 등을 수급팀으로 동원하여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하였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 피의자 김 과 불상자 전화녹음 발췌(2010. 08. 17.)

남 자1      아니, 그거는 한 달 전부터, 두 달 전부터 \*\*\*

김            (속삭이며) 도이치 사두세요.

남 자1      이슈가 없어서 그런 거지? 핫한.

김            이슈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 세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또 바로 가요. 그건 그렇고, (속삭이며) 도이치 좀 사보세요, 괜찮아.

남 자1      어?

김            (속삭이며) 도이치 사보시라고요.

남 자1      뭐라고?

김            (속삭이며) 도이치 사보시라고요, 조금씩 조금씩.

남 자1      뭐틀?

김            도이치, 도이치.

- 한편, 2010. 9. 무렵에는 김 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량이 54만 주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 2010. 9. 30.자 이 원금보장 각서 증

각서인은 각서인이 김 씨와 약속한 대로 2010년 9월 29일 이전에 누구의 명의라도 김 씨를 통해서 매수하게된 코스닥 등록 도이치모터스 (067990) 보통주 54만주에 대해서 2010년 9월 30일 이후에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매각을 하는 것에 동의하며, 매각차손이 발생할 경우 이 손실금

○ 한편, 김 은 위와 같은 도이치모터스 주식매수 대가로 이 로부터 현금 1억 원과 도이치모터스 주식 20만 주를 받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김 이 2010. 8. ~ 11. 사이에 이 로부터 최소 5,8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계좌거래내역 등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2010. 9. 13.자 이 각서 중**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관련해선 투자자섭외 보수로 주기로한 1억원중 **기지급한 2천만원**을 제외한 8천만원과 금일

**2010년 김 금품 수수 관련 계좌거래내역**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번호	거래일시	거래내역	과목	출금액	입금액	거래금액	잔액	상대계좌주	상대계좌번호	상대은행
국민은행	김		2010-08-27 15:21:53	전자금융	김	-	10,000,000	10,000,000	10,100,700	김		000
국민은행	김		2010-09-07 09:18:27	다발환	김	-	10,000,000	10,000,000	10,004,300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번호	거래일시	거래유형	거래내역	비고	입금액	출금액	거래금액	잔액	거래일(연사)	상대계좌주	상대계좌번호
국민은행	김		2010-10-11 12:55:13	현금외입금	전자금융	○	5,000,000	5,000,000	5,010,918	농협0026	○		
국민은행	김		2010-10-11 12:57:36	현금외입금	전자금융	○	5,000,000	5,000,000	10,010,918	신원은행0413	○		
국민은행	김		2010-10-15 14:31:52	현금외입금	전자금융	○	5,000,000	5,000,000	5,009,918	흥조기업0494	○		
국민은행	김		2010-10-18 15:02:18	현금외입금	타행환	○	5,000,000	5,000,000	5,009,918	흥조기업0012			
국민은행	김		2010-11-02 13:13:40	현금외입금	자기입	○	3,000,000	3,000,000	4,406,850	명동종합0753			
국민은행	김		2010-11-08 14:18:51	현금외입금	타행환	○	10,000,000	10,000,000	10,234,250	현대저축0106			
국민은행	김		2010-11-09 15:47:40	현금외입금	자기입	○	5,000,000	5,000,000	9,233,250	명동종합0753			

**2021. 9. 8.자 이 피의자신문조서 중**

문 계좌추적 결과에 의하면, 2010. 8. 27. 권 명의 계좌에서 김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이 이체되고, 바로 김 명의 계좌에서 김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이 이체되었는데, 이는 피의자가 김 에게 매수계좌 동원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원이 맞는가요

답 네, 김 이 약속을 지키라고 해서 준 것 같습니다.

문 그리고 2010. 9. 7.경 김 계좌에서 김 계좌로 1,000만원이 입금되는데 이 역시 피의자가 김 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인가요

답 그런 것 같습니다.

2021. 9. 23.자 이 [ ] 피의자신문조서 중

문 김 [ ] 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아래와 같이 2010. 10. 11.경부터 2010. 11. 9경까지 양 [ ] , 권 [ ] 육 [ ] 등의 계좌를 이용하여 김 [ ] 계계 합계 3,8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요

답 네, 모두 제가 송금한 것이 맞습니다.

○ 또한, 김 [ ] 이 7년 간의 수용생활을 마치고 사회 복귀한 직후인 2019. 12.말 위와 같은 도이치모터스 주식매수 대가 명목으로 이 [ ] 로부터 2,000만 원을 추가 수수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2021. 9. 23.자 이 [ ] 피의자신문조서 중

문 그럼 2010. 5.경 김 [ ] 에게 수급을 의뢰하고 지급하기로 했던 금원 중 2,400만원을 2019. 12.경에 지급한 것인가요

답 네, 그렇습니다.

2019년 김 [ ] 금품 수수 관련 계좌거래내역

고객명	계좌번호	거래일	거래시간	구분	거래금액	잔액	송금은행	상대계좌번호	거래내용	원금대체	비고
(주)씨엑스인베스트먼트		2019-12-03	10:00:26	출금	10,000,500	5,439,646	NH투자증권		인터넷	대체	김 [ ]
(주)아리온테크놀로지		2019-12-30	16:35:46	출금	14,000,000	2,133,645	NH투자증권		인터넷	대체	김 [ ]

3. 김 [ ] 의 범행 가담

○ 김 [ ] 은 이 [ ] , 김 [ ] 으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 ] , 김 [ ] 또한 법정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 증인신문조서]

답 예전에 이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좀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해서 저는 어차피 개인계좌를 관리 안 하니까,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지점 쪽에 있었던 분인데 이 형이 생각이 나서 연락을 한 겁니다.

문 이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줄 데가 있느냐고 말해서 김 씨가 생각나서 김 을 소개해 줬다는 이런 취지인 것이지요.

답 예.

문 이 는 알게 되고 조금 지나서 2010. 중순경 이 씨가 증인에게 주식 살 데 있다고 물어봤다고 하는데, 그때 이 씨가 대가를 주겠다고 하는 이런 말도 했었나요.

답 예, "주식 사면 자기가 좀 대가를 주겠다." 그렇게 말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여기에서 대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답 주식 사면 산 만큼 어느 정도 돈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 김 은 이 로부터 쥘도이치모터스 주식수급의뢰를 받아 2010. 5.경 30만 주 가량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 2010. 9. 13.자 이 의 김 에 대한 각서 내용으로 볼 때, 김 은 2010. 9. 13.까지 45만 주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달 30.자 각서에 의하면, 추가로 2010. 9. 30.경까지 총 54만 주를 매수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 이 , 김 은 2010. 8. 27. 및 9. 7. 합계 2,000만 원을 김 에게 송금하였는데, 위 2,000만 원은 위 주식 수급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합니다.

○ 또한 2010. 10. 18. 민 과 김 이 주고받은 문자메세지에서도 김 과 이 이 김 을 끌어들이는 내용이 확인되고 있고,

메시지	발성	발신	성성 일시 : 2010-10-18 16:56:48 받은 일시 : 2010-10-18 16:56:48	내용 : 오늘 업데이로는 없나요. 내일이 마감일인데	B210	
메시지	발성	발신	성성 일시 : 2010-10-18 19:09:18 받은 일시 : 2010-10-18 19:09:18	내용 : 이사님 내일 임포 들어 볼꺼주 권사장이구도 알 았다 구 말씀 드렸더니 이상하다고 권사장오늘 골프 대회로 새벽 부터 가서 지금 올라 왔다고 하시더라는데 김 이사가 정말 만나신건가. 이사님이 믿는 후배지만 참 험기 보세요.	B210	
메시지	발성	발신	성성 일시 : 2010-10-18 19:11:55 받은 일시 : 2010-10-18 19:11:55	내용 : 물론 며 이사님에게 피해는 연주시켰지만 그래도 판단 하시는데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B211	
메시지	발성	수신	성성 일시 : 2010-10-18 19:13:36 받은 일시 : 2010-10-18 19:13:36	내용 : 오전에 김 이도 회사에서 주문형에문나가 통화했 다고 들었으니.		번호 : +8210
메시지	발성	수신	성성 일시 : 2010-10-18 19:18:01 받은 일시 : 2010-10-18 19:18:01	내용 : 권사장이 골프왔는지는 모르겠고. 다만 정현영에 김 이 회장이 오늘 권오수가 조번하게하는 놓이나 알주지만 문 고를들었음. 자기도 권한대 주석사한소리들었다며.		번호 : +8211
메시지	발성	발신	성성 일시 : 2010-10-18 19:23:55 받은 일시 : 2010-10-18 19:23:55	내용 : 네. 허여간 제 이사님만 여러 저리 맞벌보자구요. 전 그냥 김 이사도 이 이런 일이 해서 이사님 꼬러드려 이 하는 이유가 있는거 여난가 해서 그동안 해 온것도 있고 전화할 해볼까요? 그런 사소한게 문 험합하고 지금 제 주신 어머기도 그렇고 잘 세상 모르겠어요. 권사장 온 안은거 같 은데 사모님이 주유소도 하시구 근태 또 알려 줬다고 하는 사체가 있고 정말 알다가도 모를일. 그러니까 저런 이사님 만 고 안전하게 움직이론게 최선. 그러니까 이사님 판단 잘 하 세어	B211	

○ 김 이 김 계게 '맹전 한푼 없이 내돈 다 쓰고 하다가 권한테 뺨당한건데' 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미스리 메신저 대화 내역)

- 이 과 김 이 김 계게 도이치모터스 주식 수급 의뢰를 하였고, 이에 김 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박 님의 말 :  
암튼 저도 일 잘 했을시에 보상 어떻게 받을건지 와부 짜지면 이회상님과 형님하고 얘기해 야 될거 같고  
 김 님의 말 :  
 그건 내가 책임져야쥐...ㅎㅎ  
 대박 님의 말 :  
 일단 시작버튼은 오늘 형님하고 이회상님하고 얘기하셔서 결성내주시기를  
 김 님의 말 :  
 근디 에스크로나... 뭐 맡겨놓거나.. 이렇게 나오시면... 어카지 할부나... 혹은 뵈가면서...ㅎ  
 대박 님의 말 :  
 그럼 없는거루 하지요 뭐  
 김 님의 말 :  
 원상...  
 ㅋㅋ  
 대박 님의 말 :  
우기때나 다른것도 보던 초기에 지원 안받으면 일 시작 안하잖아요. 마찬가지지요.. 저는 가  
뜩이나 지난번 처음 시작할때 맹전 한푼 없이 내돈 다 쓰고 하다가 권한테 뺨당한건데  
 김 님의 말 :  
 ㅎㅎㅎ  
보리굴비 먹었잖아...  
난 보리굴비도 못먹었어...

### ③ 이 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 1. 전 에 대한 수급 의뢰 및 EXIT

○ 한편, 참고인 전 의 진술 및 호가장 등에 의하면, 이 은 2010. 6.경 전 에게 손실보장 약정을 하고 전 으로 하여금 처 현 명의로 10 억 원 상당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였는바,

- 통상적으로 수급세력에게 수급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가 엑시트 할 때까지 주가를 관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은 위 전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도하는 2011. 4.경까지 지속적으로 범행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 2 관련 사건에서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관리 자백

○ 또한, 이 은 2013. 8.경 YNK코리아 대표이사 윤 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사실(서울중앙지검 2013형제86946호)이 있었는데,

- 위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은 2011. 12. 27.경 고소인 윤 에게 '정 와 같이 보유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70만주를 처분해야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데 위 주식 문제 때문에 돈이 없으니 5000만원을 빌려달라' 고 하였습니다.

○ 그리고, 이 은 위 사건에서 피의자로 출석하여, '지앤투자자문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정 와 지인들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70만주를 관리하고 있었다' 고 진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2013형제86946호 사건, 이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문 정 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었나요

답 건설업과 주식투자업을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당시 피의자는 정 와 같이 투자를 해서 도이치모터스의 주식 70만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사건 투자와 피의자가 보유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식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답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각하거나 또는 그것을 담보로 해서 정 와 같이 자금을 조달한다고 했습니다.

문 정 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었나요

답 건설업과 주식투자업을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당시 피의자는 정 와 같이 투자를 해서 도이치모터스의 주식 70만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사건 투자와 피의자가 보유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식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답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각하거나 또는 그것을 담보로 해서 정 와 같이 자금을 조달한다고 했습니다.

○ 결국, 이 은 2011. 12.경까지 지엔투자자문 부회장으로서 정 및 지인들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70만주를 관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 3. 김 의 이 에 대한 수급 의뢰

○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 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김 이 이 에게 '기억나지? ktb 1층 파스쿠치에서 작성한... 이날 담보로 도이치 15000주 받아왔어'라는 문자와 함께 사진을 보냈는데,

메시지	발성	받신	성명 일시 : 2019-12-23 10:58:19		이 이 01u
메시지	발성	받신	성명 일시 : 2019-12-23 10:59:23	내용 : 기억나지? ktb 1층 파스쿠치에서 작성한, 이날 담보로 도이치 15000주 받아왔어.	이 이 01u

- 위 문자에 첨부한 사진을 확인해 본 결과, 김 과 신 가 2012. 9. 17. 작성한 '도이치모터스 주식 15,000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신 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종가기준 5,000원을 만든다'는 내용의 약정서였습니다.



○ 또한, 김 [redacted] 또 다른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김 이 2012. 9. 27.경 이 [redacted] 에게 '내일 만오천 돌려받고 너가 이어받아. 너한테 주께. 그게 사고안나는 합리적인 방법.', '내가 끌어 붙네니 종가라도 사천잡아놓아봐'라고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발신	이 [redacted]	010- [redacted]	010- [redacted]	2012-09-27 PM 12:06:31	내일 만오천 돌려받고 [redacted] 너가 이어받아 너한테 주께. 그게 사고안나는 합리적인 방법.
발신	이 [redacted]	011- [redacted]	010- [redacted]	2012-09-27 PM 02:12:05	내가 끌어붙네니 종가라도 사천잡아놓아봐

위 문자메시지들과 2012. 9. 17.자 약정서에 의하면, 이 이 적어도 2012. 9.경까지 김 [redacted] 에게 수급세력을 소개해 주거나 직접 종가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에 관여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012. 10. 5. 통화녹음 파일(김 [redacted], 이 [redacted] - 요약**

이           내가           하고 지금 쇼부를 깬 거야, 지금.

김           어.

이           내가 한다면           는 믿겠대.

김           응.

이           자기가 내가 받는다고 하면 개는 내 계좌를 아니까. 그러면 15,000주를 형이 주고, 응?

김           응.

이           15,000주는 내가 그... 5,000원 올려놓은 다음에 받으면 되잖아, 어차피.

김           에이. 그건 말이 안 되지. 왜냐하면 니가 15,000, 내가 너를 믿으려고 그러는데, 최대한.

(중략)

이           그리고 형 앞에서 주문을 넣고 형도 내가 그렇게 다 되잖아, 응? 그리고 주문을 내가 4,000원 끌어올리는 거 보는데 나는 뭘 걱정 하나면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하는데 썩은 물량 나와 가지고 내가 못할 정도로 나와 버리잖아.

김           그런 얘기할 것 같으면 끊자, 전화.

2012. 10. 10. 통화녹음 파일(김 이 - 요약

김 계약서대로 하면 돼. 계약서대로 해 가지고 지금 내가 뭐 다마가 있다니까 \*\*\* 다시 잡아서 5,000원 가면은 나는 원금 보장하기로 했고,

이 응.

김 5,000원 가면은 내가 그거 뭐 나머지 15,000주 잡아, 받아 가면 되는 거야.

이 그렇죠.

(중략)

김 "그 나한테 15,000주를 주세요." 그러면 내가 줄게." 가 주던 안 주던 내가 일단 15,000개 줄게 나가 받아가고 이어 가라, 그러면은"

이 응.

김 성공하면 5,000원 되면은 15,000개 주는데 하고의 계약은 5,000원 돼도 15,000개 주고 30,000개로 끝나는 거잖아.

이 맞죠.

김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게 분명히 있어. 가 보냈건 누가 보냈건 상관없이 내가 너 워런트 좀 챙겨줄게.

4. 소결

- 이처럼 이 이 2012. 9.경까지 김 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비록 이 이 2010. 9. 이후 권오수와 직접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김 이 권오수의 의뢰에 따라 시세조종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김 과 함께 범행을 계속한 이상 이 이 2010. 5.경 형성된 김 과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나아가, 아래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설사 이 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김 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은 이상 김 이 행한 시세조종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 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피고인이 甲 투자금융회사에 입사하여 다른 공범들과 특정 회사 주식의 시세조종 주문을 내기로 공모한 다음 시세조종행위의 일부를 실행한 후 甲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여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였고, 다른 공범들이 그 이후의 나머지 시세조정행위를 계속한 경우,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의 범죄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그 이후 나머지 공범들이 행한 시세조정행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함에도, 피고인이 해고되어 甲 회사를 퇴사함으로써 기존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미 실행한 시세조정행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해소되었다고 보아 그 이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II. 권오수, 이 , 김 의 공모관계

I 공모 경위

- 2010. 10. 19.부터 2010. 11. 15.까지 권오수, 이 , 김 의 공모관계 및 그 경과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 나아가 2010. 11. 1.경 민 이 김 에게 '금융 약속 장소는 남산 반얀트리. 시간은 7시. 페스타 동 일출 양식당 페스타'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고,

메시지	발성	받신	성명 표시 : 2010-11-01 19:11:22 받은 일시 : 2010-11-01 19:11:22	내용 : 금융 약속 장소는 남산 반얀트리. 시간은 7시. 페스타 동 일출 양식당 페스타. 시간은 변경가능. 내일 아침엔 꼭 들리세요. 이 가 여기저기 머라고 하고 다니나 봐요	8210
메시지	발성	받신	성명 표시 : 2010-11-01 19:46:38 받은 일시 : 2010-11-01 19:46:38	내용 : 약속 양식당 여중 밀착당 임대 온 사장님께서 물어하시는 건두 이서님에 결정 하시라고 하세요. 본 꼭 오세요 상의 필요함	8210

- 이에 대해 김 은, 위 문자메시지에서 확인되는 금요일(2010. 11. 5.) '권오수, 이 , 손 토러스 대표이사를 만나, 토러스증권 상품으로 도이추지식을 잡자는 내용과 DAFS를 통한 도이치모터스와 토러스증권의 전략적 제휴에 대해 논의를 하였고,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올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특히, 김 이 관리하던 민 명의 디에스증권 계좌의 호가장에 의하면, 김 이 고가매수 및 물량소진 주문을 반복적으로 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사실이 확인됩니다.



○ 김 은 주 명의 디에스증권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전부 출고 되었다가 전량 매도되자 이 가 권오수에게 화를 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 2011. 4. 21. 민 기 이 에게 보낸 '김이사 겁 엄청 먹어요, (중략) 권의 김 한테 가서 그런식으로 따지면 후배들부터 싹 줄줄이라고'고 보낸 문자메세지에서 당시 이 나 권오수가 김 명의 디에스 증권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빠져나간 것에 대하여 화를 내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순번	App	상태	종류	날짜	내용	수신자	발신자
656	메시지	활성	발신	생성 일시 : 2011-04-21 10:40:08 읽은 일시 : 2011-04-21 10:40:08	내용 : 이쪽에서도 오늘 점심이후에 산다고 사실 사시라고 합니다.	+8210	
657	메시지	활성	발신	생성 일시 : 2011-04-21 10:41:26 읽은 일시 : 2011-04-21 10:41:26	내용 : 김이사 겁 엄청 먹어요 지나가는 말이라도 계좌 확인해드라고 하면 다 헛스라고 권 사장한테도 조심, 더군다나 권이 김 한테 가서 그런식으로 따지면 후배들 부터 싹 줄줄이라고	+8210	
658	메시지	활성	수신	생성 일시 : 2011-04-21 10:44:00 읽은 일시 : 2011-04-21 10:44:00	내용 : 알았다 걱정하지말라고해라내가알아서 내선에서말처리한다고해라		번호 : +8210

○ 나아가 민 의 휴대폰 문자메시지에서 김 의 공인인증서를 전달받는 내용이 확인되고, 인베스트 사무실에서 주식매매를 하던 민 이 등의 HTS주문 IP와 위 김 명의 디에스증권 계좌의 주문 IP에서 동일한 IP가 존재하며, 이 가 김 명의 디에스증권 계좌에서 주식이 출고된 것에 대해 화를 내었던 점을 볼 때, 김 의 디에스증권 계좌를 피고인 이 와 민 이 관리한 것은 명백히 인정됩니다.

순번	App	상태	종류	날짜	내용	수신자
374	메시지	활성	발신	생성 일시 : 2010-11-15 18:55:10 읽은 일시 : 2010-11-15 18:55:10	내용 : 사모님. 민 이사입니다 공인인증 제 USB에 받았습니. 전 사용 가능 한데 제 상식으로는 아마 사모님 댁의 공인 인증서 사용이 안될것 같은데요. 암되시면 내일 그쪽에서 다시 다른 받으시고 저를 다시 복사 해 주시면 됩니다. 늦게 까지 번거 롭게 해드 려 죄송합니다	+8210

## 2. 김건희 명의 미래에셋 계좌

○ 인베스트 사무실에 있는 '이 '의 컴퓨터에서 압수된 '김건희' 엑셀파일에서 김건희의 미래에셋계좌(구 대우증권), 디에스증권(구 토러스증권) 계

좌에 대한 관리내역이 확인되고 있고,

김건희			
인출	962,027,758	대우계좌	
인출	30,000,000	대우계좌	
잔고	143,341,664	대우계좌	
잔고	1,472,279,905	토러스 계좌	
현금계	2,607,649,327		
주식수량	60,105주	매각(2011.01.13)	
1월 10	30,200,000	12%	
1월 11	12,000,000	12%	

○ 2010. 11. 4. 12:08:08 김      명의 계좌 및 12:29:03 김      의 남편인 백      명의 계좌에서 합계 10만 주의 매도주문이 있고, 김건희 명의의 미래에셋 계좌에서 ① 12:08:53 3,700원에 60,000주 매수, ② 12:09:04 3,700원에 3,000주 매수, ③ 12:29:31 3,760원에 40,000주 매수주문이 나온 직후,

종목	종목명	종목코드	종류	수량	단가	총액	종목명	종목코드	종류	수량	단가	총액
주식	삼성전자	005930	매수	60,000	3,700	222,000,000	주식	삼성전자	005930	3,000	3,700	11,100,000
주식	삼성전자	005930	매수	3,000	3,700	11,100,000	주식	삼성전자	005930	40,000	3,760	150,400,000

12:30경 민      이 김      계게 “십만주 받았음 두 사람한테 오만주씩 뺐었음”이라는 문자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볼 때, 김건희 명의 미래에셋계좌 또한 이      가      인베스트에서 관리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App	장태	종류	발신	발신자	받신자
메시지	합성	발신	생성 일시 : 2010-11-04 12:30:37 읽은 일시 : 2010-11-04 12:30:37	내용 : 십만주 받았음 두사람한테 오만주씩 뺐었음	B2H
메시지	합성	수신	생성 일시 : 2010-11-04 12:32:34 읽은 일시 : 2010-11-04 12:32:34	내용 : 고생했어요. 지금 호기가 너무올라. 키움 토러스 신한 금 액서 요청합니다.ㅎㅎ	번호 : +829

### 3. 김건희, 김      계좌의 담보 제공

○ 이      은 “권오수가 주가조작을 의뢰하면서 담보를 주기로 하였는데, 담보



는 주지 않고 양 의 증권 계좌를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이 양 의 주식 10만 주를 시세조종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 또한 위와 같이 이 을 뒤이어 시세조종을 하는 이 김 에게 김건희, 김 명의 계좌가 제공된 점을 보면, 권오수가 같은 수법으로 시세조종에 대한 담보 성격으로 위 두 계좌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 즉, 권오수는 주변 지인들에게는 주식투자로 이익을 내주겠다<sup>16)</sup>고 하는 한편, 주변 지인들의 계좌를 시세조종에 대한 담보 등으로 주가조작에 동원하는 등 이중플레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 나아가 인베스트에서 김건희 명의 미래에셋 계좌 등의 인출권한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가 김 명의 디에스 증권 계좌에서 도 이치모터스 주식이 출고되자 화를 내었던 점, 김 이 김건희 명의 미래에셋 계좌의 주식을 블록딜로 매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계좌들은 이 , 김 이 담보 내지 시세조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 권오수가 제공한 계좌로 봄이 상당합니다.

**③ 권오수의 지속적인 범행 가담**

○ 이 사건은 통상의 주가조작 사건과 달리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상장사의 대표이사 가 범행에 가담한 사건으로, 주가부양이라는 동기가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밖에 없고, 실제로 권오수의 지속적인 가담이 확인되는 반면, 공범들의 주가 조작 범행에서 이탈하거나 중지하기 위한 노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살펴본 바와 같이 2010. 10. 28. 김 권오수의 시세조종 시작 이후 김 손 , 김 의 지속적인 매입을 통하여 주가가 계속 상승하였으나, 2011. 4. 1. 8,100원 이후부터 더 이상 오르지 않고 하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6) 권오수가 김 김건희에게 주식을 관리하여 이익을 내주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계좌주들은 자신들의 주식이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모르고, 이에 따라 당시 김건희는 피고인 이 나 김 에게 직접 항의를 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2011. 4. 21.

메시지	발성	발신	성성 일시 : 2011-04-20 15:28:08 읽은 일시 : 2011-04-20 15:28:08	내용 : 전에 팔만주 오늘 나온거 누군지 정확하게 확인 요망, 권은 그럴리 없다고 아침 분위기도 보서는 전에 꺼 이번 꺼 김이든 누구든 이름을 확인 해 주세여 날 부터 대기조 활동	+8210		
메시지	발성	발신	성성 일시 : 2011-04-20 15:28:16 읽은 일시 : 2011-04-20 15:28:16	내용 : 시키게	+8210		
메시지	발성	발신	성성 일시 : 2011-04-21 10:40:08 읽은 일시 : 2011-04-21 10:40:08	내용 : 이쪽에서도 오늘 점심이후에 산다고 살살 사시라고 합니다.	+8210		
메시지	발성	발신	성성 일시 : 2011-04-21 10:41:26 읽은 일시 : 2011-04-21 10:41:26	내용 : 김이사 겁 엄청 먹어요 지나가는 말이라도 계좌 확인해...라고 하면 다 형사라고 권 사장한테도 조심. 더군다나 권이 김한테 가서 그런식으로 따지면 후배들 부터 썩 줄줄이라고	+8210		
메시지	발성	수신	성성 일시 : 2011-04-21 10:44:00 읽은 일시 : 2011-04-21 10:44:00	내용 : 알았다 걱정하지말라고해라내가알아서 내선에서할처리한다고해라			번호 : +821
메시지	발성	발신	성성 일시 : 2011-04-21 10:44:58 읽은 일시 : 2011-04-21 10:44:58	내용 : 사는 이유가 영감님한테 구라 쳐는 상텐데 다른 곳에서 뽀 들어 오지 않으면 자기가 구라 쳤다고 생각 할꺼구 뽀랑 이 많은 양반이 구 놀러 놔야 하나까 구라 아니라고 보여 줘여	+8210		
메시지	발성	수신	성성 일시 : 2011-04-21 10:46:52 읽은 일시 : 2011-04-21 10:46:52	내용 : 알았다처리할때중문사알려주마			번호 : +821
메시지	발성	발신	성성 일시 : 2011-04-22 13:57:04 읽은 일시 : 2011-04-22 13:57:04	내용 : 권 사장님 스케줄 확인 부탁드립니다.	+8210		

○ 2011. 4. 20. 민 이 김 에게 '전에 팔만주 오늘 나온거 누군지 정확하게 확인 요망, 권은 그럴리 없다고 (중략)'이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2011. 4. 21. 피고인 이 에게 '김이사 겁 엄청 먹어요. 지나가는 말이라도 계좌 확인했다고 하면 다 형사라고 권 사장한테도 조심. 더군다나 권이 김한테 가서 그런식으로 따지면 후배들 부터 썩 줄줄이라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위 문자메세지는 김 가 권오수를 통하여 이 와 김 에게 권리를 맡겼던 디에스증권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 상당을 전부 출고한 후 2011. 4. 19. 전량 매도한 다음날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로, '권은 그럴리 없다'거나, '권이 김 )한테 따지면 안된다'는 문자메세지에서 권오수가 이 , 김 의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에 관여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 또한, 2011. 4. 21. 민 이 이 에게 '이쪽에서도 오늘 점심이후에 산다고 살살 사시라고 합니다'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위 문자메세지는 민 이 이 에게 누군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할 것을 미리 알고, 이 에게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하자는 의미로 보입니다.

○ 그런데, 당일 점심 이후에 권오수의 지인인 이 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32,800주를 매수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민 이 권오수 측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미리 매수할 것을 알고 이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을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2. 2011. 4. 25.

○ 2011. 4. 25. 김 이 민에게 “내가 여의도서 도모회의마치고 강남가면 10 시에 도착. 회장님께 말씀드려주삼.. 얌튼 금주는 권사장님 주변에서 좀 돕고 거래량늘려야..화이팅!”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민 은 위 문자를 그대로 이에게 전달하였습니다.

662	메시지	활성	수신	생성 일시 : 2011-04-25 07:58:15 읽은 일시 : 2011-04-25 07:58:15	내용 : 내가 여의도서 도모회의마치고 강남가면 10 시에 회장님께 말씀드려주삼.얌튼 금주는 권사장님 주변에서 좀 돕고 거래량늘려야..화이팅!	번호 : +8210
663	메시지	활성	발신	생성 일시 : 2011-04-25 09:04:52 읽은 일시 : 2011-04-25 09:04:52	내용 : 내가 여의도서 도모회의마치고 강남가면 10 시에 회장님께 말씀드려주삼.얌튼 금주는 권사장님 주변에서 좀 돕고 거래량늘려야..화이팅!	+8210
664	메시지	활성	발신	생성 일시 : 2011-04-25 09:05:41 읽은 일시 : 2011-04-25 09:05:41	내용 : 김이사 회세지 없습니다	+8210

○ 그리고 당일 권오수의 지인인 이 이 2억 5,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권오수 계좌						* 권오수 계좌						* 권오수 계좌					
연월	매수		매도		잔고	연월	매수		매도		잔고	연월	매수		매도		잔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2011-04-22					298,000												
2011-04-25			700	44,394,420	398,000	2011-04-25			8,000	22,285,000	87,500	2011-04-25			30,000	234,864,450	61,000
2011-04-26			1,000	7,237,800	399,000							2011-04-26			8,500	60,426,750	69,500
2011-04-27			2,500	16,175,000	398,500							2011-04-27			2,500	145,12,000	71,500
2011-04-28			5,900	39,773,800	398,100							2011-04-28			800	2,982,000	71,800

3. 2011. 5. 31.

○ 2011. 5. 31. 민 은 김에게 ‘이사님, 오늘 가시는 일은 권사장님 지시로 백프로 협조하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답니다. 말 안들음 저한테 바로 전화 주시구요, (중략) 백삼십만개 다 사용하신다고 보고 하세요, ’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	발성	발신	성성 일시 : 2011-05-31 15:11:51 읽은 일시 : 2011-05-31 15:11:51	내용 : 어서님 오늘 가시는 일은 권사장님 지시 드 텍스트 참조하고 사키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말 안들음 저한테 바로 전화 주시구요. 이번에는 어렵게 만든 기회니까 남 욕심부리 사지 마시고 백삼삼한게 다 사들 하신다고 보고 하세요	✓	+8211	
메시지	발성	수신	성성 일시 : 2011-05-31 15:28:53 읽은 일시 : 2011-05-31 15:28:53	내용 : 왔다 ㅎㅎ			번호 : +8211
메시지	발성	수신	성성 일시 : 2011-05-31 15:30:50 읽은 일시 : 2011-05-31 15:30:50	내용 : 나한테도 해나보내워.			번호 : +8211
메시지	발성	발신	성성 일시 : 2011-05-31 15:49:56 읽은 일시 : 2011-05-31 15:49:56			+8211	
메시지	발성	발신	성성 일시 : 2011-05-31 16:29:13 읽은 일시 : 2011-05-31 16:29:13	내용 : 어서님 회장님 후배가 여대말리 부사장 여러 물어보니 머뭇는 완전멍머지 광태라네요 ㅋㅋ 사장은 양성인데 ㅋㅋ 서로 물어보고 고민 하고 내일 오전에 상실에서 회의 하지는는데요 시간 확인 해 주세요		+8211	
메시지	발성	발신	성성 일시 : 2011-05-31 17:59:48 읽은 일시 : 2011-05-31 17:59:48	내용 : 어서님 김단 김 단 대주주지분 팔면 저도 가면 못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동조 하고 했답니다. 그리고 권사장님은 그냥 법적으로 대응 하겠다고 침착하게 하시고	✓	+8210	

○ 위 130만 개가 어떤 주식을 의미하는지, 어떤 일을 협조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피고인들이나 민 이 명확히 진술하지 않고 있으나, '권오수가 100% 협조하고 김 이 시키는대로 하기로 하였다, 말 안들음 바로 전화 달라'는 내용을 살펴보면, 2011. 5. 31.에도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하여 권오수, 이 , 김 이 긴밀히 협조하고 있는 모습이 명확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App	성	수	일시	내용	번호
메시지	발성	수신	성성 일시 : 2011-09-06 16:16:43 읽은 일시 : 2011-09-06 16:16:43	내용 : 수급했으니 주변 물어봐주세요. 오늘도 2차에서 나오고 하나는 경찰 맡수기엔대. 주된 이 처리 계속나오지않을까요.	번호 : +8211
메시지	발성	발신	성성 일시 : 2011-09-06 16:18:01 읽은 일시 : 2011-09-06 16:18:01	내용 : 우리 쪽은 한 한대 제가 정리 해 볼게요	+8211
메시지	발성	발신	성성 일시 : 2011-09-07 09:11:01 읽은 일시 : 2011-09-07 09:11:01	내용 : 형님. 오늘 일정이 어찌 되세요. 지구 말 물어 보기도 그렇고 만나면 변동 사항 없고 어떤 편이 형님 부담만 주는 거구 편하신대로 하시고 업데이트 만 좀 해주세요. 힘 내시구요	+8210
메시지	발성	수신	성성 일시 : 2011-09-07 13:40:24 읽은 일시 : 2011-09-07 13:40:24	내용 : 일단 40억정도 수급했고, 3시에 토레스에서 작전회의하기로 했음. 경찰 한번 물어보자.	번호 : +8211
메시지	발성	발신	성성 일시 : 2011-09-07 13:51:58 읽은 일시 : 2011-09-07 13:51:58	내용 : 하어진 형님만 알입니다. 회의할 하시고 필요한 사항있을 알려주세요	+8210
메시지	발성	수신	성성 일시 : 2011-09-07 14:23:24 읽은 일시 : 2011-09-07 14:23:24	내용 : 김주변 이 동종도모수형 장구 할려우면	번호 : +8211
메시지	발성	발신	성성 일시 : 2011-09-07 14:27:48 읽은 일시 : 2011-09-07 14:27:48	내용 : 우리 쪽은 토레스 포함 약 50 만개 정도. 내역은 회장님 상성에 13만주 나머지 포함 등 1-2만주까 모 볼	+8210
메시지	발성	발신	성성 일시 : 2011-09-07 14:28:39 읽은 일시 : 2011-09-07 14:28:39	내용 : 김 동 주주 주주는 확인해서 알람도 할게요.	+8211
메시지	발성	발신	성성 일시 : 2011-09-07 14:29:56 읽은 일시 : 2011-09-07 14:29:56	내용 : 그리고 김 대표나 부장님 해서 다 한차 보여 1-2만주	+8210
메시지	발성	발신	성성 일시 : 2011-09-07 14:30:32 읽은 일시 : 2011-09-07 14:30:32	내용 : 권사장 주변 주주 문의 해달려는데요 지금	+8211
메시지	발성	발신	성성 일시 : 2011-09-07 14:36:17 읽은 일시 : 2011-09-07 14:36:17	내용 : 김 75 정도 형 100 정도 그거 알고는 한번에 주사 할까 보거나 하는 사항은 없다고 한 두개는 안나볼 줄알려라고 하고.	+8210
메시지	발성	발신	성성 일시 : 2011-09-07 17:55:03 읽은 일시 : 2011-09-07 17:55:03	내용 : 형님 받은 것 따우려 뒤었어여	+8211
메시지	발성	수신	성성 일시 : 2011-09-07 18:00:15 읽은 일시 : 2011-09-07 18:00:15	내용 : 40개는 되었고 나머지 한계좌의 눈여음 더 확인하니 총633만개보통 보낼 산 죽었다 보	번호 : +8211
메시지	발성	발신	성성 일시 : 2011-09-07 18:03:21 읽은 일시 : 2011-09-07 18:03:21	내용 : 김 ? 얼마 권사장께 배구요 ? 학 지 금 논의 하시는 걸로 좀 듣고 받아가시는 분들 은 따로 계산겨요 ? 그럼 어서남어 의결권 받아서 경영 참여 할꺼요 ? ㅋㅋ	+8211

4. 2011. 9. 7.

○ 2011. 9. 7. 14:25 김 이 민 에게 '회장님 주변 이 등등 도모수량 창구 알려주셈'이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내자 같은 날 14:30 민 이 이 에게 '권사장 주변 주식 좀 파악 해달라는데요 지금'이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 계속해서 같은 날 14:36 민 이 김 에게 '이 75 정도 정 100정도 그거 말고는 권한테 주식 물어보거나 하는 사람은 없다고 함, 두 개는 안 나올 몰량이라 하고'라는 문자메세제를 보냈습니다.

○ 민 이 김 에게 '두 개는 안 나올 몰량'이라고 알려준 사실을 보면, 당시 이 가 권오수에게 확인한 내용을 알려주는 것으로 보이고, 권오수가 이 에게 자기 주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보유 및 매도 여부를 알려주는 것은 김 이 가 주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5. 2011. 11. 18.

○ 2011. 11. 18. 11:13:10 민 이 김 에게 '형님. 급하게 까야 하면 권 사장 보고 까라고 하구요. 아니면 제가 들어가서 오늘부터 찬찬히 까구요'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내자,

- 같은 날 11:32:52 김 이 민 에게 '그래서 권사장님 여기 계좌두개해놓았어..'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 같은 날 11:35:26 민 은 권오수 (차명)계좌 자금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겠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됩니다.

○ 김 이 민 과 함께 권오수 (차명)계좌로 금성테크, 포메탈 등의 작전주를 거래하면서 그 자금을 이용하여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하는 등 주가 관리를 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일련번호	메시지	발신	수신	발신 일시	수신 일시	내용	발신자	수신자
1765	메시지	발신	수신	2011-11-18 11:13:10	2011-11-18 11:13:10	내용 : 영남 권하게 하여 하던 권 사항 보고 하라고 하구요. 아니면 제가 등가서 오늘 부터 안 권해 짜구요	+8210	
1766	메시지	발신	수신	2011-11-18 11:13:33	2011-11-18 11:13:33	내용 : 권구 권사항 권집주 권상 들어가 알려 같은데요	+8210	
1767	메시지	발신	수신	2011-11-18 11:14:33	2011-11-18 11:14:33	내용 : 그건어니고. 금상?금정?		번호 : +8210
1768	메시지	발신	수신	2011-11-18 11:15:15	2011-11-18 11:15:15	내용 : 금정	+8210	
1769	메시지	발신	수신	2011-11-18 11:24:43	2011-11-18 11:24:43	내용 : 권사장님 표를 여러 제의로 여제하면 여 가서 짜시.은막안으로 바로 가능.		번호 : +8210
1770	메시지	발신	수신	2011-11-18 11:25:46	2011-11-18 11:25:46	내용 : 그러고. 이번에 짜던 제로 지명으로 들어가도 안지나요	+8210	
1771	메시지	발신	수신	2011-11-18 11:26:19	2011-11-18 11:26:19	내용 : 근데 제의는 제로 주 하라고 ^^	+8210	
1772	메시지	발신	수신	2011-11-18 11:27:23	2011-11-18 11:27:23	내용 : 제로 kb에 제의 하니다 오셔서 권사 장제 관리 하려고요. 전에 보에 있던제와 제에 한기 확인해 보실면가 같아요	+8210	
1773	메시지	발신	수신	2011-11-18 11:32:52	2011-11-18 11:32:52	내용 : 그래서 권사장님 여거 제의두게해놓았어		번호 : +8210
1774	메시지	발신	수신	2011-11-18 11:33:02	2011-11-18 11:33:02	내용 : 알스		번호 : +8210
1775	메시지	발신	수신	2011-11-18 11:35:25	2011-11-18 11:35:25	내용 : 여 같은 그쪽으로 여제 해서 제로 제의 해서 제 제의로 넣고 도를 사면지 여는 금상등 지 올 가먼지 여면지 하조 제가 오늘 내일 등 여 여제 해달라고 할게요	+8210	
1776	메시지	발신	수신	2011-11-18 11:35:50	2011-11-18 11:35:50	내용 : 영남 금정은 잘 되고 있어요	+8210	
1777	메시지	발신	수신	2011-11-18 18:27:47	2011-11-18 18:27:47	내용 : 캔스퍼드 공지 영의 통과 됐답니다.	+8210	

6. 2011. 11. 23.

- 2011. 11. 23. 14:25:29 김 이 민 에게 '도모 10만개정도 받을데 있을까? 권사장님 주변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 같은 날 14:26:40 민 은 이 에게 물어본다는 취지의 '전 밖에 있고. 회장님께 여쭙봐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 계속해서, 같은 날 14:28:15 김 은 민 에게 '손 끼 이자라도 해결해 야지..진짜로 쏘아지면..참 힘들게 만드네...쓰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일련번호	메시지	발신	수신	발신 일시	수신 일시	내용	발신자	수신자
	메시지	발신	수신	2011-11-23 14:25:40	2011-11-23 14:25:40	내용 : 도모 10만개정도 받을데있을까? 권사장님 주변에?		번호 : +8210
	메시지	발신	수신	2011-11-23 14:26:40	2011-11-23 14:26:40	내용 : 전 밖에 있고. 회장님께 여쭙봐야	+8210	
	메시지	발신	수신	2011-11-23 14:28:15	2011-11-23 14:28:15	내용 : 손 끼 이자라도 해결해야지..진짜로 쏘아지면..참 힘들게 만드네..쓰벌		번호 : +8210

-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는, 2011. 11. 22.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하자 손 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10만주를 팔겠다고 하였기 때문으로 확인됩니다.

일련번호	메시지	발신	수신	발신 일시	수신 일시	내용	발신자	수신자
	메시지	발신	수신	2011-11-22 13:10:14	2011-11-22 13:10:14	내용 : 지금 도 도이치모터스에 10만주나간다고 손희정 난리다.쓰벌		번호 : +8210
	메시지	발신	수신	2011-11-22 13:16:25	2011-11-22 13:16:25	내용 : 우리가 하연에 대고 손희 하고 싶은 심정어니	+8210	
	메시지	발신	수신	2011-11-22 13:17:24	2011-11-22 13:17:24	내용 : 짜증밖에 안나네. 영남	+8210	

○ 손 매도를 통제하는 상황에 이 를 통해 권오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점을 보면, 김 , 민 은 이 , 권오수와 함께 손 의 물량 매도통제를 하며 주가관리를 해온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7. 2011. 12. 9.

○ 2011. 12. 9. 산업은행을 상대로 발행하는 BW 발행금액을 500억원까지 높이자고 이 가 권오수에게 제안하는 상황에서, 김 이 주가가 따라 올라야 한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산업은행에서 인수하는 BW 발행으로 인한 지분 가치 희석을 방지하기 위해 주가부양을 의도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App	장	종	일시	내용	발행	수신자	발신자
메시지	발성	수신	생성 일시 : 2011-12-09 12:05:34 읽은 일시 : 2011-12-09 12:05:34	내용 : 최정남은 지금 권시장 만나신다고 500개 찍지는데...*	✓		번호 : +8211
메시지	발성	발신	생성 일시 : 2011-12-09 12:05:48 읽은 일시 : 2011-12-09 12:05:48	내용 : ㅋㅋㅋㅋ		+8211	
메시지	발성	수신	생성 일시 : 2011-12-09 12:07:22 읽은 일시 : 2011-12-09 12:07:22	내용 : 사실 워런트 관계상엔 손정남수입을때 핑거여지 도모가 무슨 제주로 여태가세 500억을 핑거나? *			번호 : +8211
메시지	발성	발신	생성 일시 : 2011-12-09 12:30:52 읽은 일시 : 2011-12-09 12:30:52	내용 : 형님 근데 500개 찍을 마켓이어 되요 ?		+8211	
메시지	발성	수신	생성 일시 : 2011-12-09 12:51:53 읽은 일시 : 2011-12-09 12:51:53	내용 : 주가가 따라올라가이지.			번호 : +8211
메시지	발성	수신	생성 일시 : 2011-12-09 13:17:58 읽은 일시 : 2011-12-09 13:17:58	내용 : 자금 준비되남?			번호 : +8210
메시지	발성	발신	생성 일시 : 2011-12-09 13:19:38 읽은 일시 : 2011-12-09 13:19:38	내용 : 제기 자금 금액 만두고 최정남어랑 권 시장어 여머기 음 면데 될 거 같어요		+8211	
메시지	발성	수신	생성 일시 : 2011-12-09 13:25:01 읽은 일시 : 2011-12-09 13:25:01	내용 : 알쓰요 . 난 성남세우서			번호 : +8210
메시지	발성	발신	생성 일시 : 2011-12-09 15:18:15 읽은 일시 : 2011-12-09 15:18:15	내용 : 기업 권 제 오백요	어	+8210	
메시지	발성	수신	생성 일시 : 2011-12-09 15:18:50 읽은 일시 : 2011-12-09 15:18:50	내용 : 무튼은 만들가겠다...*			번호 : +8211
메시지	발성	발신	생성 일시 : 2011-12-09 15:22:50 읽은 일시 : 2011-12-09 15:22:50	내용 : 그 돈이 권시장 계좌에서 나온거라 돈 들리고 있고 뜰 있다가 송금 할께요	✓	+8211	
메시지	발성	발신	생성 일시 : 2011-12-09 15:26:12 읽은 일시 : 2011-12-09 15:26:12	내용 : 총 36백만원 면데 리스도 하고 찍지 등등. 2,135,025 제외 한 32,864,975 송금 예정입니다.		+8210	
메시지	발성	수신	생성 일시 : 2011-12-09 15:30:00 읽은 일시 : 2011-12-09 15:30:00	내용 : 너계좌번호도 불러줘. 뒷전치하고 남는 거 보내주게.			번호 : +8210
메시지	발성	발신	생성 일시 : 2011-12-09 15:30:35 읽은 일시 : 2011-12-09 15:30:35	내용 : 건 롬 있다기 처리 하시고 종회 하시오		+8211	
메시지	발성	발신	생성 일시 : 2011-12-09 15:51:15 읽은 일시 : 2011-12-09 15:51:15	내용 : 입금 확인		+8211	

8. 2012. 2. 6.~7.

○ 2012. 1. 말경 도이치모터스 주가관리와 관련하여 의도했던 것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 이 , 김 권오수 간의 갈등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App	장	종	일시	내용	발행	수신자	발신자
메시지	발성	수신	생성 일시 : 2012-01-31 19:21:16 읽은 일시 : 2012-01-31 19:21:16	내용 : 내가 오늘 하루동안 공금이 생각하면러내 권시장 문제나 무 문제 그냥 넘어가는건 어닝거 있다 내일 어떤 형태든 형의를 해야할거 있다	✓		번호 : +8210

○ 그러나 며칠 후인 2012. 2. 6.에 민 이 김 에게 도이치모터스 관련 상황을 계속 업데이트 해달라고 요청하고, 다음날인 2. 7. 권오수, 염 을 통해서 도이치모터스 주주명부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 민 또한 권오수와 사이가 들어진 다음부터는 김 을 통하여 도이치모터스의 상황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 나아가 2012. 2. 6. 민 이 김 에게 '권사장 사주 오시는데, 회장님 모르시고 만나시면 좀 그렇자나요'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보면, 권오수와 이 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 맞게 조정된 것에 불과하고, 2012. 2.경까지도 권오수, 이 , 김 등간의 공모관계는 계속 유지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속도	종류	발신	수신	내용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메시지	발성	발신	성경 일시 : 2012-02-06 15:41:32 읽은 일시 : 2012-02-06 15:41:32	내용 : 장 형님, 도로 관련 일은 진행사항은 매일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권사장 사주 오시는데 회장님 모르시고 만나시면 좀 그렇자나요	√	+8210	
메시지	발성	수신	성경 일시 : 2012-02-06 15:52:39 읽은 일시 : 2012-02-06 15:52:39	내용 : 음, 근디 그닥없어서			번호 : +8210
메시지	발성	발신	성경 일시 : 2012-02-06 16:04:21 읽은 일시 : 2012-02-06 16:04:21	내용 : 민, 양구 삼성 소액 물거기로 했구요, 0w알마봐 주세요.		+8210	
메시지	발성	수신	성경 일시 : 2012-02-06 16:05:47 읽은 일시 : 2012-02-06 16:05:47	내용 : 음.			번호 : +8210
메시지	발성	수신	성경 일시 : 2012-02-06 16:28:00 읽은 일시 : 2012-02-06 16:28:17	내용 : 회의 결과가 어찌었니 궁금하구나			번호 : +8210
메시지	발성	수신	성경 일시 : 2012-02-07 11:29:20 읽은 일시 : 2012-02-07 11:30:15	내용 : 도에 대해 좋은 소식있음 전해주렴			번호 : +8210
메시지	발성	발신	성경 일시 : 2012-02-07 11:31:13	내용 : 도는 17 일 기침으로 통당 해도 같은 겁니다.		+8210	
메시지	발성	발신	성경 일시 : 2012-02-07 13:21:12 읽은 일시 : 2012-02-07 13:21:12	내용 : 내용 잘 이해하기로 했다.		+8210	
메시지	발성	수신	성경 일시 : 2012-02-07 13:21:49 읽은 일시 : 2012-02-07 13:21:49	내용 : 네			번호 : +8210
메시지	발성	발신	성경 일시 : 2012-02-07 13:23:21 읽은 일시 : 2012-02-07 13:23:21	내용 : 여기도 백백은 나눔음.		+8210	
메시지	발성	발신	성경 일시 : 2012-02-07 13:23:00 읽은 일시 : 2012-02-07 13:23:00	내용 : 형님, 주주명부 받으셨어요? 우리도 좀 보게 형님 언거치고 개인 날려 해야하는데		+8210	
메시지	발성	수신	성경 일시 : 2012-02-07 13:28:57 읽은 일시 : 2012-02-07 13:28:57	내용 : 난 안받았는데 보고 내권관계의 등그라 미면 쳐주고			번호 : +8210
메시지	발성	발신	성경 일시 : 2012-02-07 13:27:25 읽은 일시 : 2012-02-07 13:27:25	내용 : 날려고는 하셨어요?		+8210	
메시지	발성	수신	성경 일시 : 2012-02-07 13:27:50 읽은 일시 : 2012-02-07 13:27:50	내용 : 어제 머우선수들과 미어간 잡의였고 지금 해충잡살대행원, 분실함음.			번호 : +8210
메시지	발성	수신	성경 일시 : 2012-02-07 13:28:20 읽은 일시 : 2012-02-07 13:28:20	내용 : 알라안했는데 명민대 엑스보내라이지?			번호 : +8210
메시지	발성	발신	성경 일시 : 2012-02-07 13:28:40 읽은 일시 : 2012-02-07 13:28:40	내용 : 양구 어제 발송하신데도 보고 드려요, 개별 명단 발송합니다 ㅋㅋ. 동성 할로써 처리요 정말, ㅋㅋ		+8210	
메시지	발성	발신	성경 일시 : 2012-02-07 13:32:50 읽은 일시 : 2012-02-07 13:33:27	내용 : 이사님, 저희 회장님께서 으드명부 받게 어성으로 보내 알려시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권 사장님께서 보내 주신다고 하셨다는데요	√	+8210	명신임
메시지	발성	수신	성경 일시 : 2012-02-07 13:33:04 읽은 일시 : 2012-02-07 13:34:12	내용 : 네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명신임 번호 : +8210

9. 2012. 7.~8.

○ 2012. 2.경 이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정리하는 방안을 고민하였으나 계속하여 주가관리를 하여오다가, 2012. 7. 25. 김 은 권오수에게 '주가가 계속 하락하니, 김 등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달라'고 부탁



하였고, 같은 날 김건희 명의 계좌에서 1,500주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날 부터 2012. 7. 31.까지 9,635주를 매수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번호	유형	이름	보낸 사람	받는 사람	날짜	내용	
7858	MMS	발신	김오수넷쟁이대표님	01077312301	0163594400	2012-07-24 PM 01:01:58	사장님 어찌 말씀드린거 이해할만큼 이해하였습니다. 다만 주가가 어떻게 흘러 버리면 원시성당성에도 불구하고 모르게 바로만기거 형이 세로늘어도 어려울것 같아 굳이저쪽으로 발송드린겁니다.
7865	MMS	발신	김오수넷쟁이대표님	01077312301	0163594400	2012-07-25 AM 08:30:24	사장님, 여기서 주가가 더 많이 올랐으면 좋겠는데 여러가지 측면에서 어려워합니다. 내일 리포트발간되오니 꼭 고객님의사 옥시 주위에 투자실용하시면 조금씩 벌어도 좋구요.
8137	MMS	발신	김오수넷쟁이대표님	01077312301	0163594400	2012-07-26 AM 10:15:38	사장님, 이런 상황을 위해서 발송드린건데 리포트가 나왔어도 다음 주던저다보 듯이 사장이 아무 반응이 없네요.
8270	SMS	발신	김오수넷쟁이대표님	01077312301	0163594400	2012-07-27 AM 09:02:04	사장님, 옥시 오늘 일정을 잠깐 잠시확인하세요?보고드릴게요
8311	MMS	발신	김오수넷쟁이대표님	01077312301	0163594400	2012-07-27 PM 12:31:54	사장님, 주식문제의 이해하기할 내용은 아니라서 시장님께 연락드렸던것입니다. 리포트 나가오니 오늘은 못볼것같은데 연락드릴게요
8404	SMS	발신	김오수넷쟁이대표님	01077312301	0163594400	2012-07-30 AM 08:30:54	사장님, 오늘은 잠깐 용이시는지요?
8485	MMS	발신	김오수넷쟁이대표님	01077312301	0163594400	2012-07-31 AM 11:02:47	사장님, 이와 조금 전에 통화했는데 이 친구와 대화를 하다보면 참 자꾸 사다가 생각이 나는 소리로 이어져 답답합니다. 저는 지금 최우선이고 꼭 올해안에 만들어야할 현대계좌가 최소유동 100억 그리고 만일업 일련의 250억 납입으로 자기자본을 최소 350억 늘리고 그리고 부채를 250억 갚으시거 85억 자산증거 140억 부채 증계 500억으로 자본증거 900억으로 나가는데 내년엔 우왕기업 만드는것입니다.투자수수로 어떤거 관심있습니다. 그러기위해서 필수불가결의 신제품 건이 선행되어야하는데 그럴 최우선으로 먼저 만들어야하는데 지금 상황에 백업수들은 백업수고피도 좀 상황이 안되는데 백업이 없으니 생각한다는것 자체가 우습습니다. 물론 내일이고 후일이고 천천히해도되겠지만요. 하지만 어떤 호기는 잘못해 장마에 어지럽겠습니까?

연도	월	일	종목	종목명	종가	잔고	잔액	잔고	잔액	잔고	잔액	잔고	잔액	잔고	잔액	잔고	잔액	잔고	잔액	잔고	잔액
2011	12	24	대신증권	특종WM연회	4,890	4623	-75	-1.62	4685	-1.88	50	50	매수								
2011	12	24	대신증권	특종WM연회	4,870	4640	-10	-0.16	4700	1.11	2000	1,630	매수								
2011	12	24	대신증권	특종WM연회	4,800	4350	-50	-0.78	4300	0	18,470	18,470	매수								
2011	12	24	대신증권	특종WM연회	4,800	4390	10	0.16	4300	0	470	470	매수								
2012	07	25	한화투자	대지선호발차점	3,700	3325	-120	-3.28	3355	-4.02	500	-	매수								
2012	07	25	한화투자	대지선호발차점	3,720	3340	-120	-3.18	3365	-3.5	500	-	매수								
2012	07	25	한화투자	대지선호발차점	3,740	3340	-100	-2.6	3365	-3.98	600	500	매수								
2012	07	25	한화투자	대지선호발차점	3,760	3340	-80	-2.08	3365	-3.46	500	500	매수								
2012	07	25	한화투자	대지선호발차점	3,780	3340	-90	-2.34	3365	-3.72	600	500	매수								
2012	07	25	한화투자	대지선호발차점	3,790	3365	-35	-0.67	3365	-3.34	500	-	매수								
2012	07	25	한화투자	대지선호발차점	3,780	3300	-110	-2.62	3305	-0.39	600	500	매수								
2012	07	25	한화투자	대지선호발차점	3,786	3300	-115	-2.96	3305	-0.88	500	500	매수								
2012	07	25	한화투자	대지선호발차점	3,770	3300	-50	-0.79	3305	-0.32	500	500	매수								
2012	07	25	한화투자	대지선호발차점	3,780	3300	-50	-1.32	3305	-1.45	500	476	매수								
2012	07	25	한화투자	대지선호발차점	3,775	3300	-25	-0.64	3305	-0.79	500	500	매수								
2012	07	25	한화투자	대지선호발차점	3,775	3270	-85	-0.83	3305	-1.64	500	-	매수								
2012	07	25	한화투자	대지선호발차점	3,770	3270	-40	-1.07	3270	-1.07	500	-	매수								
2012	07	25	한화투자	대지선호발차점	3,765	3270	-45	-1.2	3270	-1.2	500	-	매수								
2012	07	25	한화투자	대지선호발차점	4,000	3380	50	1.27	3385	2.7	3,090	3,814	매수								
2012	07	25	한화투자	대지선호발차점	4,000	4000	0	0	3385	2.7	2,000	-	매수								
2012	07	25	한화투자	대지선호발차점	3,990	4000	-10	-0.25	3385	2.44	2,000	-	매수								
2012	07	25	한화투자	대지선호발차점	3,980	4000	-30	-0.8	3385	2.18	3,000	-	매수								
2012	07	25	한화투자	대지선호발차점	3,970	4010	40	1	3385	3.88	3,000	688	매수								
2012	07	25	한화투자	대지선호발차점	4,020	4060	-80	-0.74	3385	6.03	1,58	52	매수								
2012	07	25	한화투자	대지선호발차점	4,190	4180	0	0	3385	6.03	2,000	-	매수								
2012	07	25	한화투자	대지선호발차점	4,180	4180	0	0	3385	6.55	1,547	1,078	매수								
2012	07	25	한화투자	대지선호발차점	4,180	4185	15	0.36	3385	5.9	3,000	-	매수								
2012	07	25	한화투자	대지선호발차점	4,420	4460	-40	-0.9	4460	-0.9	3,000	-	매수								
2012	07	25	한화투자	대지선호발차점	4,480	4460	-10	-0.22	4460	-0.22	1,000	89	매수								
2012	07	25	한화투자	대지선호발차점	4,480	4450	-10	-0.22	4460	0	1,000	1,000	매수								
2012	07	25	한화투자	대지선호발차점	4,480	4450	-10	-0.22	4460	0	1,000	8,635	매수								

○ 계속하여 2012. 8. 5. 민 이 이 에게 '근대 권이 급하긴 무척 급한거 같아요, 넘 무리스럽게 움직임을 보이네요'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고,

메시지	유형	발신	수신	내용	번호
메시지	발성	발신	수신	내용 : 민님 내일 지방 가삼코록 지금 전화 좀 주심, 형님 안계신데 주식은 권보구 통 시라 해야 하는건지, 권라도 채우 발 어머기도 있고	+8210
메시지	발성	발신	수신	내용 : 전화 안되 메세지 일단 남겼고 내려 간다고 통문자 같은데 내일 다시 통화 해 볼게요.	+8210
메시지	발성	수신	수신	내용 : 그래 말았다	번호 : +8210
메시지	발성	발신	수신	내용 : 근대 권이 급하긴 무척 급한거 같아요, 넘 무리스럽게 움직임을 보이네요	+8210
메시지	발성	수신	수신	내용 : 그러게 말하다 내 실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다. 통화연결되면 적어도 안날까 조금만이라도 하고	번호 : +8210
메시지	발성	발신	수신	내용 : 잘 들어 볼게요	+8210
메시지	발성	수신	수신	내용 : 그래	번호 : +8210
메시지	발성	수신	수신	내용 : 내기 어 쯤면 아니라 어찌저찌다 오늘 내일만 심시면번하자고 연락은 다했음	번호 : +8210



○ 2012. 8. 22. 14:30 김 이 권 씨에게 '내일도 권이 2만개 산다는데', '내일도 권이 잡을거야'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다음 날인 2012. 8. 23. 권오수의 아들 권 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사실도 확인됩니다.

시간	번호	발신	수신	제당명	멤버	제당명	번호	보낸 사람	날짜	시간	내용
14:30	7751	수신	문지	권	이	권	이	2012-08-22 PM 02:30:20			제가 조금씩 좀 약간예요
14:30	7752	수신	문지	권	이	권	이	2012-08-22 PM 02:32:45			4000원씩 팔았어요
14:30	7753	수신	문지	권	이	권	이	2012-08-22 PM 02:32:59			역시 매달이 나오네요
14:30	7754	발신	문지	권	이	권	이	2012-08-22 PM 02:39:23			특히 못해주시.
14:30	7755	수신	문지	권	이	권	이	2012-08-22 PM 02:40:34			그날로 4500원 잡혀서만 개월 끝인데 4000 4300 원이 채워지던 5백만원 가능성 평가에 있어서요. 권 5천주 사는건입니다
14:30	7756	발신	문지	권	이	권	이	2012-08-22 PM 02:44:35			올가기 4300이요.
14:30	7757	수신	문지	권	이	권	이	2012-08-22 PM 02:48:24			7000 원주님 매수할 때는나 알렸고 4000 원 5000원
14:30	7758	발신	문지	권	이	권	이	2012-08-22 PM 02:49:56			매달로 5만씩씩씩 매달 내달로 5만씩씩 매달로 권이 2만개산다는데
14:30	7759	발신	문지	권	이	권	이	2012-08-22 PM 02:47:24			오늘 13000개
14:30	7760	수신	문지	권	이	권	이	2012-08-22 PM 02:47:22			4240원 팔아요 할게요
14:30	7761	수신	문지	권	이	권	이	2012-08-22 PM 02:48:52			팔아서 나오는거 보시고 하신시도 상주님 내일도 매수하셔
14:30	7762	수신	문지	권	이	권	이	2012-08-22 PM 02:50:55			지금 저러기 걱정인거 때문에 좀만 조금만 저주요 주님께 발송합니다. 권고 한 매수시요
14:30	7763	발신	문지	권	이	권	이	2012-08-22 PM 02:51:53			문어왔으니 내일도 권이 팔릴꺼

○ 2012. 8. 24. 민 은 김 씨에게 '두시 반 이후 종가까지 신한에서 만주, 대우에서 만주를 매수할 것'이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발신	수신	날짜	시간	내용
민	김	2012-08-23	PM 02:36:22	우후.끼기 김
수신	민	2012-08-23	PM 02:36:59	지금 우후 누구냐고 물어 보는데 매세지 왔어요 ㅋㅋ
수신	민	2012-08-23	PM 02:37:01	마이원 처는데 보내주시네
수신	민	2012-08-23	PM 02:38:13	기관으로 잡혀요 ?
발신	민	2012-08-23	PM 02:38:34	컨드메니저 모피래
발신	민	2012-08-23	PM 02:38:57	지퍼 5연계광고 기관별는다고
수신	민	2012-08-23	PM 02:39:06	아. 눈물난다.
발신	민	2012-08-24	AM 09:51:53	회의 용이나 나중에 전하여드립니다
수신	민	2012-08-24	PM 12:13:24	전화 좀 주심
수신	민	2012-08-24	PM 12:18:22	두시반 부터 종가 까지 로 이어기. 주변에 우후도 권이러 하면 되지 않나? 다른 곳은 안들어 오네요
수신	민	2012-08-24	PM 12:51:36	신한 만. 대우 만. 두시 반 이후

- 같은 날 14:31 권오수의 지인 이 의 모친 심 명의 신한증권 계좌에서 10,000주를 매수하고,
- 권오수의 직원인 유 당시 도이치모터스 대치지점장)이 권오수로부터 받은 현금 1~2,000만 원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을 합하여 미래에셋 증권(당시 대우증권) 계좌로 4,400만 원 상당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9,600주를 매수한 사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종목명	연월일	종목코드	종류	종류명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종목명	연월일	종목코드	종류	종류명	수량	단가	금액	비고	
도이치모터스	20120624	1071	신분부사	신분공통	5	0.11	4430	0.66	500	500	매수	0	위탁매매	계란	143125721			
도이치모터스	20120624	1072	신분부사	신분공통	50	1.14	4430	0.45	1,000	617	매수	0	위탁매매	계란	143152733			
도이치모터스	20120624	1082	신분부사	신분공통	25	0.36	4430	1.69	1,000	1,000	매수	0	위탁매매	계란	143448010			
도이치모터스	20120624	1084	신분부사	신분공통	5	0.11	4430	1.81	1,000	1,000	매수	0	위탁매매	계란	143503810			
도이치모터스	20120624	1086	신분부사	신분공통	0	0	4430	1.81	3	3	매수	0	위탁매매	계란	143514745			
도이치모터스	20120624	1089	신분부사	신분공통	60	-1.33	4430	0.45	37	37	매수	0	위탁매매	계란	143536278			
도이치모터스	20120624	1090	신분부사	신분공통	60	-1.33	4430	0.45	60	60	매수	0	위탁매매	계란	143546138			
도이치모터스	20120624	1094	신분부사	신분공통	-10	0.22	4430	1.58	180	180	매수	0	위탁매매	계란	143625385			
도이치모터스	20120624	1096	신분부사	신분공통	30	0.67	4430	2.24	2,000	2,000	매수	0	위탁매매	계란	143722280			
도이치모터스	20120624	1101	신분부사	신분공통	10	0.22	4430	2.44	1,500	1,500	매수	0	위탁매매	계란	143831745			
도이치모터스	20120624	1109	신분부사	신분공통	0	0	4430	0.45	163	163	매수	계소	1072	위탁매매	계란	144000510		
도이치모터스	20120624	1110	신분부사	신분공통	0	0	4430	0.45	37	37	매수	계소	1089	위탁매매	계란	144000590		
도이치모터스	20120624	1112	신분부사	신분공통	0	0	4430	0.45	80	80	매수	계소	1090	위탁매매	계란	144018628		
도이치모터스	20120624	1116	신분부사	신분공통	10	0.22	4430	2.71	1,900	1,000	매수	0	위탁매매	계란	144115011			
도이치모터스	20120624	1126	신분부사	신분공통	20	0.44	4430	3.16	2,000	2,000	매수	0	위탁매매	계란	144314082			

종목명	연월일	종목코드	종류	종류명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종목명	연월일	종목코드	종류	종류명	수량	단가	금액	비고	
도이치모터스	20120624	1097	신분부사	신분공통	4,450	4500	-81	-177	4420	2,45	1,000	매수	0	위탁매매	계란	14753220		
도이치모터스	20120624	1100	신분부사	신분공통	4,655	4500	-45	-137	4630	8,50	1,000	매수	0	위탁매매	계란	14753220		
도이치모터스	20120624	1103	신분부사	신분공통	4,690	4500	20	8,60	4420	1,80	6,000	매수	0	위탁매매	계란	14753220		
도이치모터스	20120624	1104	신분부사	신분공통	4,455	4600	0	0	4630	1,50	1,000	매수	계소	102	위탁매매	계란	14654123	
도이치모터스	20120624	1106	신분부사	신분공통	4,450	4600	0	0	4630	1,45	1,000	매수	계소	287	위탁매매	계란	14653023	
도이치모터스	20120624	1140	신분부사	신분공통	4,650	4600	50	1,00	4630	4,57	2,000	매수	0	위탁매매	계란	14777007		
도이치모터스	20120624	1190	신분부사	신분공통	4,700	4600	20	8,43	4630	6,00	1,000	매수	0	위탁매매	계란	14673000		

-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이 .는 검찰에서 '당시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도이치모터스를 손절하고 나가려던 상황이 있었는데, 김 .에게 매도를 하겠다고 하니 권오수가 저를 찾아와서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수익을 보고 나가야지, 손해보고 나가면 안되지 않냐, 조금만 있으면 좋아질테니 기다려 봐라, 조만간 좋아질 것이다'라고 했고, 실제로 조금 좋아져서 제가 손절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 당시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이 .까지 주식을 매도한다고 하자 급락을 우려한 권오수가 주변을 동원하여 김 .의 부탁을 들어주는 방법으로 시세조종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4) 소결**

- 2009. 12. 도이치모터스의 상장 이후 주가가 급락하자, 권오수는 도이치모터스의 대표이사로서 지위, 경영권 및 도이치모터스의 상장 조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최대주주로서 자신의 손실과 투자자들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주가를 부양할 요인이 존재하였고, 결국 당시 해외 유명 투자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이 .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였던 것입니다.

○ 그러나 이 이 주가를 올리지 못하고 오히려 신분까지 속인 사실이 들어나는 상황에서, 2010. 10. 증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인 김 이 나타나 부띠끄 투자 자문사를 운영하던 이 와 함께 권오수에게 자전거래를 제안하면서 권오수, 김 이 의 시세조종이 시작되는 장면은 당시 문자메세지와 거래자료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 2010. 10. 권오수, 김 , 이 가 시세조종을 시작한 이후 권오수가 지속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고, 특히 2012. 7.~8.경 김 이 권오수에게 주식 매수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권오수가 지인 등을 통하여 매일 10,000주 상당을 매수하면서 미리 매수할 것을 알려주기까지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 권오수는 대주주 또는 대표이사로서 주가관리의 역할을 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 정상적인 주가 관리를 위한 주식 매수는 자사주 매입이나 대주주의 신고 등 엄격한 절차와 공시에 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 단순히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 시점, 수량 및 매수 계좌 등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매매를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 권오수가 2009. 12. 이 에게 의뢰하였던 시세조종이 2010. 10. 김 , 이 에 이르러서 제대로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은 주식을 대량으로 매매하며 큰 수익을 얻었으며, 권오수는 김 이 2012. 12. 구속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때로는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2010. 10. 시세조종을 시작한 이후 범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노력하거나 명시적으로 범행에서 이탈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전체 범행에 대한 권오수의 시세조종의 공모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III. 김 , 김 이 , 손 , 한 의 공모관계

#### I 김 , 손 의 공모관계

##### 1. 공모경위

##### 가. 우리기술과 헤세나 관련 손실보전 약정 및 담보제공

○ 김 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우리기술 및 헤세나에 대한 주가조작에 가담하면서 손 에게 주식매수를 권유하였고, 손 는 주식을 대량 매수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은 손 에게 우리기술 주식 매집 대가로 BW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기도 하였습니다.

2021. 9. 17. 손 진술서

김 이가 삼성증권에서 헤세나 주식투자 관련 저명한 저의 회사소부 강동구 권호동 행복리치를 담보로 하여 100억원의 주식투자를 하고있던 차에 김 으로 부터 헤세나주식을 알게되었습니다. 헤세나 주식은 곧 서용사 호재가 있고 미래의 성장이 주목되는 기업이라고 김 이가 저에게 적극적 매입을 권유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고민 끝에 권 이 권유금액인 약 10억을 투자 매입하였습니다. 헤세나 주식이 최저 100만원 이상 상승할 때까지 기다리고있던 헤세나주식

##### 3. 우리기술 주식투자 관련

○ 헤세나 주식의 상장폐지 절차 진행후 김 이는 자신의 신탁을 관회하겠다고 원과력 기술주 우리기술을 다시 취득하면서 앞으로 원과력시대가 곧 열린다. 지금에 저가인 우리기술주식을 매입해 주시면 김 이가 우리기술 대표와 적극상의하여 BW(신주인수권부사채) 100만주를 주겠다고 제안하여서 아주저가고 미래 원과력 무망주라 판단되어 200만주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기술주식도 역시 제일리후은행 담보 대출금으로 매입하였습니다.

○ 김 은 혜세나와 우리기술 주식 매입과 관련하여 손 와 손실보전 약정을 체결한 바 있고, 우리기술 주식 200만주 매입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우리기술 주식 50만주를 제공받기도 하였습니다.

이행각서

<p style="text-align: center;">이행각서</p> <p>각수인: 김 660304-1 성남</p> <p>2010년 8월 31일 현재 주 인원에 현재 회사에 주주 2명인 김 와 손 와 손 (김 은 혜) 외에 주주 인원은 없으며, 현재 9월 말까지 매입에 합의하였음. 이행각서 하신다. 김 은 혜에 대하여 인(인)을 각서 하신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0년 8월 31일 김</p>	<p style="text-align: center;">이행각서</p> <p>각수인: 김 660304-1 성남</p> <p>손 와 손</p> <p>2010년 8월 31일 현재 김 은 혜의 이행각서를 받지 않았고 합의하여 2명이며, 이행각서 10% 액의 주에 대해 합의하였음. 김 은 혜는 동한 동(인)이 이행각서로 동시에 합의 하였음을 하신다. 위 내용에 대하여 인(인)을 각서 하신다. 2010년 10월 1일 김 은 혜</p>
--	---

2009. 10. 19.자 주식보관증

<p style="text-align: center;">주식보관증</p> <p>보관명세서: (주)우리기술 보통주 500,000주 (인원번호 4001433-00)482, 일반주권 50개)</p> <p>상기 주식을 2009년 10월 19일 현재 수령하고 보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이 증서와 작성하며 보관인 명의로 지파로 갈내에서 (주)우리기술 보통주 인원번호(2,000,000주)를 추가 구입하기로 하고, 비인원번호 지분추가공시 하기로함.</p> <p>발급대일한 주식의 액도서기는 최소 5만원으로 5만원 이하의 액도를 주지 않는 별에서 보관회원과 합의후 액도서기로 하며, 액도서금이 이원번호 주가액의 원금 이상을 경우에는 상기 보관주식을 보관회원이 일 즉시 반환기로 하고, 투자기간이 6 개월을 경과하거나, 이원이라도 주가가 하락하여 보관주식을 모회하여 원금의 80% 는 기간이 2주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보관주식을 같이 액도하여 손실액을 충당기로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9년 10월 19일</p> <p>(보관회원인) 성 명: 김 주민번호: 67-103-1 연락처: 010-</p> <p>(보관자) 성 명: 손 주민번호: 59-010- 연락처: 011- 성남시 장안구</p>
---	--

○ 이에 비추어 손 는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김 과 공모하여 시세조종 범행을 지속해 왔음이 확인됩니다.

※ 손 는 위 주식 매수로 인하여 손실을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시세조종 범행 가담을 부인하는 입장으로 보이나, 시세조종행위 등의 주가조작은 범행으로 인해 이익이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손실이 발생하였다 하여 위와 같은 수급 약정의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범행 공모

○ 위와 같은 본건 범행 이전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손 는 김 이 주가조작 세력이라는 사정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2010. 8.경 김 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권유로 인해 손 는 자연스레 김 과 함께 본건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손 의 역할분담

○ 김 은 이 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을 제안받고 2010. 8.경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 45만주를 매집하기 시작하였는데, 손 역시 이 무렵부터 김 의 매수권유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21. 10. 28. 김 피신조서(제8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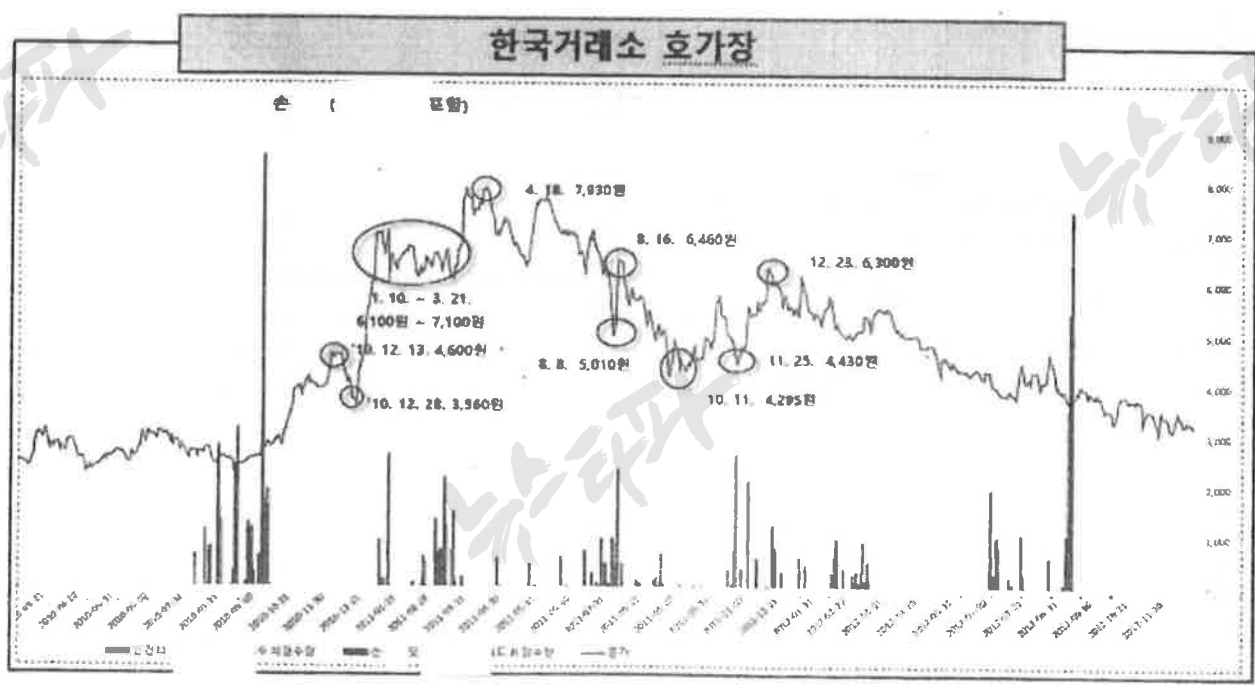
<p>가 사 서</p> <p>가 사 인 이</p> <p>주인등록번호 : 69020-1</p> <p>김 서인원 김 4에게 2010년 9월 10일 자의 가사 및 피인 시를 지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p> <p>비 가사를 교부하게 된 문기는 홀로문투자증권의 지 1자를 통하여 김 4에게 IR 및 투자자설의비를 현금 100만원 상당으로 모, 모터스 보통주 20만주를 교부하여 함께 투자자를 검색하여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할라는 의견이 있습니다.</p> <p>이에 김 4는 김 서인원 4가 평소 믿고 지내던 김 이 사를 통하여 홀로 문 투자 권의 계정주가 5600원이라는 리포트를 김 서인원 투자자를 검색하여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p> <p>이 매수수량은 약 45만주인 김 4가 거래하는 모든 상호 장을 김 서인원 동의하고 있습니다.</p> <p>이와 동시에 김 서인원 김 4에게 현금 1억원과 도이치모터스 보통주 20만주를 교부하였어야 하나, 주가 하락을 염두에 김 서인원이 김 서인원의 권리로 화인 피인리까지 김 서인원 모은 채권을 지켰다는 확인서를 김 서인원 한 장까지 찾아온</p>	<p>중간 생략</p> <p>이후 도이치모터스를 시장에 전량 매각하고 계산한 손실금을 매수일로부터 법정이자율 미해서 9월 16일 이후 각 계좌별로 연도 별 격 후 김 서인원 4의 비리하도록 하였을 것입니다.</p> <p>매도시에는 시장에서 전망 우선 예도되는 가격으로 시장가 예도에 동의하며, 이 가서는 김 4가 워낙하였으나 김 서인원 이 모든 인정하는 사실로 일체의 책임이나 거짓 그리고 김 서인원 의 이익이 없음을 홀로문투자증권 김 4사와 함께 확인 합니다.</p> <p>이 가서의 내용을 근거로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에 모두 동의 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김 서인에게 있고, 순수한 자해용 이 가사를 교부하는 것을 남인을 통하여 확인합니다.</p> <p>2010년 9월 13일</p> <p>이 69020-1</p> <p>김 서인원</p>
--	---



문 피의자는 실제로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식 약 45만주를 매수한 것이 맞는가요  
 답 네, 맞습니다. ◡

문 당시 45만주를 매수하였던 계좌는 누구 명의 계좌인가요◡  
 답 지금 생각나는 계좌로는 민 우리기술 관련 계좌(노 , 노 ), 케이엠 씨로보틱스, 김 , 김 , 강 이 , 홍 계좌 등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당시 DS증권 강남센터에서 도이치모터스를 샀다면 그것은 제가 관리 하였던 계좌나 아니면 제가 매수를 권유하였던 계좌가 맞습니다.◡  
 또한, 제가 2010. 8. 20.경 주식을 사기 시작했을 때 이미 김 하고 손 이 , 민 계계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 권유를 하였으니 위 4명이 추천 을 하였거나 관리하였던 계좌들도 포함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아마 사실 위 45만주보다 더 샀을 것인데 제가 다 파악할 수 있는 계좌들만 넣은 것입니다.

○ 이후 손 은 50억원 상당의 자금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손 [ ] 명의 한국증권, SK증권 계좌 이상매매주문 내역**

**손 [ ] 이상매매주문 내역**

일지	종목	종목명	종목코드	종류	수량	단가	금액	종류	수량	단가	금액	종류	수량	단가	금액	종류	수량	단가	금액	종류	수량	단가	금액				
2023-08-31	000001	삼성	000001	주	100	100	10,000	매	100	100	10,000	매	100	100	10,000	매	100	100	10,000	매	100	100	10,000	매	100	100	10,000
계					80	460,341	460,341		110	181,804	181,804		4	23,483	23,483												

**(주) [ ] 명의 SK증권 계좌 이상매매주문 내역**

**(주) [ ] 이상매매주문 현황**

일지	종목	종목명	종목코드	종류	수량	단가	금액	종류	수량	단가	금액	종류	수량	단가	금액	종류	수량	단가	금액	종류	수량	단가	금액				
2023-08-31	000001	삼성	000001	주	100	100	10,000	매	100	100	10,000	매	100	100	10,000	매	100	100	10,000	매	100	100	10,000	매	100	100	10,000
계					80	460,341	460,341		110	181,804	181,804		4	23,483	23,483												

(중간 생략)

2023-08-31	000001	삼성	000001	주	100	100	10,000	매	100	100	10,000	매	100	100	10,000	매	100	100	10,000	매	100	100	10,000	매	100	100	10,000
계					80	460,341	460,341		110	181,804	181,804		4	23,483	23,483												

○ 또한 위와 같은 시세조종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김 [ ] 과 상호 의사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도 확인됩니다.

발신	수신	이름	날짜	내용
발신	손	정남	2012-07-13 PM 01:49:10	오늘은게 현금처리하려니까 수표기 전부 복구인방이라 은행서 기다리는중
발신	손	정남	2012-07-13 PM 02:17:46	10분여간 다들아갈꺼예요. 통가에 조금만 해주세요.
수신	손	이장남	2012-07-13 PM 02:18:31	알수
수신	손	정남	2012-07-13 PM 02:20:04	현주정도
발신	손	정남	2012-07-13 PM 02:20:31	현 오천구만 봐도
수신	손	이장남	2012-07-13 PM 02:32:40	안제 쓰라는거니 통가에 어디어
발신	손	이장남	2012-07-13 PM 02:33:36	연락드릴게요 송금 다들났어요 확인해보세요
발신	손	이장남	2012-07-13 PM 02:37:12	통사포기에 5800에 5천주시차넣으면될것같아요
수신	손	이장남	2012-07-13 PM 02:42:38	그러면 도어치 날려
발신	손	이장남	2012-07-13 PM 02:43:01	도어치는 지금 사마지요. * *
발신	손	이장남	2012-07-13 PM 02:43:20	연락 하는수없구요
발신	손	이장남	2012-07-13 PM 02:43:47	오늘 용내함 내주려고,어쨌거나 은행있는데
수신	손	이장남	2012-07-13 PM 02:48:12	그리고 비 예셋고 고맙고 할꺼여 더있어여 다들어때는데 부탁한다 미안해
수신	손	이장남	2012-07-13 PM 02:51:22	지금들어가니 어떤연문
발신	손	이장남	2012-07-13 PM 02:51:51	57-58분쯤요
발신	손	이장남	2012-07-13 PM 02:52:02	제가 지금 은행중
수신	손	이장남	2012-07-13 PM 02:53:22	말았어
수신	손	이장남	2012-07-13 PM 02:59:39	지금 받았어 어떤단 5800원어
수신	손	이장남	2012-07-13 PM 03:06:50	거 해입혔다 8500구 전회통
발신	손	이장남	2012-07-13 PM 03:24:41	전화드릴게요
수신	손	이장남	2012-07-13 PM 03:25:25	상현오백주섯어 그런데 주가 떨어나오네

수신	손	회장남	2012-07-30 PM 01:52:43	내가 도어치 상씩었다
발신	손	회장남	2012-07-30 PM 02:40:40	지금비아이와있는데 도어치는 풀출한 적품만드셨는데 비아이가 문제, 연락드릴게요
수신	손	회장남	2012-07-30 PM 02:53:13	아 내가 일단 상현가 만들고 어떻게 되나 보는것인데 팔한것같아 그 리고 어떻게 된거니 오늘 되야하는데

김 [ ] 증인신문조서

검사 정덕채

증인에게

문 방금 재판장님 질문 관련해서, 손 피고인이 아침에 들어서 아, 오늘 도어치

어떻게 되나." 하면 "오늘 특별한 것 없습니다."라고 해서 간 직도 있다고 하였는데요. 특별한 게 있는 날, 재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령 민 과 어떻게 해서, 내용 중에서 '어디에서 오늘 들어오기로 했다, 내가 오늘 어디 수급받아서 애네 내일 들어오기로 했다' 이런 문자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손 피고인이 아침에 왔을 때 손 피고인한테 '오늘 어디에서 들어올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 준 적은 있나요.

답 예,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는...

문 민 하고 문자메시지 주고받을 때 '기가 기관 어디 알아보기로 했어' 이런 얘기를 했다면 손 피고인에게도 '기관 어디 알고 있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해 줬나  
요.

답 다 했습니다.

## ② 김 , 이 의 공모관계

### 1. 공모경위

○ 김 과 이 은 본건 범행 이전부터 우리기술의 시세조종에 성공하였고, 뒤 이어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도 주가조작 범행을 공모하였습니다.

### 2022. 5. 20. 김 증인신문조서

문 재 질문은 피고인 이 과 우리기술의 주가부양 관련된 협업을 하거나 서로 연락을 하거나 하는 분위기가 있었으면 시세조종을 했다고 하면 역시 거기서 우리기술이 상당히 주가가 오르고 성공한 셈이 되는데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도 같은 프레임으로 들어 온 게 아닌지 질문하는 겁니다.

답 예, 맞습니다. 그런 프레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 그렇게 해서 피고인 이 과 계속 연계해서 도이치모터스도 같이 하자고 얘기한 건가요.

답 같이 하자는 취지보다는 그때 이 씨하고 긴밀한 관계일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기술 BW를 주식전환하는 과정에 김 씨하고 소송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기술 임직원이 늘상 강남에 와서 조사도 계속 받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하고 계속 긴밀하게 접촉할 수밖에 없었고, 제가 김 소개시켜준 당사자 본인이기 때문에 그러던 와중에 도이치모터스라는 종목을 제가 알게 되고 '아, 괜찮은 종목 하나 있는데 이러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 한번 사보자' 그래서 매수가 시작된 겁니다.

○ 이와 같은 범행 공모과정에서 김 은 이 에게 ▲자신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리고, ▲원금 보장을 약속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2. 4. 1. 김 증인신문조서

문 증인은 검찰에서 이 도 증인이 이 로부터 원금 보장 및 손해 담보 제공 이런 약정을 받고 주식을 사는 걸 알고 있었다. 다만 처음에 이 인지 권오수인지 이 은 몰랐지만 일단 원금 보장과 담보 제공이 있었던 건 이 도 알고 매수를 시작했고 나중에는 최종 주체가 권오수라는 걸 알았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인가요.

답 예, 제가 그대로 얘기를 해 봤을 겁니다.

문 그 일들에 대해서 이 제 다 얘기했나요.

답 이리이런 상황이나 도이치모터스 사보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문 제일 처음에 주식 살 때 이 이라는 건 얘기 안 했지만 원금 보장 및 손해 담보 제공이 있다는 얘기는 했다는 것이지요.

답 예, 이 씨도 김 씨를 알고 있습니다. 이 을 저한테 소개해 준 김 이사를 알고 있고 제가 이 한테 ' 이가 소개해 줬는데 이 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권오수랑 막역하고 원금 보장 한단다. 사보라' 했으니까 이 도 마음 놓고 주식을 샀겠죠.

2021. 10. 18. 이 진술서

제가 이전 조사 때에 이 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관리"하는 것들을 통해 많은 수거기도 전직원들에게  
도이치모터스를 사라고 권유했다는 진술했는데,  
그때 말한 "주식을 관리" 한다는 의미가 크게 보면  
원금과 주식이 보장된다고 기대했다는 말이면 확실히 맞습니다.  
제 기억에도 김 은 저에게 도이치모터스를  
회사를 전 나가겠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과 피드가  
매수를 하니까 손해나 이익이 없다는 걱정하지 말고  
구분해서 위 내용과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 한편, 김 은 이 에게 원금을 보장한 주체가 권오수·이 이라는 사정을 이 역시 잘 알고 있었고, 이 을 권오수에게 소개해 주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2022. 5. 20. 김 증인신문조서

문 증인은 증인에 대한 제3차 피의자신문조서를 통하여 증인이 상피고인 권오수에게 무슨 행사장에서 피고인 이 을 소개시켜주었고 그 이후 저녁식사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몇 번 만났다고 진술하여 마치 피고인 이 파 상피고인 권오수가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 사건 시세조종 행위를 상피고인 권오수가 주도하였음을 피고인 이 도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이 게 의하면 피고인 이 은 상피고인 권오수를 도이치모터스 IR 행사장에서 증인의 소개로 만나 잠시 대화를 나누고 악수를 나누는 정도가 전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무엇인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답 도이치모터스 IR 장소에서 만났고요. 이 과 권오수 회장님께서 처음 만난 것은 그 다음해 3월에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주주총회에서 만났습니다. 이 도 주주였기 때문에 주주총회에 참석을 했고요. 거기서 첫인사를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그 이후에 IR에도 이 이 몇 번 참석했었습니다.

문 주주총회 행사장, IR 행사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테니까 아마 장시간 깊은 대화는 못 했을 거고 아마 소개하면서 인사하고 악수하는 정도 그 정도가 전부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답 그 정도보다는 좀 더 많은 대화가 있긴 있었습니다.

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답 구체적으로 당시 우리기술 관련 제작들이 도이치모터스를 많이 샀기 때문에 권오수 대표 입장에서는 작은 회사에서 적지 않은 수량을 갖고 있는 주주였고 그 주식을 사고 있는 걸 권 대표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갑게 서로 처음에 조우를 했고 그 이후에도 몇 번 자리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2. 이 의 역할분담

○ 김 은 이 과의 협의를 거쳐 둘이서 함께 관리하던 케이엠씨로보틱스 명의 증권계좌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8. 1. 김 과 이 간 문자메시지 내용(발취)

<p>내 08/10 오전 9:04</p> <p>다들 요즘 73600에.. 현재 72300원 08/10 오전 9:30</p> <p>내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포쉬즈 08/10 오전 9:34</p> <p>우경설김어까비.. 08/10 오전 9:46</p> <p>형 일단계좌를 폐쇄하고 다시 개설할 때요 돈은 모레통장으로 이체해Y다가 계좌개설하고 다시입금할께요 한번 검고가프 08/10 오전 10:50</p>	<p>최음 뒤에 연락하께~~ 08/11 오후 4:32</p> <p>홍영스는 뒤집어쓰어야하는디..이러 면.. 08/13 오전 8:27</p> <p>케이엠씨는 안배남? 08/13 오전 10:02</p> <p>케이엠씨계좌에 도어지사보까? 08/13 오후 1:20</p> <p>내 08/13 오후 1:44</p>
---	--

### 2022. 4. 1. 김 증인신문조서

문 우리기술 직원들 계좌 말고 이 |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던 계좌는 무엇인가요.  
 답 케이엠씨로보텍스 계좌.  
 문 그건 증인이 관리했던 거고.  
 답 예, 저하고 같이 관리한.

○ 또한 이 과 김 사이의 통화내용 및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시세조종  
 과 관련한 정황을 상호 공유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발신번호	발신자	수신번호	수신자	발신일시	발신시간	발신지	내용
23167680	이	773959	김	2012-10-08 AM 09:17:30			안녕하세요 김은은 오늘 시세 올랐네요
23167680	이	23167680	이	2012-10-08 AM 09:36:15			근데 자진한 누가 알아만큼을 알려줘 누구에게 받기로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23167680	이	23167680	이	2012-10-09 PM 02:33:13			좀 자진 오늘 하는거 문자요?
23167680	이	773959	김	2012-10-09 PM 03:28:01			1000에 자진올리고 케이엠씨는 같은 대답만..
23167680	이	773959	김	2012-10-10 AM 10:32:25			도요환영은 손해 받아간 친구들에 자진들리고 시작한다는 말 나도 아닐것같은.. 500개 시세에는 책이까지 사가더
23167680	이	23167680	이	2012-10-10 PM 02:37:51			형 자진 자진 둘만간거요
23167680	이	23167680	이	2012-10-11 AM 11:48:32			오늘 자진 도나요

수신	문자	28829524740268	이	23167680	이	23167680	2012-11-01 AM 09:07:29	이제는 제 친구가 맥관에 사서 경우 조금 회복시켰습니다 오늘부터는 짜지지는 않게 부탁드립니다
----	----	----------------	---	----------	---	----------	------------------------	--

2011. 8. 4자 녹취록

ㄱ 예.  
 남 자 ㅎ, 전데요.  
 ㄱ 응.  
 남 자 ㅎ.  
 ㄱ 응. 여보세요?  
 남 자 \_\_\_\_\_ 이가 사고 있는 것 같네?  
 ㄱ 사기는 뭘 사. \*\*\*  
 남 자 ㅎ? 어쨌거나 이게 이 시장이 저질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ㅎ? \*\*\* 산 거는,  
 ㄱ 어제 \_\_\_\_\_ 이가 뭐 엔에치에 좀 사가지고 나 우투하고, 교보하고, 하나하고 내가 산 거야.  
 남 자 그러면 시장이 움직인 게 아니네, 그럼?  
 ㄱ 그럼.

김 과 이 간 전화통화 녹취서 내용(발췌)

의 지극히도 없는데 좀 셀만한건 좀 많지두시면 안 될까?  
 의 오늘 셀만한건 오늘 물어간다. 이제 빌릴게.  
 의 근데 오늘 물어가서 사면 30%네요?  
 의 오늘 오후에 물어가서 삼 번째,  
 의 그럼 30%?  
 의 30%가 넘게 나오지.  
 의 왜?  
 의 한 300% 나오지.  
 의 어떻게 300%가 나와?  
 의 2년 전 같 거니까. (웃음)  
 의 이제도 많이 있어. 근데 주담이 일파에 걸려있는데, 몇 주가?  
 의 뭐 주담 ~  
 의 응?  
 의 지금 뭐 아, 나 솔직히 돈 돈이 얼마인데, 지금 이거 \*\*\*

의 우리는 형이 주담 걸어놨잖아.  
 의 어?  
 의 어?  
 의 누가 주담을 걸어놓고 왔으면 그랬나고.  
 의 아니, 우리는 형이 주담 걸어놓은 거잖아. 쏘, 쏘, 쏘, 쏘 주담, 응?  
 의 \*\*\* 이 장어 형은 모를까지 이렇게 될 줄 난 몰라, 오늘은 조금이라도 반등 나올 줄 알았는데.  
 의 아니야, 오늘 반등 나, 오후에 퍼.  
 의 그럼?  
 의 켈리화면은 변동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의 그럼 그냥 있으면 되겠네.

기록 번호	
일 자	2011년 8월 5일
사 건 번 호	2020수제394호
피 명	지정사상계급유복관인애관안영을위반
과 일 번	20110405111309.8213(전 wav
대 화 자	김 의
통 화 시간	11분 57초
음 제 이 지 수	12페이지
과 성 자	속기사 받

의 네.  
 의 어, 엔드론 안 피나 볼래?  
 의 피 안 피 \*\*\* 다른 사람들 팔만 오는데, 어, 왔구나, 저러.  
 의 부제음 딱나 팔다. 응, 응.  
 의 팔이 못 팔은 거야?  
 의 응, 내가 못 팔을 거다. 응.  
 의 \*\*\* 제기, 이거 저를 자꾸 매지는게 어떻게 돼?  
 의 아, 뭐 어떻게 매, 팔고 있어. 오늘 내가 플러스 만들어 놓을게.  
 의 그럼.  
 김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디에?  
 의 나 이제 나가려고.  
 김 응, 많이 아셨구나, 이제?  
 의 많이 아신 것보다 \*\*\*  
 김 응, 그럼, 그럼.



○ 김 은 2010. 11. 5.경 이 에게 연락하여 김 명의 증권계좌에서 제출된 매수주문을 받아줄 것을 요청하여 통정·가장매매를 한 바 있습니다.

2021. 10. 21.자 김 피신조서(4회) 중 일부

메시지	발성	수신	발성 일시 : 2010-11-05 13:46:40 읽은 일시 : 2010-11-05 13:46:40	내용 : 3800 에 3만개 매도부탁	번호 : +8211
메시지	발성	수신	발성 일시 : 2010-11-05 13:58:23 읽은 일시 : 2010-11-05 13:58:23	내용 : 왜안개는거 포기하지주세요는디	번호 : +8210
메시지	발성	발신	발성 일시 : 2010-11-05 13:58:23 읽은 일시 : 2010-11-05 13:58:23	내용 : 며 지금 사만주 봐요	8211
메시지	발성	수신	발성 일시 : 2010-11-05 13:58:49 읽은 일시 : 2010-11-05 13:58:49	내용 : 5만개까지..TT	번호 : +8211
메시지	발성	발신	발성 일시 : 2010-11-05 13:59:23 읽은 일시 : 2010-11-05 13:59:23	내용 : 오만개 오게. 회사장님이 전화어 안되셔. 지금 팔어요 바로 편질 줘머다	8210

- 제가 민 [게 2010. 11. 5. 13:46경 '3800에 3만개 매도부탁'이라고 했는데 매도 주문이 안 나와서 호가가 자꾸들어와서 매수물량이 쌓이게 되었고, 13:59경에는 5만개의 매도물량을 내 놓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 위와 같이 매도를 요청하는 것은 누구에게 요청을 하는 것인가요

답 권오수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중략)

- (검사가 피의자에게 김 이 김 의 언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저는 김 의 누군지는 모르는데, 김 는 알고 있습니다. 김 는 권오수에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남편이 부자인데 그 재산을 김 가 다 상속 받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 그리고 김 의 매도한 물량을 이 (강 회사 직원), 우리기술, 케이씨엠로 보틱스가 주로 매수한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 , 우리기술, 케이씨엠로보틱스는 제가 매수한 것이고, 김 (디에스증권 강남센터 지점장), 안 (디에스증권 강남센터 여직원)은 제가 사는 것을 보고 따라 산 것 같습니다.

문 그럼 피의자가 김 이 에게 연락을 해서 그 날 3,800원에 매수를 넣으 라고 요청을 했던 것인가요

답 이 은 당일에 그렇게 연락을 했을 것 같고, 김 의 경우에는 당일에 연락해서 그런 것을 요청할 정도로 친한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하루 이

○ 또한 이 은 본인이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해 종가관여, 고가매수, 물량소진 등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다수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11.4.5. 14:56:52경 제출된 종가관여 사례

직전 호기상황				14:56:52 2,500주 @7,750- 제출 상승	직후 호기상황			
매도 호기	순위	호가량	호가		매도 호기	순위	호가량	호가
	3	320	7,770			3	320	7,770
	2	610	7,760			2	610	7,760
	1	14,954	7,750	1		12,570	7,750	
잔량		81,802		잔량		81,802		
매수 호기	순위	호가량	호가	매수 호기	순위	호가량	호가	
	1	888	7,840		1	1	7,740	
	2	110	7,830		2	1	7,730	
	3	60	7,820		3	1	7,720	
잔량		23,891		잔량		26,391		
예상체결가		7,640		예상체결가		7,750		
예상체결량		480		예상체결량		2,864		

3. 이 의 비정상적 매수세 형성

○ 한국거래소 이상심리 결과에 따르면 우리기술과 관련하여 27명 31개 계좌가 이 과 관련된 계좌군으로 확인된바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결과

[ 우리기술 (27명 31개 계좌) ]					[ 우리기술 (연계 분석) ]	
회원	좌명	계좌	성명	주민번호	연계지표	연계비율
신한투자	신한PWM서울FC		해우리기술	1128	해우리기술, 김	0.010
디에스	경남센터		해우리기술	1128	해우리기술, 김	0.010
신한투자	신한은행		김	40010	해우리기술, 노	0.010
신한투자	신한PWM서울FC		김	720226	해우리기술, 노	0.010
신한투자	신한PWM서울FC		노	650210	해우리기술, 노	0.010
신한투자	뱅크		노	650210	해우리기술, 노	0.010
신한투자	신한PWM서울FC		노	650214	해우리기술, 노	0.010
신한투자	신한PWM서울FC		백	711015	해우리기술, 노	0.010
대우증권	365(은행연계)		백	761128	해우리기술, 노	0.010
신한투자	국민은행		서	61072	해우리기술, 노	0.010
한국증권	BankIS가상7		송	79032	해우리기술, 노	0.010
대엑소	기업은행		송	730914	해우리기술, 노	0.010
신한투자	국민은행(주)		신	781108	해우리기술, 노	0.010
유진증권	시조동		유	711236	해우리기술, 노	0.010
대우증권	365(은행연계)		유	610225	해우리기술, 노	0.010
한국증권	BankIS가상8		윤	770203	해우리기술, 노	0.010
신한투자	신한PWM서울FC		이	960803	해우리기술, 노	0.010
교보증권	상암		이	700536	해우리기술, 노	0.010
신한투자	신한PWM서울FC		이	980511	해우리기술, 노	0.010
신한투자	신한PWM서울FC		이	030401	해우리기술, 노	0.010
신한투자	신한은행		이	690410	해우리기술, 노	0.010
현대증권	영남부		연	710230	해우리기술, 노	0.010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증권Direct		연	710304	해우리기술, 노	0.010
신한투자	신한PWM서울FC		이	790621	해우리기술, 노	0.010
신한투자	대곡역		이	750627	해우리기술, 노	0.010
한국증권	사당역		이	710111	해우리기술, 노	0.010
키움증권	국민은행 21		이	730273	해우리기술, 노	0.010
대신증권	은행채권2		조	71062	해우리기술, 노	0.010
하나금융투자	하나미래Cyber?		조	791016	해우리기술, 노	0.010
신한투자	신한PWM서울FC		조	711236	해우리기술, 노	0.010
키움증권	국민은행11		조	711238	해우리기술, 노	0.010

○ 이와 관련하여 이 [ ] 및 우리기술 일부 임직원들은 법정에서 단순히 '주가 전망이 밝으니 투자해보라'는 정도의 권유만을 받았다고 증언한바 있습니다.

2022. 6. 10. 이 [ ] 증인신문조서

문 노 [ ] 외에도 우리기술의 여러 임직원들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샀던 것으로 확인되는때 손 [ ] 서 [ ] 전 [ ] 전 [ ] 이 [ ] 박 [ ] 유 [ ] 희 [ ] 반 [ ] 다 기억하는가요.

답 예.

문 이분들이 2010. 8.부터 2010. 11. 사이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집중매수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증인이 이분들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라고 얘기했기 때문인가요.

답 저한테 직접들은 사람도 있을 거고, 안 들은 사람도 있을 건데요. 제가 술자리에서 가볍게 추천했든 아니면 진지하게 추천했든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우리기술 직원들과의 술자리에서 한두 번 정도, 두세 번 정도 도이치모터스를 추천했던 건 기억이 나고요. 다만 이분들이 주식을 정말로 샀는지는 저도 검찰 조사 받기 직전에, 제가 조사받기도 전에 이분들 조사받았다고 저한테 연락 와서 그때 알았습니다.

문 증인이 뭐라고 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보라고 한 건가요.

답 '도이치모터스 주식 좋게 보고 회사에도 살 거다. 나도 산다' 그렇게 얘기했죠.

○ 그러나, 우리기술 직원인 전 [ ] 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연이율 20%에 달하는 카드론 대출을 받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적어도 1년 내로 최소 20% 이상의 수익을 낼 것이라 확신하였기 때문일텐데, 단순히 "주식 전망이 밝다"는 말만으로는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2022. 9. 2. 전 [ ] 증인신문조서

문 그리고 또 하나, 증인이 처음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샀을 때, 저희가 계좌 추적을 해보니까 2010년 11월 2일하고 3일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2580주, 610주 이렇게 사셨는데. 그때 한 1,000만 원 가까이 사셨거든요.

답 예.

문 그런데 그 자금을 찾아보니까 증인이 이틀 전, 3일 전에 대출을 받았어요. 증인이 어떤 얘기를 들었길래 급하게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1,000만 원어치 샀었나요?

답 개인적으로 '사면 괜찮겠구나' 생각했겠고, 그 주식을 사고 싶으니까 제가 대출을 받은 거죠. 자금을 제가 개인적으로...

문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게 그냥 대출도 아니고 카드론이에요. 이율이 20%가 넘는 카드론인데, 카드론을 그렇게 급하게 찾아가지고 도이치모터스를,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도이치모터스를 그렇게 급하게 카드론으로 받아서 사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답 뭐... 그 부분은, 대출을 제가 다른 대출을 일으키기 어려워서 받을 수도 있었구요.

문 대출을 카드론을 받았냐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도이치모터스를 급하게 자금을 마련해서 사야 될 무슨 이유가 있었냐고요.

답 사고 싶었으니까...

### ③ 김 , 김 , 한 의 공모관계

#### 1. 공모경위

##### 가. 손실보장 약정

○ 김 은 증권사 아침 회의 당시 김 으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전망이 좋으니 사보라'는 말을 듣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김 의 증언에 의하면 김 은 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 사실 및 도이치모터스 대표이사인 권오수의 손실보전 약정 사실을 알게 되어 주가조작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 2022. 5. 20. 김 증인신문조서

문 증인은 이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본인이 권오수와 친하다고 하면서 김 에게 '자기가 물어낸다고 하니까 사'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는데, 사실인가요.

답 예.

문 녹취록에 의하면 김 이 당시 HMC증권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HMC에서 사는 건 다 김 이고, 13만 주 정도 샀고 그런 내용들로 진술하고 있는데 김 이 증인이 도이치모터스 관련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면 이렇게 김

쪽에서 HMC 자기 고객들 거래를 이용하여 주식을 이렇게 대량으로 살 이유가 있나  
요.

답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 씨를 제가 알게 된 동기가 우리기술의 이 씨가 김 을 저한테 소개를 했고, 우리기술 제과는 그때 이미 도이치모터스를 사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하고 김 도 서로 연락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기한테 '권오수 대표 다 물어낸다. 주식 사라'고 얘기했던 것이 김 한테 어떻게든 전달이 됐을 것이고 김 씨도 그때 당시에 저기 나오는 것처럼 제과가 '마 니커에서 7억 정도 돈이 들어왔는데 뭐 사면 좋아요' 그렇게 저한테 '형 주식 뭐 살까 요' 물어봤을 것이고 '도이치 한번 사봐. 괜찮아 보여' 그러니까 김 씨가 사게 된 것이지 제가 조직적으로 김 한테 알당해서 얼마 사라고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

문 김 씨가 매수한 주식 7억 원 정도인데 이것 관련해서 김 씨는 증권사 아침 회 의에서 도이치모터스 리포트를 가지고 추천했기 때문에 나름 분석해 보고 산 거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아침 회의에서 추천한 내용만 가지고 7억 원 정도를 살 정도가 되는 가요.

답 김 씨가 제 생각인데 확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도이치모터스를 알게 되고 샀던 시점은 김 씨는 저희 회사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아침 회의에서 얘기를 들었다는 건 얘기가 조금 다르죠. 김 씨는 다른 회사 직원이었 습니다. 저희 회사 아침 회의에 참석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따로 아마 전화나 문 자메시지를 통해서 '형, 뭐 살까' 그러다가 도이치모터스를 소개해 줬겠죠.

○ 김 은 아울러 한 계계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유심히 보라”는 정도 외 에 특별히 범행 공모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한 의 시 세조종 주문 등이 김 을 통해 김 에게 전달된 점에 비추어 보면 한 역시 김 을 통해 김 과 순차 공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2022. 5. 20. 김 증인신문조서

문 증인이 현 이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산 것은 알고 있지요.  
 답 예.  
 문 현 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산 것은 어떻게 알게 된 것인가요.  
 답 김 을 통해서 많이 들었고요. 한 씨하고 저하고 같이 근무한 시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문 한 씨랑 같이 근무하기도 했었지요.  
 답 한 씨가 KTB증권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문 그래서 추측이 아니고 산 것은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김 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는 것 이고, 전체적으로 김 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얼마만큼 샀다는 얘기를 해서 알고 있는 것 이지요.  
 답 예. 맞습니다.

문 실제로 한 피고인이 어떤 종가관리든 아니면 주가관리 관련된 어떤 매매를 관여하고 어떻게 매매에 직접 참여하고 그랬다는 구체적인 지시라든지 보고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받아 왔나요.

답 한 기 한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바는 없는데, 조금 아까 문자 기록에 나온 것 같은 예를 보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으면 종가가 만약 1,000원이었는데, 종가 직전에 호가가 1,000원이었는데 종가가 만일 1,030원으로 끝났다 그

했을 경우에 김 씨 전화해가지고 '30원으로 끝나게 된 것은 [ ]가 산 거예요 그러면 그런가보다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문 결국 김 피고인을 통해서 모두 다 얘기를 듣는 것으로 한 부분을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답 예, 그래서 김 씨가 '오늘은 이가 했으니 내일은 형이 하세요' 이런 문자를 보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나. 김 의 주가조작 범행에 대한 인식

○ 또한 문자메시지 등의 객관적 증거에 의해 김 과 김 이 주가조작 상황을 공유하는 정황이 확인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김 은 김 이 도이치 모터스의 주가를 관리하는 사정을 잘 알면서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 인정하기에 충분합니다.

차량	이름	보낸 사람	받는 사람	일시	내용
발신	김	010	010	2012-07-03 PM 12:58:36	혹시 정크러운손님 5명씩 4명인데 미팅사람있나?
발신	김	010	010	2012-07-03 PM 12:59:22	지금 4천원에 대응했는데 오늘부터 조금씩 올리려고 손계하기 예보 세
수신	김	010	010	2012-09-24 AM 09:50:41	권사장 물당은 이전 얘기대로 8천원 전후에 둘러나요? 그리고 기간은 대략 어느정도? 저녁에 김재곤사장 만나서 얘기하기로 했어요
수신	김	010	010	2012-10-02 PM 01:00:51	시간대 알려주면 맞추어서 나오리합게요
발신	김	010	010	2012-10-02 PM 01:01:24	그러자
수신	김	010	010	2012-10-02 PM 12:44:32	도이치는 일정이 또 변경된건가요?
발신	김	010	010	2012-10-02 PM 12:46:45	아니. 선수들이 오늘까지 연데.
수신	김	010	010	2012-11-07 AM 11:55:02	오늘 유진 갈거예요?
수신	김	010	010	2012-11-08 AM 10:54:49	자천 100억 둘러기도 했어요?
발신	김	010	010	2012-11-08 AM 11:24:58	황정도
발신	김	010	010	2012-11-08 AM 11:25:26	원정되면 알려줄께. 그정 그리 쉽나?
수신	김	010	010	2012-11-08 AM 11:26:13	네

직할	Msg	이	번호	발신	수신	날짜	내용
			010	010		2012-05-18 PM 03:03:15	헌부장하고 내가 마지막으로 종가관리합니다
발신			010	010		2012-10-31 PM 05:10:18	조커도 다시하셨나
수신			010	010		2012-10-31 PM 05:11:19	다요?
수신			010	010		2012-10-31 PM 05:11:21	여봐 말했잖아 추천해 볼게요 종가관리기
발신			010	010		2012-10-31 PM 05:11:39	당연이지
발신			010	010		2012-10-31 PM 05:12:00	그럼 거슬러오니? 약속을 연지었는데
발신			010	010		2012-10-31 PM 05:12:44	그래서 내가 알대일도하고 기분이 여신편게도 해버린다는내 거요잡디가. x
수신	김		010	010		2012-10-31 PM 05:14:20	내가 성헌원 케지는거 봐야했고 이만편 물러났었는데 —
발신	김		010	010		2012-10-31 PM 05:14:36	어려시네요
수신	김		010	010		2012-10-31 PM 05:15:44	종가관리기는 여난것같아. 시세조종관리고
							내가말단 자금되는지 체크하고 얘기해요

3997	MMS	수신	김	010	010	2012-05-21 PM 02:49:46	금요일 헌부장이 종가관리 했으니 오늘은 형이 해요아님 여기저기 반대매 다 터져나오겠어요
3998	SMS	발신	김	010	010	2012-05-21 PM 02:50:24	그려..
4000	SMS	수신	김	010	010	2012-05-21 PM 03:03:55	이게 종가관 리면 난 매얼하겠네

수신	김	2012-09-10 AM 10:25:09	엑스케이 물량나오는거 손희장거예요?
발신	김	2012-09-10 AM 10:25:54	응
수신	김	2012-09-10 AM 10:26:48	여기저기서 난리가 아니네요 같이 팔아버리라고
발신	김	2012-09-10 AM 10:29:33	자-금 지난주부터 자전받고있잖아

2022. 5. 20. 김 증인신문조서

문 김 기 당시 증인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총괄 책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답 **그건 당연히 알아야...**

(증거목록 순번 983번 기록 24001쪽 '문자메시지'를 제시하고)

문 증인과 김 기 2012. 7. 자전거래를 돌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데, 맞나요.

답 예.

문 김 은 증권사 직원이었기 때문에 자전거래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지요.

답 예.

문 자전거래 대상 주식은 도이치모터스 맞는가요.

답 예, 맞습니다.

문 이것을 보더라도 단순히 증인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추천만 하고 다니는 게 아니고 관리하는 걸 다 알았던 걸로 보이는데 이런 대화를 할 때 김 기 그걸 모르는 것 같은 얘기를 한 적 있나요.

답 **그걸 모르기가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 2. 김, 한 의 시세조종 범행 분담

○ 김 - 한 군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내역(서 제외)만 2,243,451주 11,344,661,460원 상당이고, 그 중 한 이 관리한 계좌에서 매수한 주식도 563,934주 3,289,615,695원 상당에 달하는바, 김 및 한 이 형성한 매수세가 주가에 미친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범죄일람표(의) - 주식매수 내역

순번	종목명	계좌번호	계좌주	매도	매수	매도수량(주)	매도금액(원)	매수수량(주)	매수금액(원)						
1	KB증권			20110715	20120517	83,936,135	16,461	20110216	20120517	110,336,595	18,125				
2	KB증권			20100825	20120803	477,137,150	81,907	20100812	20120418	795,639,380	145,037				
3	KB증권			20101126	20121211	709,051,830	132,193	20101123	20121228	717,082,835	134,167				
4	NH투자증권			20110216	20121211	540,147,125	94,024	20110214	20121207	658,173,815	119,461				
5	미래에셋증권			20121004	20121127	220,628,750	72,730	0	0	0	0				
6	미래에셋증권			20101119	20101129	18,524,995	4,590	20100827	20100827	20101115	20101115	12,157,900	4,580		
7	NH투자증권			0	0	0	0	20110411	20110411	20110418	20110418	223,423,730	23,500		
8	KB증권			20110304	20121226	251,852,470	48,973	20101105	20101105	20121226	20121226	286,534,100	54,853		
9	신한투자			20110317	20110422	54,894,600	7,600	20101110	20101110	20101208	20101208	33,850,000	7,600		
10	NH투자증권			20110121	20121218	1,034,251,255	192,741	20101104	20101104	20121218	20121218	1,158,297,750	206,030		
11	미래에셋증권			20101109	20101109	296,625	75	20101105	20101105	20101105	20101105	15,349,100	3,940		
12	NH투자증권			0	0	0	0	20110718	20110718	20110905	20110905	135,452,500	2070		
13	미래에셋증권			0	0	0	0	20101227	20101227	20111007	20111007	209,231,675	37,371		
14	NH투자증권			0	0	0	0	20110406	20110406	20110923	20110923	182,107,860	28,200		
15	NH투자증권			0	0	0	0	20111124	20111124	20111201	20111125	28,406,840	5,800		
16	NH투자증권			20110207	0	20110708	0	20110412	20110413	20110722	20110722	284,914,750	39,688		
17	미래에셋증권			20110117	0	20111017	0	20101013	20101013	20111124	20111124	212,154,500	40,730		
18	케이티비			20120711	20120822	20121126	20121126	19,962,048	6,143	20120418	20120418	20121102	20121102	24,083,920	6,154
19	NH투자증권			20110126	20120716	20120716	175,148,045	23,974	20110110	20110110	20120629	20120629	150,684,135	25,863	

## 한 관련 계좌의 도이치모터스 매매 내역

순번	증권사	계좌번호	계좌주	매도				매수							
				매도수량(주)	매도금액(원)	매도수량(주)	매도금액(원)	매수수량(주)	매수금액(원)	매수수량(주)	매수금액(원)				
1	NH투자증권			20110715	20110715	20120517	20120517	83,936,135	16,461	20110216	20110216	20120517	20120517	110,336,595	18,125
2	유진증권			20100825	20100825	20120803	20120803	477,137,150	81,907	20100812	20100812	20120418	20120418	795,639,380	145,037
3	KB증권			20101126	20101126	20121211	20121211	709,051,830	132,193	20101123	20101123	20121228	20121228	717,082,835	134,167
4	NH투자증권			20110216	20110221	20121211	20121211	540,147,125	94,024	20110214	20110214	20121207	20121207	658,173,815	119,461
5	미래에셋증권			20121004	20121004	20121127	20121127	220,628,750	72,730	0	0	0	0	0	0
6	미래에셋증권			20101119	20101119	20101129	20101129	18,524,995	4,590	20100827	20100827	20101115	20101115	12,157,900	4,580
7	NH투자증권			0	0	0	0	0	20110411	20110411	20110418	20110418	223,423,730	23,500	
8	KB증권			20110304	20110304	20121226	20121226	251,852,470	48,973	20101105	20101105	20121226	20121226	286,534,100	54,853
9	신한투자			20110317	20110317	20110422	20110422	54,894,600	7,600	20101110	20101110	20101208	20101208	33,850,000	7,600
10	NH투자증권			20110121	20110121	20121218	20121218	1,034,251,255	192,741	20101104	20101104	20121218	20121218	1,158,297,750	206,030
11	미래에셋증권			20101109	20101109	20101109	20101109	296,625	75	20101105	20101105	20101105	20101105	15,349,100	3,940
12	NH투자증권			0	0	0	0	0	20110718	20110718	20110905	20110905	135,452,500	2070	
13	미래에셋증권			0	0	0	0	0	20101227	20101227	20111007	20111007	209,231,675	37,371	
14	NH투자증권			0	0	0	0	0	20110406	20110406	20110923	20110923	182,107,860	28,200	
15	NH투자증권			0	0	0	0	0	20111124	20111124	20111201	20111125	28,406,840	5,800	
16	NH투자증권			20110207	0	20110708	0	20110412	20110413	20110722	20110722	284,914,750	39,688		
17	미래에셋증권			20110117	0	20111017	0	20101013	20101013	20111124	20111124	212,154,500	40,730		
18	케이티비			20120711	20120822	20121126	20121126	19,962,048	6,143	20120418	20120418	20121102	20121102	24,083,920	6,154
19	NH투자증권			20110126	20110126	20120716	20120716	175,148,045	23,974	20110110	20110110	20120629	20120629	150,684,135	25,863



○ 뿐만 아니라, 김 과 한 은 여러 차례에 걸쳐 통정·가장매매 및 현실거래로 인한 시세조종성 주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한바, 이들이 김 과의 순차 공모에 따라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인정됩니다.

Three columns of small tables showing transaction data with columns for time, price, and quantity.

'12. 3. 2. 김 의 단주매매 내역 및 직전 체결가 변동

Main table with columns: 호기시간, 이상매매구분, 매도/매수, 호기가격, 체결/직전가, 호기수량, 체결수량, 매수 총잔량. Contains 30 rows of trade data.

3. 비정상적 유인으로 인한 매수세 형성

○ 김 은 김 과 수익분배약정을 체결하는 한편, 김 으로부터 전달받은

내부 호재성 정보를 알려주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하도록 유인하였고, 이후 김 은 이러한 사정을 대외적으로 알리며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외관을 작출하였습니다.

2022. 9. 23. 김 은 증인신문조서

문 처음에 살 때 김 은 이 뭐라고 하면서 사라고 했나요.

답 처음에 살 때는 주식 값이 너무 싸니까 앞으로 많이 올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해서 사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수익이 좀 많이 날 거다 그래서 사기 시작했습니다.

(기록 17593쪽 '진술조서'를 제시하고)

문 김 은 '주식이 많이 오를 것이다. 몇 달 가지고 있으면 2만 원대까지 갈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고, 그 뒤로 '성수동에 AS 공장을 세울 예정이다' 이런 말도 하였는가요.

답 예, 했습니다.

중략

문 김 은 이 왜 기소가 되어 있다면 공소장에도 나와 있는데 증인에게 아주 비정상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달라고 부탁을 하고 유인을 했다는 거예요. 증인에게 이렇게 좋으니까 주식을 사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한테는 손실이 나면 물어줄 테니까 주식을 사라 이렇게 했다는 게 이 사건에서 기소가 된 내용인데, 증인에게대로라면 김 은 이 처음부터 좋은 주식을 소개시켜줄 테니까 이익나면 오히려 그 이익금 중 일부를 달라고 이렇게 처음부터 요구했다는 건가요.

답 '용돈 정도만 좀 줘라' 그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이익이 나면 용돈 정도만 줘라' 그래서 저는 한 1,000만 원 정도를 주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몇 주 샀냐' 그걸 저한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이 그때는 많이 났을 거로 생각하고 이익이 많이 나면 나한테 요구하는 금액이 크겠구나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구좌 거래를 했고, 나중에 시세가 안 좋아서 제가 연락도 않고 그래서 했을 때 저한테 요청해 온 게 '지금까지 거래해서 3억 원 났으니까 1억 5,000만 원 반타작 해' 하고 얘기를 저한테 했는데 실제 그때 이익 난 건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제 기억으로는 정확히 계산은 안 해 봤지만 그렇게 난 게 아니고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났으니까 7,000만 원 주고 정리하자 그렇게 해서 현재 마무리...

김 : (전 략) ... 도이치모터스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사장하고 제가 좀 친해요. 계좌도 한 200억 주시기로 하고 회사가 되게 좋아지거든요. 이걸 우리가 사면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도이치 회장 오늘 양재동에서 만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장님하고 만나보자 말할 거거든요. 잘못되면 물어내겠다고 하는 수준이니까 좋은 사람들 많이 알아요. 강남에 많이 좋은 사람 많이 아니까 도이치모터스 많이 사라고.

손 : 무슨 회사야? (중 략)

김 : 11월 초에 제가 저녁 자리 한번 만들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 샀습니다. 13만 주 정도 샀구요 HMC(현대차증권)는 그때 여기 있던 김 이거든요. 목표가격이 만원이 넘어간다니까요 제가 먹고 이런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자기가 물어낼 정도로 자신있게 말할 정도니.. (중 략)

김 : 저하고는 6월달부터 준비했는데 8월부터 공시 나올 게 있는데 가시화가 돼서 지난 달부터 올라온 건 제가 다 산거거든요. hmc는 김 이고, 마니커에서도 7억 정도 넣어줬어요

○ 한편, 김 은 서 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를 권유하여 서 으로 하여금 주식을 대량매집하도록 하였고, 주가가 하락하자 서 의 매도를 막기 위해 권오수와의 만남을 주선한 바 있습니다.

구분	보낸사람	보낸시간	내용
수신	김	2012-04-30 PM 05:16:41	권사장님할아버지하고의미팅날짜잡아주세요이러다할아버지를향터질까걱정이예요
수신	김	2012-05-12 AM 09:50:50	이 이사전화와서회장님권사장과주말에만나기로했는데연락없다고확인해서전화달라네요
수신	김	2012-05-16 AM 09:46:45	회장님모시고직접도이치로가겠습니다
수신	김	2012-05-16 AM 10:24:03	도이치 답십리 본사
수신	김	2012-05-16 AM 10:31:11	도착오분전

○ 나아가, 권오수가 이 에게 맡겨둔 워런트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주식을 주가매수를 권유하는 등 매도를 통제하였습니다.

SMS	발신	김	010	010	2012-10-18 AM 10:55:49	내 시에 회장님 오시지? 8p로.
MMS	수신	김	010	010	2012-10-18 AM 10:58:18	이 이사가 없어서 회장님이 일만오직이려고 하시네요 오늘 일국한 다나 물어오는대로 통화해서 가시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SMS	발신	김	010	010	2012-10-18 AM 10:58:50	중
SMS	발신	김	010	010	2012-10-18 AM 10:59:06	안그럼 차보내드린다고 미화장이..
MMS	수신	김	010	010	2012-10-18 AM 11:01:01	차야 후배가 모시고 타다니까 걱정없는데 짐사없이 타다려나 하정해서서 그러시요도모 물어와있는 예쁜은 전혀 불치임생각 있나요? 조금이라도 용적이면 수월할텐데
SMS	발신	김	010	010	2012-10-18 AM 11:01:47	크리개 쓰벌. 꼭나오고 오메이트니온다.
MMS	수신	김	010	010	2012-10-18 PM 02:06:57	어째 부디잡기 같네요 여기서 좀더빠지면 현대때에 물방 꾸어질테고 사수해야 일어나겠어요
MMS	수신	김	010	010	2012-10-18 PM 03:59:52	주소 중 '보내주세요내시원' 정도까지 도착하면되나요?내 알상권 내 '내'러기나고 한심 그러서서 힘들었어요 대일 부. 일리만 만가신다고 할 까 걱정됩니다
SMS	발신	김	010	010	2012-10-18 PM 05:16:28	회사 주소도 못외우는데 BP주소를 어케 알아?
SMS	수신	김	010	010	2012-10-18 PM 05:17:49	민이서보고 문자넣어달라해서서 저한테 전달로 보내주세요
SMS	발신	김	010	010	2012-10-18 PM 05:31:42	내일 대가 알아보고 넣는게 낫지. 위치 다 하는데..
SMS	수신	김	010	010	2012-10-18 PM 05:32:31	네
SMS	수신	김	010	010	2012-10-19 PM 02:34:15	회장님 제시만정도 출발 늦어도 제시만에는 도착하실거예요
SMS	발신	김	010	010	2012-10-19 PM 05:45:28	현안 중이다 나중에 전화하겠습니다
SMS	수신	김	010	010	2012-10-19 PM 05:46:27	예기같다고 더잡히 백잡의 한잔하러 왔습니다

SMS	수신	김	010-	010-	2012-10-19 PM 07:12:09	더 사할지는 모대오예요 이회정님이 말했어 세시잖아요
SMS	발신	김	010-	010-	2012-10-19 PM 07:12:37	말했은 그렇지.
SMS	수신	김	010-	010-	2012-10-19 PM 07:13:44	안심이 되신디네요 저는 계속 추가매수해서 단가낮추고 비더블유 받자고 하고요
SMS	수신	김	010-	010-	2012-10-19 PM 07:14:18	[사 나중에 평가준다고 내일 통화하려고요
SMS	발신	김	010-	010-	2012-10-19 PM 07:26:13	추가매수해서 단가도 낮추지만 권 압박해서 내가 추천하께 너 이사로 들어기.
SMS	발신	김	010-	010-	2012-10-19 PM 07:26:48	그리고 경영참여해서 권오수 영 지지고 IR시작하자고..
SMS	발신	김	010-	010-	2012-10-19 PM 07:27:06	넌 어디야?
SMS	수신	김	010-	010-	2012-10-19 PM 07:28:08	선릉 본구하러 다녀요 내인생 힘 그래요
SMS	발신	김	010-	010-	2012-10-19 PM 07:28:38	이밤에 어디서 본를구해?
MMS	수신	김	010-	010-	2012-10-19 PM 07:30:16	여기저기 만나줘야요 사고 한번만 더치면 이혼한다는데 사고아 터졌고 귀에 안들어가게 막아줘야죠
SMS	발신	김	010-	010-	2012-10-20 PM 12:17:03	말해 알పో셔보셈
SMS	수신	김	010-	010-	2012-10-20 PM 12:32:42	네
SMS	발신	김	010-	010-	2012-10-22 AM 08:43:52	주말에 말해 상함은
SMS	수신	김	010-	010-	2012-10-22 AM 08:49:31	오늘 버어지요
SMS	발신	김	010-	010-	2012-10-22 AM 08:50:52	도 내 ... [사기 어떡하드냐에 알려있어요 ]했다고 원장.

**4 소결**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 피고인들의 일부 자백 진술 및 본건 거래경위에 관한 진술, 관련자들의 범죄사 실과 부합하는 일부 진술 등 인적 증거와,
  - 김 4 민 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김 등의 증권사 전화 녹음파일, 호가장 등에 불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도이치모터스 시세 조종 행위를 실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IV 김 의 금품수수 범행의 증거관계**

**I. 피고인의 주장**

○ 피고인은 이 로부터 수급을 의뢰와 함께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① 대가 지급의 조건은 결정되어 있지 않았고, ② 이 로부터 얼마를 지급받았는지 알지 못하며, ③ 설사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 의 추천으로 에이스하이텍을 매수하여 손해를 본 금전을 보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II. 대가지급의 조건이 결정되어 있었던 사실**

○ 먼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이미 우리기술 워런트 중개의 대가 명목으로 9억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어 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 한편, 피고인은 이 이 수급 조건을 이행하지 않자 2010. 9. 13.경 직접 준비해간 각서에 이 로부터 서명을 받았는데,

- 그 각서에는 'IR 및 투자자섭외비용 현금 1억 원과 성공보수로 도이치모터스 보통주 20만주를 교부하여 줄테니 투자자를 물색하여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달라는 조건이었습니다'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 각서를 교부하게 된 동기는 솔로몬투자증권의 김 이사를 통하여 김 씨에게 IR 및 투자자섭외비용 현금 1억원과 성공보수로 도이치 모터스 보통주 20만주를 교부하여 줄테니 투자자를 물색하여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달라는 조건이었습니다.

○ 그리고, 그 이후 피고인과 이 사이에 작성된 2010. 10. 6.자 지불각서, 2011. 5. 27.자 지불각서 모두 위와 같은 조건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며,

- 특히, 피고인은 2011. 7. 27.경 이 을 상대로 이 이 위와 같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고소를 하였는데, 그 고소장에도 역시 'IR계약으로 1억원 그리고 성과보수조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20만주를 주기로 하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역시 같은 취지로 고소인 진술을 하였습니다.

전문가인 고소인에게 접근하여,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IR(기업설명회 등 기업홍보)을 위하여 IR계약을 맺자며, IR계약으로 1억원 그리고 성과보수조로 피고소인이 보유중인 도이치모터스 주식 20만주를 주기로 하고,

- 이처럼 피고인은 줄곧 이에게 위와 같은 조건을 이행하라고 주장해 왔 으면서도, 이 사건에서 돌연 그러한 조건이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 III. 이로부터 수수한 금품

- 피고인은 2010. 8. 27.과 2010. 9. 7. 이 을 소개해 주었던 김 으로부터 각각 1,000만원씩 합계 2,000만원을 송금받았는데,

은행명	계좌주	계좌번호	거래일시	거래내역	책요	출금액	입금액	거래금액	잔액	상대계좌주	상대계좌번호	상대은행
국민은행	김		2010-08-27 15:21:53	전자금융	김	-	10,000,000	10,000,000	10,108,300	김		000
국민은행			2010-09-07 08:18:27	타행환	김	-	10,000,000	10,000,000	10,004,300			

- 특히, 2010. 8. 27.자 1,000만원의 경우에는 이 이 차명으로 사용하던 권 명의 계좌에서 김 에게 이체 되자마자 바로 피고인에게 다시 이체 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고객명	계좌번호	구좌좌번호	거래일자	책요	출금액	입금액	비고	거래잔액	거래시간	잔액	상대은행	연동상대좌번호
김			20100827	타행환	10,000,000			11,691,853	15:21:53	10,000,000	국민은행	
김			20100907	모타환	10,000,000			1,695,597	13:21:53		국민은행	

- 이 과 김 모두 위 금원이 피고인의 도이치모터스 주식매수 대가라 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 또한,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010. 10. 11. ~ 2010. 11. 9. 사이에 이 로부터 합계 3,800만 원을 추가로 수수하였는데,

은행명	계좌번호	거래번호	거래일시	거래종류	거래내용	목적	출금액	입금액	거래금액	잔액	거래일(연시)	상대계좌주	상대계좌번호
국민은행	김		2010-10-11 12:55:13	현금외입금	현자금용	영		5,000,000	5,000,000	5,010,918	영원(0626)	영	
국민은행	김		2010-10-11 12:57:36	현금외입금	현자금용	영		5,000,000	5,000,000	10,010,918	신원은행(3813)	영	
국민은행	김		2010-10-15 14:31:52	현금외입금	현자금용	권		5,000,000	5,000,000	5,009,918	금소기업(0494)		
국민은행	김		2010-10-19 15:02:18	현금외입금	타행환	목		5,000,000	5,000,000	5,059,918	금소기업(0012)		
국민은행	김		2010-11-02 11:13:48	현금외입금	자기입	목		3,000,000	3,000,000	4,486,850	명동점(3753)		
국민은행	김		2010-11-08 14:18:51	현금외입금	타행환	대		10,000,000	10,000,000	10,234,250	현대저축(100)		
국민은행	김		2010-11-08 15:47:40	현금외입금	자기입	목		5,000,000	5,000,000	9,233,250	명동점(3753)		

- 위 적요란에 기재된 양 는 이 이 계좌를 관리해 주던 사람으로, 이 은 당시 양 계계 부탁하여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 권 , 육 는 이 이 차명으로 사용하던 계좌이며, 이 은 이 의 가명으로 이 은 검찰에서 위 금원이 모두 도이치모터스 주식매수 대가로 지급한 금원 중 일부라고 진술하였습니다.

○ 그리고, 피고인은 2019. 9. 14.경 출소한 이후에도 이 에게 연락하여 정산하지 못한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여, 2019. 12. 3. 1,000만원 및 2019. 12. 31. 1,400만원 합계 2,400만원을 피고인의 동생 김 명의 NH투자증권 계좌로 송금 받았습니

고객명	계좌번호	거래일	거래시간	구분	거래금액	잔액	거래장	송금은행	상대계좌	IP	거래내용	현금대체	비고
(주)에리온테크놀로지		2019-12-30	16:35:46	출금	14,000,000	2,133,845	민덕점(2472)	NH투자증권			인터넷	대체	?
(주)씨엑스엔베스트먼트		2019-12-03	10:00:26	출금	10,000,500	5,439,646	명준(247201)	NH투자증권			인터넷	대체	김

생성 일시 : 2019-12-02 10:20:25	내용 : NH투자증권 김 다. 부탁한다.	회영은
생성 일시 : 2019-12-02 10:31:36	내용 : 영, 권희드말래요	
생성 일시 : 2019-12-02 15:12:54	내용 : 내일 보내는건 좋는데...그런데 여리 편하면 조금은 번거로워졌다. 여리 여리는 아니고 다시 알려줘서. 약 20%만 떨어져서 2400 쪽 내일 1200 그리고 연할 이내 1200씩 2회 분할로 하고. 연말이내에 정리하는건로 그게 합리적일것 같다. 너도 막서 못지나 물어고 나는 현분도 있고 어떡하? 이 정도면 내가 많이 양보했거지? 9800를 2400으로 바꿔봐준다면. 못받겠으면 이야기해	

생성 일시 : 2019-12-30 16:09:46	내용 : NH투자증권 김 다. 부탁한다.	계좌명은
생성 일시 : 2019-12-30 16:12:13	제목 : 영 내일 까지 처리 할래 내용 : 영 내일 까지 처리 할래요 그리고 이제 다정리 되는거 맞죠 다음주 일금받고 이야기 하시죠 우엇을 어떡해 앞으로 권할래요 일단 이것은 내일부로 깨끗이 정리 하고요	
생성 일시 : 2019-12-30 16:19:53	내용 : 다음주에 내가 준 서류 전부들려주고 음성화될 다 지우고 서부법원 경매신청 취소하고. 공문서류 폐기하고...	

○ 뿐만 아니라, 이 은, 피고인이 2010. 10. 하순경 ~ 11.초순경 '약속어음 공증 선 것(1억 8,600만원)에서 최소한 1억은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우선 되는대로 좀 가지고 와라'라고 해서,

- 그 무렵 임페리얼호텔 사거리에서 약 500만원(현금+수표)을 주었고, 그 이후에도 몇 백 만원씩 2~3번 정도 더 현금과 수표를 주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문자메시지에 명확하게 근거가 남아 있는 2019.경 2,400만원 외에는 이 이 송금한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 위 계좌거래내역, 이 과 김 의 진술, 고소사건에 제출된 2010. 10. 6 자 확인서 등에 의하면 이 이 계좌로 송금해 준 금액만 하여도 8,200만원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p>항고인 이 주민번호: 69028</p> <p>항고인인 2010년 10월 6일 당초 3월 25일에서 김 과 김 과 송금할 목적으로 송금한 금원인 이항고에 관한 3145만원 (이하)은 지정하지 못함. 항고인의 유해충돌인 시</p>	<p>이 은 2010. 10. 6. 월요일까지 1,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하였는데, 앞서 살펴본 계좌내역에 이하면, 2010. 10. 11.(월) 이 의 부탁으로 양 가 1,000만원을 송금하였음</p>
---	---

#### IV. 에이스하이텍 손실보전 금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피고인은 2010. 10. 20.경 이 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대가 명목의 1 억 원과 에이스하이텍 손실보전 명목 8,800만원 합계 1억 8,800만원의 약속 이음을 받아 공중하였는데,

- 이를 빌미로, 3항 기제와 같이 송금 받은 금원이 이 로부터 받은 금원이 라고 하더라도, 이는 에이스하이텍 손실보전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 습니다.

○ 그러나, 앞서 살펴본 2010. 9. 13.자 각서에 의하면,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관련 해선 투자자섭외 보수로 주기로 한 1억원 중 기지급한 2천만원을 제외한 8천 만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관련해선 투자자섭외 보수로 주 기로한 1억원중 기지급한 2천만원을 제외한 8천만원과 금일



- 위 각서 작성일 이전인 2010. 8. 27. 및 2010. 9. 7. 김 을 통해 송금한 2,000만원은 투자자설의 보수 명목이었던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또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정필에게 정산을 요구하면서 '도이치건은 1억으로 한거고'라고 하는바,

메시지	발성	발신	성성 일시 : 2019-12-03 14:36:59	내용 너더하고 나하고 채권채무 내역이 뭔지 아니? 도이치건은 1억으로 한거고. 에이스하이텍에 팔 권판액. 그래서 공정은 말역판권판액인데. 내가 이를 다시 말역으로 물어준거고, 네게 이백 받은게 있어서 구권판액이고 이를 다시 이번엔 이전으로 결정한거야. 그런데 내가 약속을 안지켜서 사백 올린거. 결국 말역육천사백을 감해줬는데. 어떤 사람 포았나? 이단중에 내지이부분 까지 지켜주면 네게도 좋은 일이 많을꺼야. 아무튼 수고했다.	이 011a
-----	----	----	-----------------------------	--	-----------

-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매수계좌 확보 대가를 요구하였다는 이 의 진술, 매수계좌 확보 대가 외에 도이치모터스 손실보전을 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 위 계좌거래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위 '도이치건은 1억으로 한거고'라는 표현은, 매수계좌 확보 대가와 도이치모터스 손실보전을 합한 금액에서 기존에 지급 받았던 금원 등을 공제하고 1억 원으로 정리한다는 의미므로, 3항 기재 금원이 에이스하이텍 손실보전 금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즉흥적인 변명에 불과합니다.

V. 소결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을 고소하면서 제출한 각서, 원금보장 각서, 확인서, 지불각서, 계좌거래내역,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 과 김 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 피고인이 2010. 5. ~ 8.경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계좌 확보의 대가로 1억 원 및 도이치모터스 주식 20만주를 제공받고 약속하고, 위 약속에 따라 2010. 8. 27.경부터 2019. 12. 30.경까지 함께 8,2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보론) 한편, 이 사건과 같이 약속한 금품 중 일

부만을 수수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약속 및 수수의 일죄로 보면서도 가중 처벌 여부는 유죄로 인정된 실제 뇌물수수액과 약속된 뇌물액 중 아직 수수하지 않은 금액을 더하여 그 합산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서울고등법원 2010노3399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억 원의 뇌물약속 범행과 2억 원의 뇌물수수 범행은 포괄하여 뇌물약속 및 수수의 일죄로 보면서도 가중 처벌 여부는 유죄로 인정된 실제 뇌물수수액과 약속된 뇌물액 중 아직 수수하지 않은 금액을 더하여 그 합산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 피고인이 현금 1억 원과 도이치모터스 주식 20만주(당시 시가 기준 약 5억 원) 합계 6억 원 상당을 받기로 약속하였으므로,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어 2025. 5. ~ 8.경 공소시효가 완성하고,
- 설사, 실제로 수수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금품을 수수한 2019. 12. 30.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29. 12. 29. 공소시효가 완성하므로, 공소시효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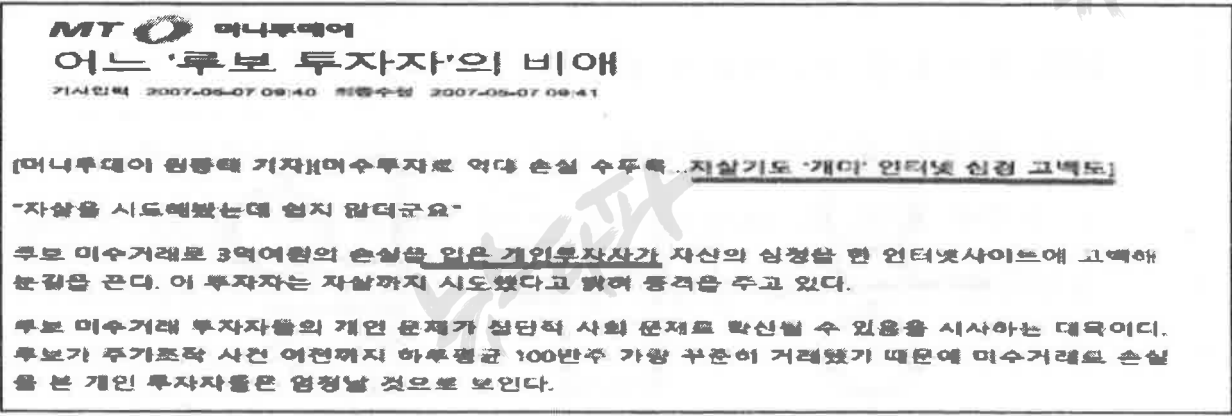


**V 양형의견**

**1. 사안의 특징 및 피고인들의 죄질**

**① 증권시장의 거래질서 교란 및 공정경쟁 저해**

○ 이 사건 범행은 시세조종이라는 교묘한 수법을 동원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안으로, 이는 시장경제질서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증권시장의 거래질서를 심대하게 교란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범행 자체로 사안이 매우 중대합니다.



**② 권오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한 이익 취득 및 시세조종 직접 실행**

○ 특히, 권오수는 상장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기업을 투명하고 건실하게 운영하여야 할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 주가를 부양할 목적으로 회사의 내부 정보를 시세조종꾼들에게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기도 하는 등 그 책임이 매우 중대하다고 할 것입니다.

○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권오수가 2010. 1.경부터 2011. 12.경까지 두창섭유의 계산으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대우 아이빌> 과 <파라곤 오피스텔> 을 임차하여 그 곳에서 연 과 함께 최은순 명의 계좌를 운용하면 도이

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주문을 낸 사실이 인정되는바<sup>17)</sup>, 이처럼 상장사 최대 주주 겸 대표이사가 속칭 '선수'들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인의 계좌를 관리하며 시세조종으로 인한 수익을 도모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 이상 권오수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 나아가, 권오수는 2010. 9. 1.경부터 2010. 9. 13.까지 직전가 대비 매우 낮은 호가로 1,000주에서 30,000주까지 허수매수 주문을 내었을 뿐만 아니라, 2010. 11. 3.에는 최은순의 계좌를 이용하여 누가 보아도 명백한 통정매매 주문을 내기까지 하였는바, 상장사 대표가 직접 시세조종성 주문을 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 그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 한편,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 계획적으로 순차 범행이 진행되어 온 사안으로, 수급에 동원된 금원이 수백 억 원에 이를 정도로 범행의 규모 역시 상당하고, 권오수가 조직적, 계획적 범행에서 가담한 역할 역시 매우 중대합니다.
- 특히, 권오수는 이 사건 시세조종 이익구조 사슬에서 최상위 포식자에 해당 하는바, 이 사건을 통해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이 바로 권오수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권오수는, 이 사건 시세조종을 통해 ① 초기투자자들의 엑시트를 통해 이들에 손실보전의 책임을 면제받고, ② 차명계좌 및 인베스트 라는 투자자문업체를 이용하여 시세조종을 하고 있는 자신의 회사에 투자 하여 직접 수익을 취득하고, ③ 시가총액 600억 원 이상을 유지하여 대규모 자본을 유치함으로써 도이치파이낸셜 등 금융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으며, ④ 주가 관리를 통해 반대매매 등을 방지하여 대주주 지분 비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오수는 이 모든 잘못을 공범 이 , 김 등에게 떠

17) IP추적 결과, 계좌추적 결과, 영 의 진술 등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고, 권오수 역시 최은순 명의의 미래에셋대우증권 계좌를 이용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음(다만, 이는 주가조작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최은순의 계좌를 관리한 사실만을 인정하는 취지임)

넙기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바, 현재까지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③ 이 의 범행 가담 정도의 중대성**

○ 이 은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사건에서, 공범 권오수의 요청을 받아 본건 범행을 시작한 사람으로, 그 과정에서 다수의 차명계좌를 동원하여 직접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수급세력을 동원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는바, 그 책임이 중하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이 은 그 과정에서 양 에게 15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 비롯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가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그 후로도 김 과 연락을 유지하며 계속하여 본건 범행에 관여하였는바, 그 죄질 또한 나쁘다 할 것입니다.

**④ 김 의 범행 가담 정도의 중대성**

○ 비록 김 은 도망하였다가 검거된 후부터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과거 증권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며,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주가를 부양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유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 직원인 김 까지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자로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 특히 김 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도망하였고, 공범들과 사실을 왜곡하기로 하는 작전을 주도하고, 공범 민 까지 도주하게 하는 등 범행 이후의 행태도 매우 불량하여 김 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 뿐만 아니라, 김 은 증권사 임원이라는 지위를 망각하고 이 로부터 주식 수급의뢰를 받아 주가조작에 나서고, 그 대가로 수 억원의 금품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집요하게 이 을 압박하여 실제로 8,200만원을 수수

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 가담정도 뿐만 아니라 그 죄질이 매우 무겁습니다.

**5 이 의 범행 가담 정도의 중대성**

○ 이 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베스트를 수급 사무실로 운영하면서 민 , 김 이 으로 하여금 김 등의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도록 하고,

- 나아가 권오수와 직접 협의를 하고 그 내용을 김 과 민 에게 지시하는 등 권오수에 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람으로 범행 가담정도가 매우 중대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는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으며, 그 책임을 모두 김 에게 떠 넘기는 태도로 일관하였는바, 그 죄질 역시 상당히 중대합니다.

**6 김 등의 범행 가담 정도의 중대성**

○ 김 은 마치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들을 유혹하여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한편 직접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김 군은 7개 혐의군 중 매수유도를 한 계좌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김 은 이를 통해 고객들의 주식거래로 인한 수수료 중 일부를 인센티브 명목으로 수령함으로써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 특히, 고객 김 의 진술 및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김 은 김 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 소개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요구하고 그 중 7,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면서 '김 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 다고 하면 값을 의무도 없고 고맙게 생각해야죠'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 가담정도 뿐만 아니라 그 죄질이 매우 중대합니다.

○ 손 , 현 또한 김 등이 본건 시세조종·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여 적극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하거나 통정거

래에 협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행행위를 하였는바, 그 거래비중에 비추어 가  
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그 죄질도 중하다 할 것입니다.

## II. 대법원 양형기준

-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는 자본시장법상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로 기  
본형량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  
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이를 정도로 중대범죄입니다.

### 대법원 양형기준(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년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0월 - 2년6월	1년 - 4년	2년6월 - 6년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 4년	3년 - 6년	4년 - 7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3년 - 6년	5년 - 9년	7년 - 11년
5	300억 원 이상	5년 - 9년	7년 - 11년	9년 - 1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실상 입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 행가담</li> <li>●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li> <li>● 실제 주가 등에 미친 영향이나 행 위의 규모가 작은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 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li> <li>●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li> <li>●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li> <li>●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li> </ul>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아자</li> <li>●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종 누범</li> </ul>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 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li> <li>● 소극 가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난 동기</li> </ul>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사처벌 전력 없음</li> <li>● 진지한 반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li> <li>●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또는 규제기구로부터 징계나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li> </ul>

- 게다가,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부당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더라도, 본건은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 규모가 큰 경우’에 해당하여 가중구간의 적용을 받는 범행입니다.

### III. 최근 유사판결 선고형량

- 본건은 상장사 대표이사가 주도하여 증권사 임원, 전문투자회사 대표 등 시세조종 세력에게 주가부양을 의뢰하고, 그들이 수급세력을 동원하여 거래량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주가를 부양하고, 주가하락을 방지하는 등 시세조종 범행을 한 사안으로, 이는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대표적인 범죄로, 최근 법원에서도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시세조종 세력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 실제로 여러 피고인들이 역할 분담하여 2년 이상의 장기간 시세조종 범행을 하는 등 본건과 그 거래구조가 유사하였던 해성산업 시세조종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주범들에 대하여 각 징역 3년 ~ 7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 ~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sup>18)</sup>,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주범들에 대하여는 징역 2년 ~ 5년의 중형을 유지하였으며,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서도 징역 1년 ~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sup>19)</sup>, 최근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sup>20)</sup>.

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8고합105-1(분리), 2018고합170(병합), 2019고합13(병합)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9. 선고 2020고단4948 판결

19) 서울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0노1355, 2021노630(병합) 판결

20)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10163 판결



**VII**

**결론**

○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본건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범행을 하고, 피고인 김 이 이 로부터 1억 원 이상을 수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본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여 주시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의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